

중소도시 쇠퇴지역 재생정책 합리화를 위한 근린단위 연구  
[부록] 중소도시 쇠퇴지역 재생정책 합리화를 위한 근린단위 연구  
Rationalizing Community Policy  
for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Slum Regeneration in Korea

여혜진 Yeo, Hae Jin

( a u r i

AURI-자료-2013-3

[부록] 중소도시 쇠퇴지역 재생정책 합리화를 위한 근린단위 연구

Rationalizing Community Policy

for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Slum Regeneration in Korea

지은이: 여혜진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3850000251002008000005호

인쇄: 2013년 12월 26일, 발행: 2013년 12월 31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301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19,000원, ISBN: 978-89-97468-99-7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차 례

부록1. 주민설문조사 .....	1
부록2. 도시규모별 검토 .....	97

## 표차례

[표 부록 1-1] 노송동 응답자특성 .....	10
[표 부록 1-2] 영주동 응답자특성 .....	29
[표 부록 1-3] 행궁동 응답자특성 .....	45
[표 부록 1-4] 길음동 응답자특성 .....	60
[표 부록 1-5] 우이동 응답자특성 .....	78
[표 부록 2-1] 도시별 인구사회 · 물리적환경 · 지자체재정요소 비교 .....	99

## 그림차례

[그림 부록 1-1] 사업인지 여부 및 만족도 .....	11
[그림 부록 1-2] 사업 참여 여부 및 만족도 .....	12
[그림 부록 1-3] 마을 현안에 대한 관심 .....	13
[그림 부록 1-4] 사업주체별 신뢰도 .....	14
[그림 부록 1-5] 사업주체를 신뢰하게 된 이유 .....	15
[그림 부록 1-6] 사업을 신뢰하게 된 이유 .....	15
[그림 부록 1-7] 마을현황 발생 시 각 주체와 협력여부 .....	16
[그림 부록 1-8] 사업을 신뢰하게 된 이유 .....	17
[그림 부록 1-9] 마을현황 발생 시 각 주체와 협력여부 .....	17
[그림 부록 1-10] 사업을 통한 주민들과의 친밀도 변화여부 .....	18
[그림 부록 1-11] 사업을 통해 동네/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변화 .....	18
[그림 부록 1-12] 커졌다면 동네/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 .....	19
[그림 부록 1-13] 사업인지 여부 및 만족도 .....	30
[그림 부록 1-14] 사업 참여 여부 및 만족도 .....	31
[그림 부록 1-15] 마을 현안에 대한 관심 .....	32
[그림 부록 1-16] 사업주체별 신뢰도 .....	33
[그림 부록 1-17] 사업주체를 신뢰하게 된 이유 .....	34
[그림 부록 1-18] 사업을 신뢰하게 된 이유 .....	34
[그림 부록 1-19] 마을현황 발생 시 각 주체와 협력여부 .....	35
[그림 부록 1-20] 사업을 신뢰하게 된 이유 .....	36
[그림 부록 1-21] 마을현황 발생 시 각 주체와 협력여부 .....	36

[그림 부록 1-22] 사업을 통한 주민들과의 친밀도 변화여부 .....	37
[그림 부록 1-23] 사업을 통해 동네/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변화 .....	37
[그림 부록 1-24] 커졌다면 동네/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 .....	38
[그림 부록 1-25] 사업인지 여부 .....	46
[그림 부록 1-26] 프로그램참여 만족도 .....	47
[그림 부록 1-27] 마을 현안에 대한 관심 .....	48
[그림 부록 1-28] 사업주체별 신뢰도 .....	49
[그림 부록 1-29] 사업주체를 신뢰하게 된 이유 .....	49
[그림 부록 1-30] 사업을 신뢰하게 된 이유 .....	50
[그림 부록 1-31] 마을현황 발생 시 각 주체와 협력여부 .....	50
[그림 부록 1-32] 사업을 신뢰하게 된 이유 .....	51
[그림 부록 1-33] 마을현황 발생 시 각 주체와 협력여부 .....	52
[그림 부록 1-34] 사업을 통한 주민들과의 친밀도 변화여부 .....	52
[그림 부록 1-35] 사업을 통해 동네/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변화 .....	53
[그림 부록 1-36] 커졌다면 동네/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 .....	53
[그림 부록 1-37] 사업인지 여부 및 만족도 .....	61
[그림 부록 1-38] 사업 참여 여부 및 만족도 .....	63
[그림 부록 1-39] 마을 현안에 대한 관심 .....	64
[그림 부록 1-40] 사업주체별 신뢰도 .....	65
[그림 부록 1-41] 사업주체를 신뢰하게 된 이유 .....	66
[그림 부록 1-42] 사업을 신뢰하게 된 이유 .....	66
[그림 부록 1-43] 마을현황 발생 시 각 주체와 협력여부 .....	67
[그림 부록 1-44] 사업을 신뢰하게 된 이유 .....	68
[그림 부록 1-45] 마을현황 발생 시 각 주체와 협력여부 .....	68
[그림 부록 1-46] 사업을 통한 주민들과의 친밀도 변화여부 .....	69
[그림 부록 1-47] 사업을 통해 동네/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변화 .....	69
[그림 부록 1-48] 커졌다면 동네/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 .....	69
[그림 부록 1-49] 사업인지 여부 및 만족도 .....	79
[그림 부록 1-50] 사업 참여 여부 및 만족도 .....	81

[그림 부록 1-51] 마을 현안에 대한 관심 .....	82
[그림 부록 1-52] 사업주체별 신뢰도 .....	83
[그림 부록 1-53] 사업주체를 신뢰하게 된 이유 .....	84
[그림 부록 1-54] 사업을 신뢰하게 된 이유 .....	84
[그림 부록 1-55] 마을현황 발생 시 각 주체와 협력여부 .....	85
[그림 부록 1-56] 주민협의체의 향후 운영여부 .....	86
[그림 부록 1-57] 지원센터와 시민단체의 관계 .....	87
[그림 부록 1-58] 사업을 통한 주민들과의 친밀도 변화여부 .....	88
[그림 부록 1-59] 사업을 통해 동네/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변화 .....	88
[그림 부록 1-60] 커졌다면 동네/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 .....	88





## 부록1. 주민설문조사

1. 설문지 내용
2. 설문조사 개요
3. 사례별 기초분석

### 1. 설문지 내용

- ☐ 사업의 인지, 참여 경험 만족도
- ☐ 사업 추진주체에 대한 신뢰
- ☐ 사업추진의 주민주도 가능성
- ☐ 사업관계망의 공간적 상관성
- ☐ 응답자 정보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b>주민설문조사</b> <b>(전주시 노송동)</b>		건축도시공간연구소				
			ID				

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으로 주민참여형 근린재생사업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전주시 노송동에서 진행되는 전주 도시재생테스트베드 사업인 주민워크샷, 지원센터 설치,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설문 응답에 협조해 주시면,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파악하여 향후 전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와 효과적인 근린재생사업의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귀하의 개인정보 및 설문응답에 대한 비밀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수행 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조사수행 기관	
------------	-----------	------------	--

<b>Part 1.</b>	<b>사업의 인지, 참여경험, 만족도</b>
----------------	--------------------------

1. 전주시 노송동에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 귀하가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주민참여활동들이 귀하가 노송동 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참여활동	인지여부	도움정도 (인지여부에서 알고있는 경우만 응답)
플랜카드 및 홍보물	알고있다/ 모른다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그렇지않다
마을신문 및 인터넷홍보	알고있다/ 모른다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그렇지않다
주민설문 및 인터뷰조사	알고있다/ 모른다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그렇지않다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알고있다/ 모른다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그렇지않다
주민교육 및 답사	알고있다/ 모른다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그렇지않다
주민동의서, 서명작성	알고있다/ 모른다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그렇지않다
주민협의회(운영위)활동	알고있다/ 모른다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그렇지않다
지원센터 설치	알고있다/ 모른다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그렇지않다
시공	알고있다/ 모른다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그렇지않다
개장식	알고있다/ 모른다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그렇지않다
기타 (주관식)		

2 중소도시 쇠퇴지역 재생정책 합리화를 위한 근린단위 연구

1-1. 만족하시는 경우, 귀하가 사업 인지방법에 대해 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불만족하시는 경우, 귀하가 사업 인지방법에 대해 불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귀하가 직접 참여했던 프로그램과 만족도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

참여방법	참여여부	만족도 (참여한 경우만 응답)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유 / 무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만족하지 않음 ⑤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마을신문 및 인터넷 정보습득	유 / 무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만족하지 않음 ⑤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마을신문 및 소식지 기획 / 배포	유 / 무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만족하지 않음 ⑤ 전혀 만족하지 않음
설문조사 및 인터뷰	유 / 무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만족하지 않음 ⑤ 전혀 만족하지 않음
주민교육 및 답사	유 / 무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만족하지 않음 ⑤ 전혀 만족하지 않음
주민동의서작성	유 / 무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만족하지 않음 ⑤ 전혀 만족하지 않음
주민대표회의 구성원	유 / 무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만족하지 않음 ⑤ 전혀 만족하지 않음
사업대상지 신청	유 / 무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만족하지 않음 ⑤ 전혀 만족하지 않음
교육 및 답사	유 / 무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만족하지 않음 ⑤ 전혀 만족하지 않음
행정 및 지원센터 방문이나 문의	유 / 무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만족하지 않음 ⑤ 전혀 만족하지 않음

2-1. 귀하가 사업 참여방법에 대해 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2. 귀하가 사업 참여방법에 대해 불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귀하는 노송동 사업을 계기로 동네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셨습니까?

- 1) 동네일에 관심이 아주 많아졌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
- 2) 동네일에 관심은 많아졌지만 참여는 상황에 따라 하고 있다.
- 3) 동네일에 관심은 있지만 참여는 하지 않고 있다.
- 4) 동네일에 관심이 별로 없다
- 5) 기타 ( )

3-1. 3번항목에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b>Part 2.</b>	<b>사업 추진주체에 대한 신뢰</b>
----------------	-----------------------

4. 귀하는 노송동 사업을 계기로 **함께 진행했던 기관이나 사람**에 대한 신뢰관계가 변화되었습니까?

주 체		신뢰도
사업 추진 주체	주민협의체(운영위)	매우신뢰, 신뢰, 보통, 별로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구청 및 주민센터	매우신뢰, 신뢰, 보통, 별로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지원센터	매우신뢰, 신뢰, 보통, 별로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시민단체 (활동가등)	매우신뢰, 신뢰, 보통, 별로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전문가(MP, 설계업체등)	매우신뢰, 신뢰, 보통, 별로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일반	이웃	매우신뢰, 신뢰, 보통, 별로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통장 또는 통장협의회	매우신뢰, 신뢰, 보통, 별로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반상회등 주민모임	매우신뢰, 신뢰, 보통, 별로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5. 귀하가 **사업추진주체**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1)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들이 활발해서

2) 찬성만이 아니라 반대의견까지 존중해줘서

3) 주민교육 및 홍보물로 사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줘서

4) 행정이나 지원센터, 시민단체들의 지원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서

5) 기타 ( )

6. 귀하가 이 **사업**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1) 주민들의 숙원사업(동네현안)이 해결되어서      2) 시공결과에 만족해서(동네환경개선)

3)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4) 동네가 발전해서

5) 기타 ( )

7. 귀하는 동네에 **여러 가지 현안이 생긴다면** 어떤 기관이나 사람과 계속 협력하여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주 체		협력
사업 추진 주체	주민협의체(운영위)	① 적극협력 ② 대체로협력 ③ 보통 ④ 별로협력하지않음 ⑤전혀협력하지않음
	구청 및 주민센터	① 적극협력 ② 대체로협력 ③ 보통 ④ 별로협력하지않음 ⑤전혀협력하지않음
	지원센터	① 적극협력 ② 대체로협력 ③ 보통 ④ 별로협력하지않음 ⑤전혀협력하지않음
	시민단체 (활동가등)	① 적극협력 ② 대체로협력 ③ 보통 ④ 별로협력하지않음 ⑤전혀협력하지않음
	전문가(MP, 설계업체등)	① 적극협력 ② 대체로협력 ③ 보통 ④ 별로협력하지않음 ⑤전혀협력하지않음

일반	이웃	① 적극협력 ② 대체로협력 ③ 보통 ④ 별로협력하지않음 ⑤ 전혀협력하지않음
	통장 또는 통장협의회	① 적극협력 ② 대체로협력 ③ 보통 ④ 별로협력하지않음 ⑤ 전혀협력하지않음
	반상회등 주민모임	① 적극협력 ② 대체로협력 ③ 보통 ④ 별로협력하지않음 ⑤ 전혀협력하지않음

7-1. 적극 협력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2. 협력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b>Part 3.</b>	<b>사업추진의 주민주도 가능성</b>
----------------	-----------------------

8. 귀하는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협의체(또는 운영위원회)가 향후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사업이 끝났더라도 동네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확대, 지속되어야 한다
- 2) 사업과 관련된 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
- 3) 사업이 끝났으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한다.
- 4) 기타 ( )

9. 귀하는 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나 시민단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 상설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 2) 주민들의 요청이나 필요가 있을 때에 지원하면 된다.
- 3) 사업이 끝났으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한다.
- 4) 기타 ( )

<b>Part 4.</b>	<b>사업관계망의 공간적 상관성</b>
----------------	-----------------------

10. 귀하께서는 노송동 사업을 통해 주민들과 친밀도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DQ5) 귀하께서 거주하는 주택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단독주택(독채)    ② 다세대/다가구/상가주택    ③ 연립주택(빌라)    ④ 아파트  
⑤ 주상복합    ⑥. 기타(주거형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복지시설 등)

DQ6) 귀하의 주택소유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자가    ② 전/월세

DQ7) 귀하가 현재 가입/활동하고 있는 주민단체가 있으십니까?

(주민협의회, 시민단체, 통장협의회, 주민모임 등)

- ① 있음 (단체명: )  
② 없음

DQ8)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는 어떻게 되십니까? 번지까지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 2. 설문조사 개요

### 1) 사전조사

- ① 지역현황
- ② 추진배경
- ③ 추진과정

### 2) 설문 조사설계

- ① 조사대상 : 전주시 노송동 / 영주시 관사골 / 서울 강북구 길음동 소리마을 / 서울시 성북구 우이동 진달래마을 거주민
- ② 표본 수 : 전주시 노송동 51명 / 영주시 관사골 52명 / 길음동 소리마을 52명 / 우이동 진달래마을 37명 (진달래마을은 총 134세대 거주로 유효설문표본수가 적음)
- ③ 표본할당 :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주민 + 사업에 대한 인지여부
- ④ 조사방법 : 인터뷰를 통한 개별 면접조사
- ⑤ 조사도구 : 설문지
- ⑥ 조사기간 : 2013년 8월 28일 - 9월 25일
- ⑦ 조사내용

사업의 인지, 참여경험, 만족도	·사업 홍보를 위한 활동 및 매체에 대한 만족도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사업을 통한 동네 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의 변화
사업 추진주체에 대한 신뢰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신뢰 정도 ·사업추진주체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 이유 ·사업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된 이유
사업추진의 주민주도 가능성	·주민협의체(운영위원회 등)의 지속 필요성 ·사업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및 시민단체와의 관계
사업관계망의 공간적 상관성	·주민들과의 친밀도 변화 ·'우리동네' 범위에 대한 인식 변화



### 3) FGI 조사설계

#### ① 조사대상

##### □ 전주시 노송동

박경난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지원팀장) / 권대환 (전주시 시정발전연구소) / 박 훈 (전 전북의제21사무국장, 마을활동가) / 채성태 (문화공간 싹 대표, 전 지원센터 상근자, 현 마을 활동가) / 양철성 (서노자율방범대원, 전 동네협의회 부회장) / 허정수 (현 동네협의회 회장) / 삼원경로당 (여울모임 회원 다수) / 기타 주민

##### □ 영주시 영주1동 관사골마을

박홍복 외 1인 (영주시청 전·현 담당공무원) / 안병일(전 주민협의체 위원장) / 현 주민협의체 위원장 / 김봉환 (영주시 이장통장 연합회장 / 현 협의체 위원) / 조준배 (영주시디자인관리단장) / 기타 주민

##### □ 서울 성북구 길음동 소리마을

남철관 (성북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 김동환 (성북마을만들기지원센터, 소리마을 활동가) /이용현 (협동조합 이사) / 김경복 (주민협의체위원, 협동조합 이사) / 이애재 (주민협의체 부회장, 협동조합 이사) / 이종민(주민협의체위원, 협동조합 이사장) / 기타주민

##### □ 서울 강북구 우이동 진달래마을

박승배(도시연대 사업국장, 우이동경관협정사업 주민참여 담당) / 소진수 (우이동경관협정위원회 위원장) / 길무언 (우이동 경관협정체결자) / 기타주민

#### ② 조사방법 : 방문 인터뷰 조사

#### ③ 조사기간 : 2013년 8월 28일 - 9월 25일

### 3. 사례별 기초분석

#### 1)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국토해양부 R&D 지역공동체 자력수복형 도시재생사업

##### ① 응답자특성

[표 부록 1-1] 노송동 응답자특성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51	100.0
성별	남자	16	31.4
	여자	35	68.6
연령별	40대	2	3.9
	50대	9	17.8
	60세이상	40	78.6
거주 기간별	6-10년	3	5.9
	11-15년	4	7.8
	16-20년	6	11.7
	21-25년	3	5.9
	26-30년	8	15.7
	31년 이상	27	53.3
직업별	가정주부	24	47.1
	직장인	5	9.8
	자영업자	16	31.4
	무직/기타	6	11.8
주택 유형별	단독주택(독채)	48	94.1
	아파트	1	2.0
	주상복합	2	3.9
주택소유 유형별	자가	44	86.3
	전/월세	7	13.7
주민단체 가입여부	있음	23	45.1
	없음	28	54.9

##### ② 조사결과

###### □ 사업의 인지, 참여경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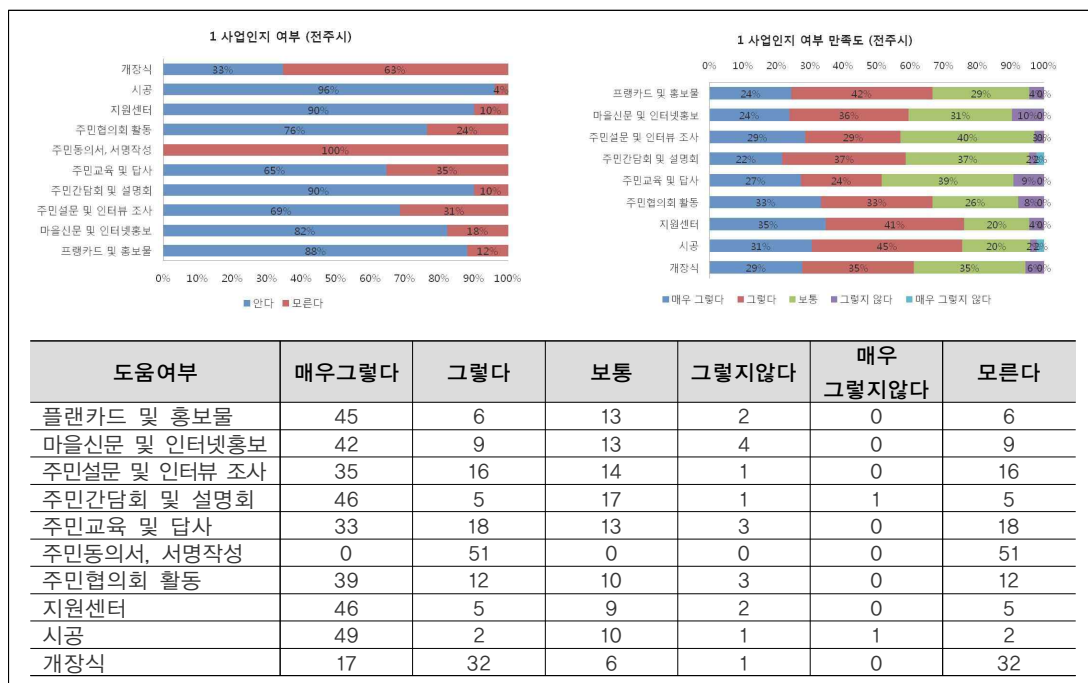
- 질문1. 전주시 노송동에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 귀하가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주민 참여활동들이 귀하가 노송동 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시공이 96%로 가장 높았으며 지원센터와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90%, 플랜카드 및 홍보물 88%, 마을신문 및 인터넷 홍보 82%, 주민협의회 활동 76%의 순으로 나타남

골목길 환경개선 및 텃밭조성 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결과물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는데 한편으로는 지원센터에 대한 인지가 다음으로 높게 응답되었음

지원센터의 경우 노송동 사업 전체를 책임지고 주민과의 관계망을 열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마을신문은 20여 차례 발간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마을신문을 직접 접고 협의체 위원들이 배포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그림 부록 1-1] 사업인지 여부 및 만족도

사업인지에 대한 만족도를 사업인지여부에 대한 응답율과의 관계성속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시공의 만족도는 76%, 지원센터 76%,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59%, 플랜카드 및 홍보물 66%, 마을신문 및 인터넷 홍보 70%, 주민협의회 활동 66%임

설문 1번의 사업인지 여부에서는 시공, 지원센터,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플랜카드 및 홍보물, 마을신문 및 인터넷 홍보, 주민협의회 활동 순이었으나,

사업인지에 대한 만족도는 시공의 만족도는 76%, 지원센터 76%, 마을신문 및 인터넷 홍보 70%, 플랜카드 및 홍보물 66%, 주민협의회 활동 66%,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59%로 직접 만나서 설명하는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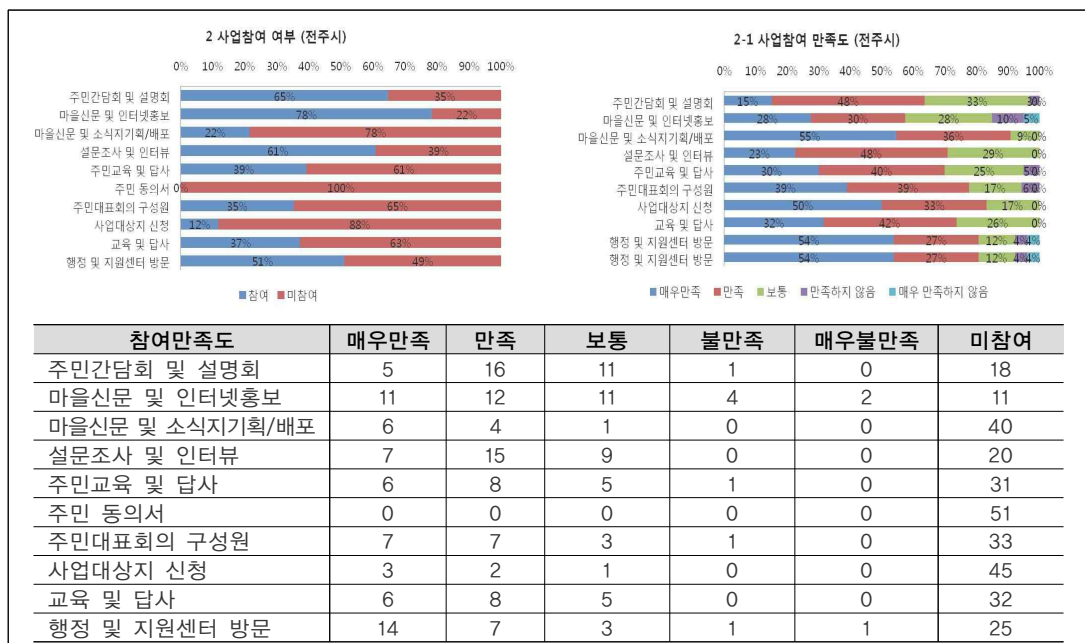
- 질문 1-1. 만족하시는 경우 귀하가 사업 인지방법에 대해 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 1-2. 불만족하시는 경우 귀하가 사업 인지방법에 대해 불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의견
사업 인지 방법	만족	·신문은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됨 ·자세한 설명 등으로 사업에 대해 이해가 시작되었음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발한 활동으로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높으며 동네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음 ·동네의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
	불만족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일일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음 ·노인들이 이해하기에 내용들이 너무 어려움 ·주민들이 주도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설명이 많아지고 있음 ·주민홍보가 적극적이지 못함 ·국토부가 말만하고 실제 실행은 제대로 안하고 있음

- 질문2. 귀하가 직접 참여했던 프로그램과 만족도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

사업 참여 여부는 마을신문 및 인터넷홍보 78%, 간담회 및 설명회 참여 65%, 설문조사 및 인터뷰 61%, 행정 및 지원센터 방문이 51%임

마을신문 및 인터넷 홍보가 높은 이유는 지역이 낙후되어 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으나 관심이 있는 층들의 참여가 생업 등으로 직접 참여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마을신문을 통한 정보 이해가 높은 것으로 보임



[그림 부록 1-2] 사업 참여 여부 및 만족도

사업 참여 여부는 마을신문 및 인터넷홍보, 간담회 및 설명회 참여, 설문조사 및 인터뷰, 행정 및 지원센터 방문 순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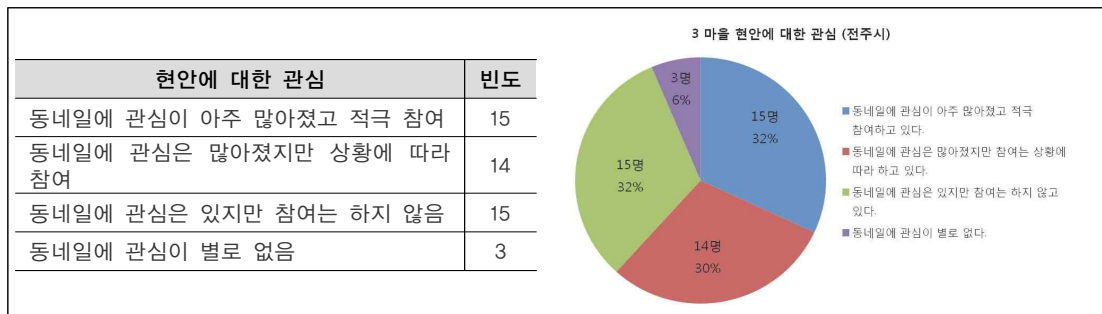
이와 연계한 만족도는 행정 및 지원센터 방문 81%, 설문조사 및 인터뷰 71%, 마을신문 및 인터넷 홍보 58%, 간담회 및 설명회 참여 53% 순임

만족도가 높은 항목으로 지원센터 방문이 압도적인데 이는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들과 교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지원센터의 활동이 활발함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 것으로 판단됨

- 질문 2-1. 귀하가 사업 참여방법에 대해 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 2-2. 귀하가 사업 참여방법에 대해 불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의견
참여 경험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웃과 어울리는 기회가 만들어져서 좋음</li> <li>·동네가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니깐 만족함</li> <li>·쉽고 재미있으며 교육과 답사를 통해 시야가 넓어졌음</li> <li>·마을신문을 통해 직접 참여하지 못해도 사업을 이해하고 있음</li> <li>·EM 등 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고 있음</li> <li>·의견을 피력하는 기회가 제공됨</li> </ul>
	불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사 등에 대한 소식이 늦게 전달됨</li> <li>·답사는 우리 동네와 많이 달라 실질적 도움이 안 됨</li> <li>·주민들에게 기획권한을 주지 않고 센터를 보조하는 느낌임</li> <li>·참여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음 (프로그램이나 회의시간이 길고,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수시로 나오라고 하고, 시키는 것이 많고)</li> <li>·중간 중간 현황에 대해 제시하지 않아 진행상황을 모름</li> <li>·사업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도시재생이라는데 뭘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음</li> </ul>

- 질문3. 귀하는 노송동 도시재생 사업을 계기로 동네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셨습니까?



[그림 부록 1-3] 마을 현안에 대한 관심

도시재생 사업을 계기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이며, 관심은 많아졌지만 상황에 따라 참여한다는 응답은 3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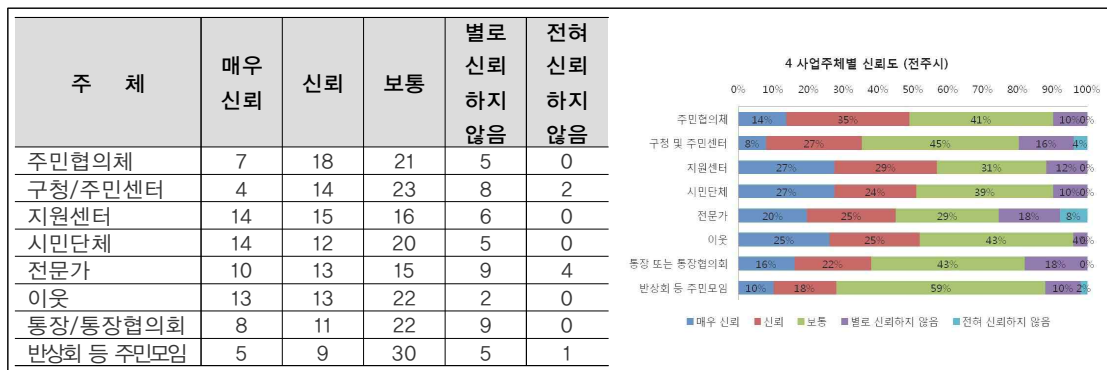
도시재생 사업을 계기로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새로운 리더십들이 형성되는 과정이기도 한 것으로 보임

- 질문 3-1. 3번 항목에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의견
동네 현안에 대한 참여/ 미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동네 일이기에 당연히 참여</li> <li>·마을의 변화를 보고 참여하면 달라진다는 자신감이 생김</li> <li>·과거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관심이 높아짐</li> <li>·정부가 지원해준다는데 협조하는 것이 타당함</li> <li>·관심은 있으나 내 집 앞에 변화가 없어 참여할 맛이 안남</li> <li>·노인들만 있고 참여해도 변화가 없어 참여하지 않을것임</li> </ul>

#### □ 사업 추진주체에 대한 신뢰

- 질문 4. 귀하는 노송동 사업을 계기로 함께 진행했던 기관이나 사람에 대한 신뢰관계가 변화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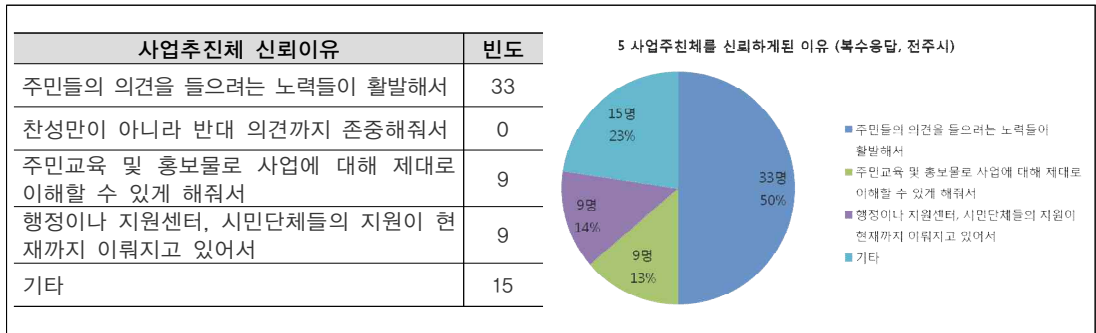
[그림 부록 1-4] 사업주체별 신뢰도

가장 높은 신뢰를 보인 사업추진 주체는 지원센터로 56%이며 다음은 시민단체 51%, 이웃 50%, 주민협의체 49%, 전문가 45%임

지원센터가 사업을 위해 설치, 운영되면서 주민들과 가장 공식적이고 밀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시민단체는 활동가들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현안을 함께 대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센터 초기에는 전주의 활동가들이 센터에 결합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려고 했으나 활동방식이나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활동가들은 센터에서 나오게 되었으며 활동가 차원에서의 활동을 노송동에서 진행하고 있음. 이는 센터는 기획시범사업을 해야 하는데 활동가들은 ‘일반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발생하는 차이라고 판단됨

- 질문 5. 귀하가 사업추진주체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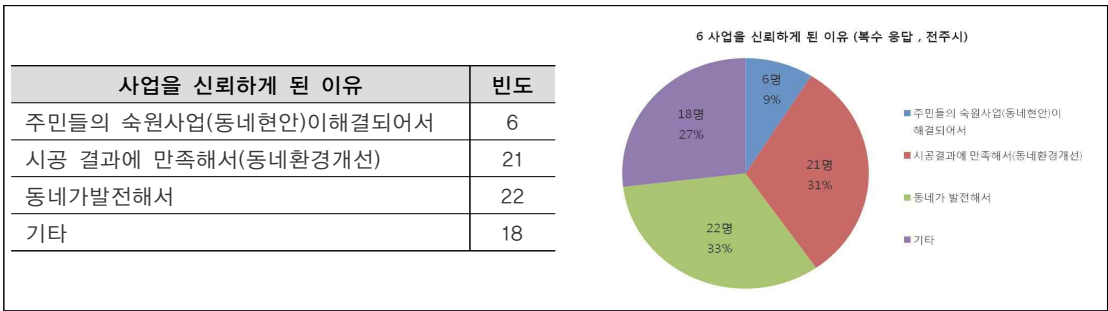


[그림 부록 1-5] 사업주체를 신뢰하게 된 이유

추진주체에 대한 신뢰의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이 활발해서가 50%이며 기타 의견이 23%임

기타의견들은 ‘학생들의 방문설문으로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여럿이 합심해서 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만나는 기회가 많아짐’ 등이며 다른 의견으로는 ‘센터의 노력은 활발하나 주민들의 노력은 별로 없음’, ‘마을일에 관심 갖는 분들만 헌신함’, ‘몇 사람만 모여서 하는 것 같아 신뢰가 가지 않음’ 등임

- 질문 6. 귀하가 이 사업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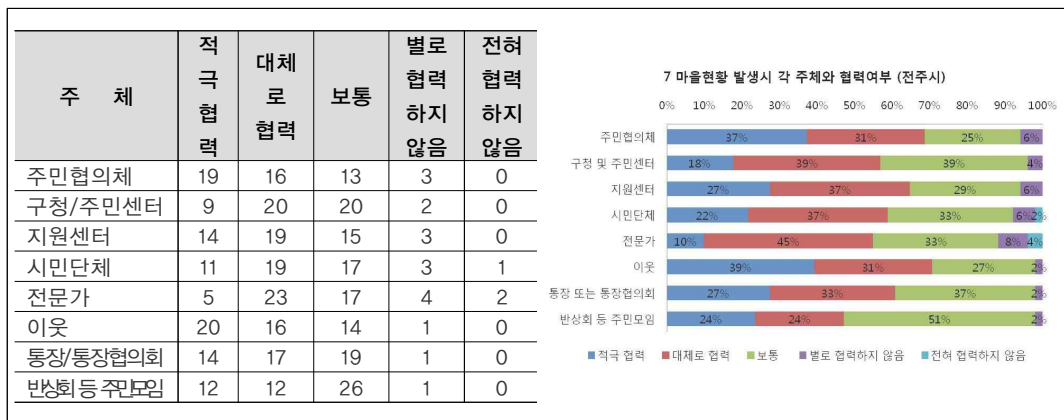
[그림 부록 1-6] 사업을 신뢰하게 된 이유

사업실패의 가장 높은 이유는 동네가 발전해서 33%, 시공결과에 만족해서가 21%, 기타 27%, 주민숙원사업 해결 9% 순임

대체적으로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에 중앙부처 차원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임

기타 의견은 ‘건립될 복지관에 대한 기대가 큼’, ‘행정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작 마을에 필요한 것은 하고 있지 않음’, ‘주민들이 원래 하던 일인 꽃밭이나 청소가 도시재생은 아니라고 봄’ 등임

- 질문 7. 귀하는 동네에 여러 가지 현안이 생긴다면 어떤 기관이나 사람과 계속 협력하여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그림 부록 1-7] 마을현황 발생 시 각 주체와 협력여부

현안에 대한 협력주체는 이웃 70%, 주민협의체 68%로, 지원센터 64%, 통장 60%순임  
이웃에 대한 관계성이 높은 동네이며, 통장 등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등에 대한 신뢰와 사업의 중심축인 센터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질문 7-1. 적극 협력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 7-2. 협력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의견
협력	유	·우선 이웃 등 동네사람과 협력한 후에 행정의 도움을 요청 ·나이가 많음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쁜 일임
	무	·일상적 관계가 없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전문가와의 협력은 고려하지 않음 ·NGO는 주민과 생각이 다른 것 같음 ·바쁘기도 하지만 할머니들만 참여하는 것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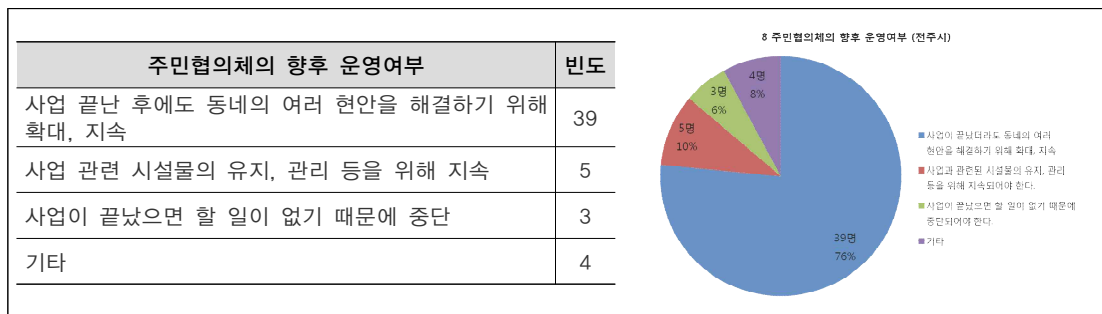


## □ 사업추진의 주민주도 가능성

- 질문 8. 귀하는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협의체(또는 운영위원회)가 향후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협의체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76%가 확대, 지속이라고 응답했으며 10%는 사업의 관리라는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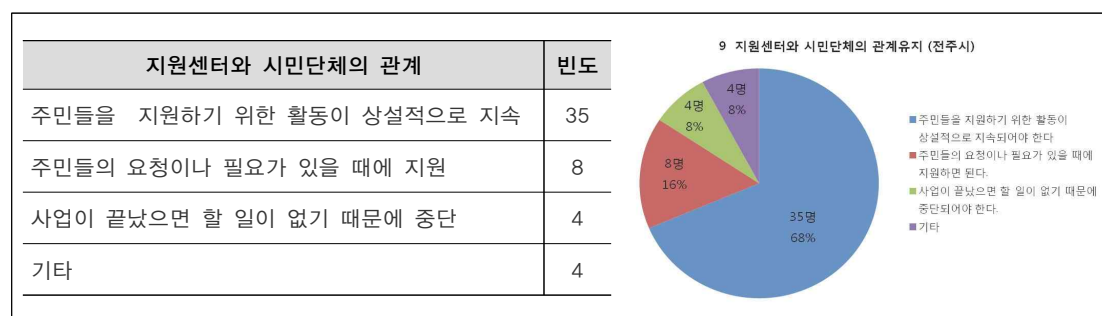
주민협의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센터의 공식 활동기간이 2014년 4월로 종료되기 때문에 지속시킬 주체로서 설정하고 있다는 것과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을 위해 주민대표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임



[그림 부록 1-8] 사업을 신뢰하게 된 이유

- 질문 9. 귀하는 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나 시민단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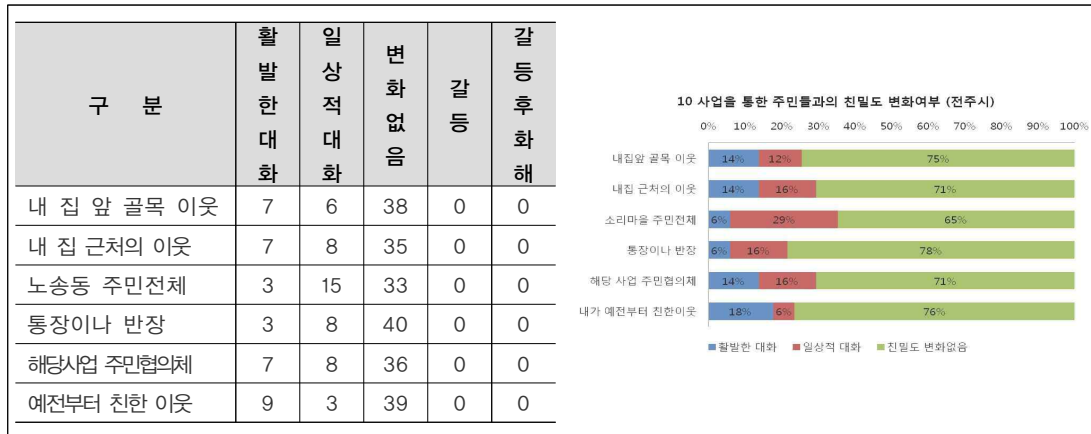
지원센터나 시민단체와의 관계유지는 상설적 지원이 68%, 주민 필요시 지원이 16%이며, 8%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그림 부록 1-9] 마을현황 발생 시 각 주체와 협력여부

## □ 사업관계망의 공간적 상관성

- 질문10. 귀하께서는 노송동 사업을 통해 주민들과 친밀도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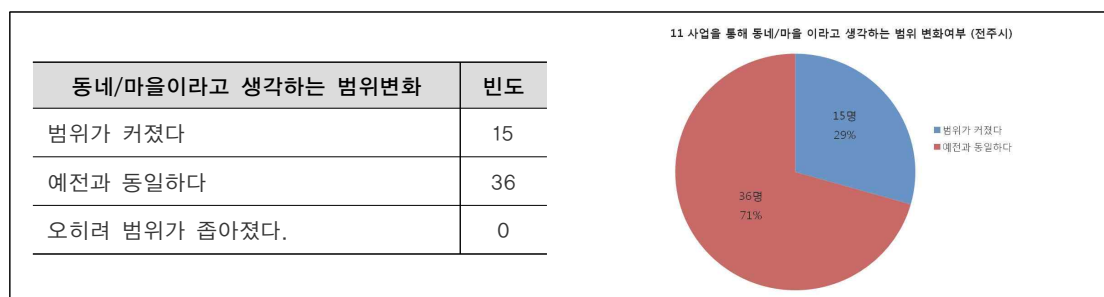
[그림 부록 1-10] 사업을 통한 주민들과의 친밀도 변화여부

친밀도의 변화가 없음이 70%를 넘나드는데 친밀도의 변화가 없다는 답변은 동네의 특성과 연계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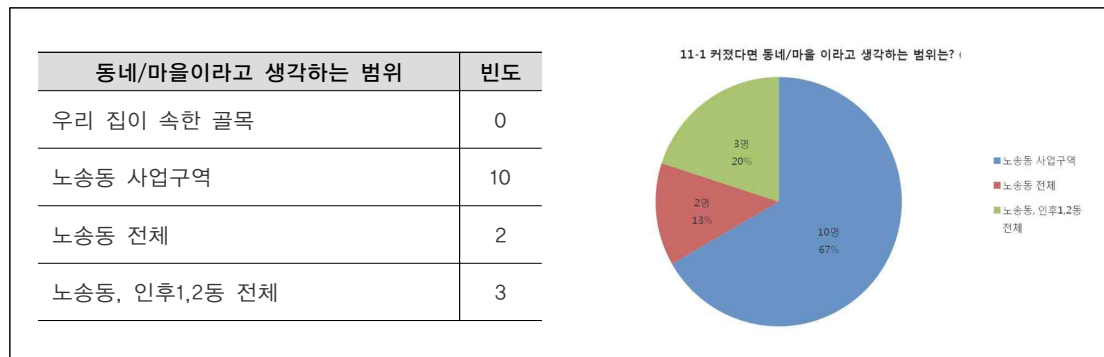
정주성이 높고 노인층이 많이 살며 주민과의 일상적 관계가 활발한 노송동의 특성상 사업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일상적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임

활발한 대화는 예전부터 친한 이웃이 가장 높으며 집 앞 이웃, 집 근처 이웃, 주민 협의체가 14%로 이는 사업과 별개로 이웃과의 친밀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

- 질문11. 귀하께서 이 사업을 통해 동네/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달라지셨습니까?



[그림 부록 1-11] 사업을 통해 동네/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변화



[그림 부록 1-12] 커졌다면 동네/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

노송동의 경우 예전과 동일하다는 응답이 71%로 가장 높으며, 범위가 커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9%임

67%의 응답자는 ‘노송동 사업구역’ 이라고 응답했으며 20%는 노송동 및 인후1,2동 전체, 13%는 노송동 전체라고 응답함

### ③ FGI 조사내용

#### □ 허정수 (현 동네협의회 회장)

2011년 집에 온 홍보물을 보고 사업을 알게 되었고 초기 사업설명회부터 동네한바퀴 프로그램, 교육 답사 등을 참여하면서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지만 아마도 중간 중간 참여한 주민들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마을신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지면이 한 장밖에 안되고 재정이나 인력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아직은 일반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음

정년퇴직을 하면서 처음으로 설명회나 교육을 통해 동네사람들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우리 동네가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됨. 주민들도 관심이 많았는데 주민들은 집을 고치는데 정부가 도와주는 것으로 이 사업을 이해하는 분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에게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알려나가는 중임. 복지센터에 대해서도 주민들 대부분은 복지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오해하고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재생거점시설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동네의 변화는 의식과 물리적인 환경이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의 사업방향에 동의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적인 관계는 아직 미진한 상태임. 잘사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생업에 쫓기고 있고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서 동네협의회 회장으로써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힘들

요즘 EM 활성액을 같이 만들고 나눠주고 텃밭에 뿌리는 활동을 하는데 주민들이 많은 호응이 생기고 있음. 이처럼 작은 일이지만 나름대로 동네의 관계망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을 끌어들이는 일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노인정을 노인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면서 마을신문을 접게 하는데 이처럼 젊은 사람은 생업으로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들을 끌어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주민들은 빠른 변화를 기대하는데 속도가 나지 않으면 열의가 식어짐. 현재 노송동은 텃밭이나 가로정비, 센터 건립 등 변화가 보이기 때문에 참여하면 달라진다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음

#### □ 양철성 (서노자율방범대원, 전 동네협의회 부회장)

아주 오랫동안 봉사하는 마음으로 동네일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2011년 동동동 마을 학교를 전주대학교에서 할 때 8주간 교육을 받았음. 이후 노송동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면서 초기 TB팀들이 내려올 때부터 같이 참여하였고 TB팀들과 어떤 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등에 대해 같이 협의도 하고 동네 주민들에게도 직접 나서서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하면서 많은 활동을 진행해왔음

동네협의회에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기존부터 열심히 동네를 위해 봉사활동을 한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육을 통해 선출했지만 동네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던,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으며, 봉사하는 마음보다는 직장으로 바라보는 것도 동의되지 않았고, 주민들도 자신의 집 앞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기성도 보여서 동네협의회를 그만두고 TB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있음

사업들도 다 진행과정이 있음. 예를 들어 천사축제는 채성태 씨가 기획하면서 나랑 뜻이 맞아서 준비해온 것인데 센터가 축제기획위원회를 만들면서 기존 참여했던 사람들이 참여가 줄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2012년 축제는 2011년 축제보다 많이 축소됨. 또 이런 저런 사업들이 너무 많고 모임이 잦아보니깐 주민들이 피로함을 호소하고 있음

주민교류거점인 마을공방 역시 내가 나서서 공가 소유주를 설득해서 무상으로 기증 받은 곳인데 TB센터에서 친환경활동 거점공간, 전북보육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장난감과 도서를 기증받아 대여프로그램 실시, 보육동아리가 구성되어 보육카페로 활용, 공가 옥상은 폐가 철거 터에 조성할 마을정원용 화단박스를 주민이 직접 제작하는 옥외공방으로 활용 등의 구상을 이야기했고 일부는 추진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재 내부는 아수라장이고 문도 잠겨있어 무엇으로도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최소한의 수리도 하지 않아 전기도 안 들어오고 비도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처럼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채성태 씨가 나서서 뭔가 활용하려고 하는 중이며 그래서 채성태 씨를 도와주고 있음

#### □ 삼원경로당

TB사업과 긴밀한 연계를 갖고 있는 경로당으로 경로당 회원들은 설명회나 답사, 교육 등에도 참여해왔으며 현재 마을신문을 접는 작업과 더불어 일부 회원들은 어울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또 몇몇은 노송밥나무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TB사업에 대한 호감도는 높으나 연세가 많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참여를 도와주는 형태임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노인들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글씨를 깨알같이 쓴 종이 다섯 장을 주고 설문을 풀라고 하더라. 노인들이 어떻게 읽고 언제 그것을 다 쓰는가?” “노인들은 오래 앉아있는 것이 힘든데 자꾸 오라 가라 하면서 오래 앉아 있어야 한다.” “어울모임도 가끔 청소나 하고 텃밭이나 가꾸는 것 인줄 알았는데 맨날 교육하고 회의한다고 해서 피곤하다.” 는 문제를 제기함

마을신문을 접는 일은 매달 20만원의 비용이 노인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오고, 경로당에서 놀면서 수다 떨면서, 간식 먹으면서 하는 것이며 노인들도 TB사업에서 할 일이 있다는 보람도 느끼고 있음

#### □ 기타주민들의 이야기

TB의 박사에게도 이야기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은 달라야 한다고 봄. 현재 해바라기를 심고 텃밭을 가꾸고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지금까지 몇몇 마을 사람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 온 일인데 도시재생사업이라면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마을사업이어야 함. 지중화사업이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이런 사

업들이 재생사업에 걸맞다고 생각됨. 그래서 원래 마을일에 봉사하던 사람들은 시시해서 현재 TB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참여하지 않고 있음

사업선정 이후 여러 교육을 받았는데 초기에는 서노송동 나대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범위가 너무 넓게 확장되면서 뭘 하려는 것인지 감이 잘 오지 않음. 한곳이라도 먼저 해놓고 나서 다른 곳으로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시작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하니깐 초기에는 참여했다가 지금은 전혀 참여하지 않게 됨

#### □ 채성태 (문화공간 싹 대표, 전 지원센터 상근자, 현 마을 활동가)

지역의 문제는 지역 내부에 매몰되면 한계가 나타나게 되는데, 노송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고 있었으며 동동동 마을학교 때 코디로 참여했다가 TB사업과 만나게 되었음. 연세대 이연숙 교수님과 만나서면서 내가 기획한 방향이나 내용이 이연숙 교수팀과 너무나 흡사했기에 함께 논의하면서 4월 센터가 만들어질 때 공동체 총괄팀장으로 결합하게 됨

TB사업 대상지로 노송동이 맞지 않다는 생각도 하는데 이 동네의 문제는 다른 동네와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임. 즉 집창촌인 선미촌이 있는데 선미촌과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얽혀 있어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건들지 않으면 노송동의 재생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됨

현재 TB팀에서 나온 상태이나 다양한 마을일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TB에서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 이나 한계를 보았기 때문이며, 변화될 가능성을 못 느끼고 있음

TB팀의 노력이나 활동은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있으나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지시나 요구에 맞추느라 정신이 없는 구조이며, 총괄과 상가, 지역 팀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봄. 전주지역의 교수 등 전문가의 경우 이런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이지만 보고서 작성에 치중하고 있다고 생각됨

프로그램 역시 전략과 전망 없이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일반성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천사축제를 내가 기획한 이유는 매년 천사가 우리 동네에 와서 기부하고 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필요한 정보들을 파악해보고 이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잘 활용해 보자는 것이었음. 혼자 사는 노인이 많은데 돌아가

셔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불빨래를 통해 혼자 사는 노인들을 파악해보자는 취지였으며 이불빨래에 잔치를 결합한 것이 천사축제임. 이불을 수거해서 빨고 나대지에 이불을 널고, 이불이 말라가는 풍경이 바로 잔치 아니겠는가라는 차원에서 결합한 것인데 2011년도에 이러한 과정들을 함께 하면서 주민들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시작하게 됨

즉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에는 올지, 얼마를 낼지만 생각하고 있지 왜 얼굴 없는 천사가 이 동네에 나타났을까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자원을 끌어오고 주민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차년도인 2012년도에는 주민 리더들이 서로간의 관계를 재연결하는 것을 구상했었음

그러나 1차년도는 기획대로 TB센터와 함께 했지만 2차년도에는 5개동 주민들을 다 기획위원회에 결합시키면서 마을축제가 안 되는 문제, 내용은 담기지 못하는 축제중심 프로그램, 보여주기식 결과에 치중하고 있다고 생각됨

마을신문 역시 필요성은 인정하나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보다는 빨리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행하다 보니 리더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천천히 해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면서 주민들이 피곤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처럼 많이 벌리는 이유는 도시재생 과제이기 때문에 해야 함. 이로 인해 주민들은 각 사업에 대해 헛갈리기 시작하고 있으며 가장 힘든 사람들은 바로 TB팀에 있는 분들이라고 보임

마을 활동가와의 네트워크 역시 차근차근 논의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쉽지 않으며 그래서 활동가들과의 관계망은 미미한 상태임

주민들 간의 유대관계는 매우 높은 지역임. 주민들의 정주성도 높기 때문에 서로 잘 아는 관계인데 이 사업으로 친밀도가 높아지기 보다는 잘 알던 이웃끼리 많은 이야기를 하는 단계정도로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임. 아직 동네 협의회나 주민들이 주도해서 일들이 본격화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내용으로 친밀도 변화를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됨

그럼에도 TB사업은 매우 중요하며, 방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함께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함

#### □ 권대환 (전주시 시정발전연구소)

전주시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었던 것은 전주시에서 타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인데 노송동은 공모지침에 맞게 전략적으로 선택한 지역임. 중앙시장은 이전부터 노송천복원사업이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이 진행되었고 노송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하여 기반시설이 정비된 곳인데 기반시설 정비만 있었을 뿐 지역이 활성화되지는 못했던 것임

전주는 마을만들기 관련 시민단체가 활발하지는 않으며 특히 도시재생 등 도시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는 거의 전무한 상태임

중앙시장은 이미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었고 상인회도 가동되고 있었지만 주거지인 노송동은 거의 황무지인 상태에서 TB사업팀들이 열심히 활동했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임. 정보에 대한 공유도 높아지고 교육이나 답사를 통해 리더들이 주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리더들 역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TB사업이 끝나더라도 주민들의 힘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주의 고민임. 이런 차원에서 지역 활동가들과 논의하고 있는 지점이 가칭)마을공동체회사 설립임. 마을만들기가 프로젝트로 움직이다가 끝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코디네이터 양성사업도 진행하고 마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주민과 코디네이터가 함께 참여하는 마을회사를 고민하는 것인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시에서 운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마을단위에 마을기업 형태인 마을공동체회사를 설립하고,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어떤 사업이 들어오더라도 마을공동체회사와 결합하자는 것임. 마을기업형태로 갈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논의 초기 단계정도임

TB팀들도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겠지만 초기에 내부적인 혼선과 전문가팀간의 역할 설정 등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서 거의 6개월 동안 추진이 되지 못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몇 차례 지역 전문가나 활동가와 회의는 있었으나 실제 무엇을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상이 불명확하였기에 현재는 거의 연계가 없는 상태임

실제 주민과 함께 하는 활동보다는 페이퍼작업이 중심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으나 이는 국토부나 LH의 재생지원사업단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봄. 그러다보니



홈페이지 등에 올라간 사업들이 실제 TB사업이였는가라는 문제제기도 나왔었음. 연구과제 체계를 맞추다보면 당연히 지역사회분위기를 맞추기가 어려움. 이는 국가 연구과제의 한계로 보이는데 연구는 현장 사업과 동시에 진행해서는 안됨. 현장은 현장대로 가면서 이것을 연구하는 과정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동시에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한계로 보임

동동동 마을학교를 하면서 코디네이터협의회를 만들고 있는데 전주의 경우 민간영역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TB팀들에게 제기하고 결합하지 못하는 것이 전주의 한계인데 마을만들기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것임. 즉 결합한 주체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인데 조금씩 자리를 잡는 초기임. TB와는 직접 결합은 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이 끝나더라도 민간영역은 지속되어야하기 때문에 전면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기반을 구축하고 내년도 4월에 TB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역에서 받아서 지속시킬 구상을 하고 있음

주민반응은 초기에는 뭔가 활성화된다는 움직임에 대해서 반응은 좋았음. 교육을 통해서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후 프로그램 과잉으로 주민들이 지치고 있다고 봄. 또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보니 선택과 집중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체계에 대해서도 기존 조직과 새로운 리더십과의 관계를 세심하게 바라보지 못하면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기도 함. 5개동을 다 한꺼번에 묶어버린 것도 문제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센터가 억울하게 모든 책임을 떠안으면서 오해를 받는 측면도 있다고 봄

중간역량 강화는 고민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역량강화에만 치중하는 단순함의 문제. 축제의 경우도 주민(채성태 씨)가 제안하고 기획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자생적으로 가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하는 생각도 듦. 커뮤니티 가로 정비사업도 주민과 함께 디자인 작업을 김현숙 교수 주도로 했는데 결국 도로가 정비되면서 시청이나 인근 사무실의 차량들이 모두 여기에 주차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로 인해 ‘우리 동네는 주차장이 아니다’라는 주민들의 항의가 나타나고 현재 주차를 없애자는 주민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지역사회와의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것이라고 봄. 우리(전주시정연)는 지원센터가 떠나면 어떻게든 우리가 이어가야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들을 양성해서 이어나가려는 것이며 현재 채성태 씨가 주민들과 함께 노송동 주차문제를 주제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음. 즉 센터와의 연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한계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진행하려고 함

□ 박경난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지원팀장)

TB사업은 한 지역을 선정하여 이연숙 교수팀이 주거부분을 황희연 교수팀이 상가를 담당하는 것이었고 상가를 담당하는 팀에서 이미 전주에서 상가 쪽과 연계를 가진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음. 그러나 이후 창원과 전주 두 곳에 선정되면서 주거를 담당하기로 했던 이연숙 교수팀이 전주를, 황희연 교수팀이 창원을 담당하게 됨. 이에 따라 전주는 메인사업이 주거, 보조 사업이 상가이며 창원은 메인사업이 상가로 진행하게 된 것임

대상지 역시 서노송동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노송동, 인후동, 중앙동등 5개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전체 동이 아니라 동의 일부만 편입) 모든 동에 대한 마스터플랜 작업이 요구되었고 이에 설문조사 등의 과정을 갖게 됨. 그러나 주거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은 서노송동으로 집중하고 있음

2011년 4월 29일 설명회가 개최되지 상가지역에서 100여 명, 주거지역에서 2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과 관심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쇠락한 동네가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임. 한편으로는 재생사업이 선정된 후 약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내부 문제로 별다른 활동이 없자 주민들의 궁금증이 높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음

지원센터가 주민조직화를 시작한 것은 천년사랑천사축제부터였음. 센터가 축제를 본격적으로 기획한 이유는 이미 전주시에서 축제를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상태였고, 관주도의 동네 축제는 있으나 함께 하는 축제는 없다는 점, 5개동이 함께 축제를 기획하고 개최한다면 설명회 등 여러 가지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임. 즉 노송동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면 TB사업을 노송동만의 사업으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대상지 전체를 묶어내는 ‘천년사랑천년축제 조직위’를 꾸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음

이에 5개동의 주민자치센터, 통장 등을 찾아다니면서 조직화를 시작하여 2011년 7월에 축제조직위원회를 꾸리고 10월에 축제를 개최하게 됨. 축제이전에 주민들은 시키는 것만 하겠다는 소극성을 보였으나 축제를 계기로 함께 논의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주민들이 만들어내게 됨

2011년 10월 더불어주민학교 개최 이후 주거지구 동네협의회가 2012년 봄에 구성되기 시작함. 주민조직화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천사축제조직위원회로 주거지와 상업지를 포함해서 대상지인 5개동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이며 동네협의회는 주거지 주민만 참여하는 형태임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전략은 학습과 조직화, 활동이라는 세 가지 축이 함께 연계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임. 학습을 통해 동네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리더십들이 발굴되고 있음. 또한 어떠한 모임이던 간에 서로 연계하는 것이 기본 전략임. 예를 들면 텃밭반은 텃밭을 함께 할 사람들을 모아서 텃밭학교를 만들고, 텃밭을 조성하여 함께 가꾸는 것임. 마을공방반은 학습을 하면서 텃밭 가장자리의 화단을 만들고 있는 형태임. 즉 기본적인 학습을 함께 한 사람들을 동아리로 묶어내고 다시 단체로 등록하는 과정을 가질 계획인데 이에 의해 주)노송밥나무는 협동조합으로 등록했으며 천년사랑축제위원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 마을신문기자단이 만든 천사동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상태임

TB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명 ‘포도송이 전략’이라는 것인데 주민들 개개인들이 모여서 동아리를 만들고, 동아리들이 서로 연계해서 포도밭처럼 네트워크를 한다는 것임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임에도 노인 취업률이 매우 낮는데 이런 이유로 대한노인회에서 별도의 자원봉사조직을 만들었고 전주는 2012년에 시작했는데 노인자원봉사센터에서 15명이 모여 클럽을 조직하면 매달 2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음. TB센터는 위 사업을 노송동 경로당과 연계시키면서 올해 3월부터 9개월 동안 활동비를 지원받게 하고 있음

프로그램이 많다는 지적은 전주시와의 협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었기 때문인데 2012년도가 대표적으로 예산에 대한 전주시와의 협의과정이 4개월이나 걸리다보니 계획했던 사업들을 7월부터 몰아쳐서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임. 전주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TB사업에 연결시키려는 경향도 나타났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의 난항과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아직 행정과의 협력은 그렇게 원활한 편은 아님

주거지역에서의 주민조직화나 지역네트워크는 전북대 김현숙 교수님이 총괄하는 부분이어서 지역 팀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또한 현재 TB가 지역의 시민단체와 잘 엮여지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마스터플랜작업까지 해야 했고 여러 가지 페이퍼 작업이 필요했으나 시민단체의 경우 당장 함께 실행할 사업이 없었다는 점임

어떻든 지역 단체와 함께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이익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노인자원봉사센터와 연결망도 가져보는 등 끊임없이 무엇인가와 연결해보려는 시도는 하고 있음

동네협의회에 노송동 주민은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주민학교를 수료한 분들이 전 공무원이었던 허정주 씨가 회장으로 선출하였음

여러 모임에 주민들이 중복되어 참여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한편으로는 타당하지만 실제 여러 모임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그리 많지 않음. 동네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 모임에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확대되는 시스템임

그러나 현재 동네협의회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주민 대표성이 명확하지 않으나 동네협의회에서 어울모임을 만들고 어울모임을 이끌어가고 있고 또 동네협의회 몇 분들이 노송밥나무에 참여하는 형태임. 모든 모임은 열려있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어울모임은 동네협의회가 주축이며 TB센터 주거 팀과 전북대 팀이 지원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번정도 회의 및 동네청소, 식사 등의 정기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대략 5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동네협의회 활동은 아직 불안정한 구조라 학습은 열심히 한 분들이지만 지역 내에서의 인지도나 대표성이 부여받는 것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며 어울모임이나 주식회사 노송밥나무 역시 활성화되는 초기 과정임. 현재 협동조합 등의 활동에 주민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으며 주거지역 조직화는 전북대 김현숙 교수팀에서 총괄하는 부분으로 TB센터는 지원만 하는 구조임

동네협의회에서 보이듯이 기존 직능단체나 봉사단체의 리더십과 새롭게 형성된 리더십에 약간의 갈등은 있으나 이 역시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해야 함

도시재생사업의 원래 역할로 본다면 TB센터 팀들은 연구를 하는 것이었고 LH에 사업단이 사업을 진행하는 구도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센터가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임. 초기 센터사무국장이 5개월간 기본틀을 만들다가 사직하면서 여러 가지 조직적 혼란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서울에서 전주로 내려와서 일들을 추진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임

연세대 팀들은 연구조직이었으나 지역에서는 연구조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 연세대 팀들이 조직화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점 등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었음. 초기 1년은 혼란 상황이었음

도시재생을 지속시키는 힘은 외부 지원이 아니라 내부 동력이어야 한다고 생각됨.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센터 운영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구축된 동아리들이 센터를 거점으로 활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 아마도 전주시에서는 센터를 직접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데 동아리들이 거점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음

## 2) 영주시 영주동 관사골: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 ① 응답자특성

[표 부록 1-2] 영주동 응답자특성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52	100.0
성별	남자	21	40.4
	여자	31	59.6
연령별	40대	2	3.8
	50대	6	11.4
	60세이상	44	84.4
거주 기간별	6-10년	1	1.9
	11-15년	5	9.6
	16-20년	2	3.8
	21-25년	5	9.6
	26-30년	9	17.2
	31년 이상	30	57.5
직업별	가정주부	26	50.0
	직장인	13	25.0
	자영업자	6	11.5
	무직/기타	7	13.5
주택 유형별	단독주택(독채)	51	98.1
	아파트	1	1.9
	주상복합	49	94.2
주택소유 유형별	자가	3	5.8
	전/월세	5	9.6
주민단체 가입여부	있음	47	90.4
	없음	28	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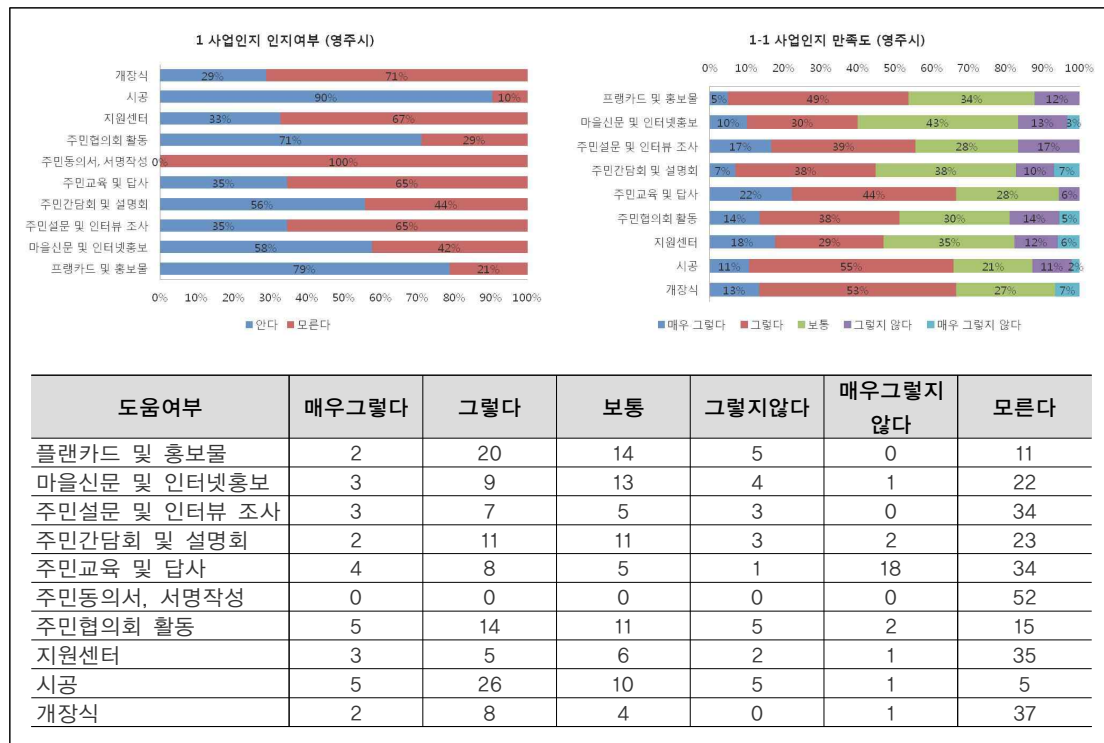
### ② 조사결과

#### □ 사업의 인지, 참여경험, 만족도

- 질문1. 영주시 관사골에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 귀하가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주민 참여활동들이 귀하가 관사골 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시공이 90%로 가장 높았으며 플랜카드 및 홍보물 79%, 주민 협의회 활동 71%, 마을신문 및 인터넷 홍보 58%,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56% 순임

관사골의 경우 주민들의 요구였던 도로가 확장되면서 시공에 대해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주민협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사업을 인지하는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부록 1-13] 사업인지 여부 및 만족도

사업인지에 대한 만족도는 독자적 분석보다 사업인지여부에 대한 응답율과의 관계성속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시공의 만족도는 66%로, 플랜카드 및 홍보물 54%, 주민협의회 활동 52%, 마을신문 및 인터넷 홍보 40%,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45%임

설문1번의 사업인지 여부와 사업 만족도의 순서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사업인지여부와 분리해서 분석해보면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주민교육 및 답사 66%, 개장식 66%, 시공 6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민설문 및 인터뷰조사, 플랜카드 및 홍보물 순으로 나타남

주민교육 및 답사는 워크숍 형태로 주민들의 의견을 기초로 한 관사골의 여러 가지 과제를 도출해내는 과정이었으며, 두 차례 진행된 답사는 참가한 주민들 서로간의 유대 형성 및 관사골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부담 없이 피력하는 자리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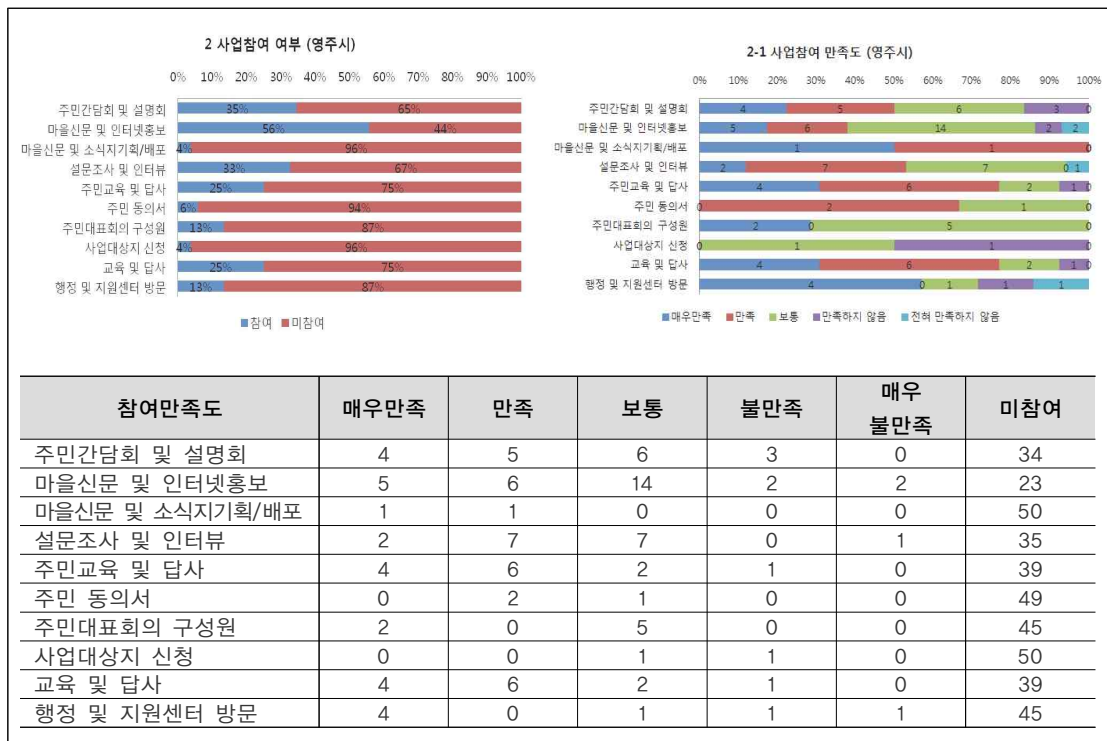
- 질문 1-1. 만족하시는 경우 귀하가 사업 인지방법에 대해 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 1-2. 불만족하시는 경우 귀하가 사업 인지방법에 대해 불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의견
사업 인지 방법	만족	·설명회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실하여 이해에 도움이 됨 ·홍보는 매우 열심히 했으며 플랜카드가 효과적이었음 ·길이 넓어지고 외부인들이 한참 많이 와서 관심이 높아짐
	불만족	·마을의 큰 사업이라는 것에 비해 홍보가 충분하지 않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 답답했음 ·홍보는 있었으나 시공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는 따로 설명해줘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불만이 높음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깐 홍보에 속았다는 생각도 듬

- 질문2. 귀하가 직접 참여했던 프로그램과 만족도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

사업 참여 여부는 마을신문 및 인터넷홍보 5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35%, 설문조사 및 인터뷰 33% 순임

직접 참여가 쉽지 않은 주민층들이기 때문에 매체를 통한 접근이 높은 것으로 보임



[그림 부록 1~14] 사업참여 여부 및 만족도

사업 참여 여부는 마을신문 및 인터넷홍보, 다음으로는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설문 조사 및 인터뷰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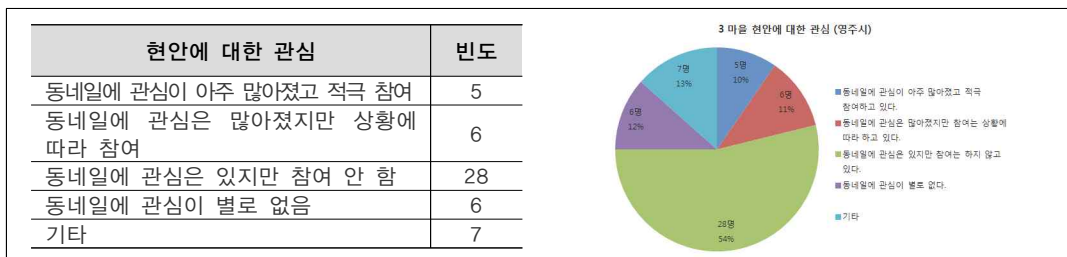
이와 연계한 만족도는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88%, 주민동의서 76%, 교육 및 답사 74%, 직접 주민들과 대면하여 사업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질문 2-1. 귀하가 사업 참여방법에 대해 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 2-2. 귀하가 사업 참여방법에 대해 불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여경험에 대한 불만족은 홍보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사업이 일방적으로 중앙행정 에 의해 중단되었기 때문임. 또한 시공역시 도로확장으로 인한 150여 세대의 이주로 인구가 오히려 줄었기 때문임

구분		의견
참여 경험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답사 등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음</li> <li>·마을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음</li> <li>·직접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해서 의견을 잘 들어줌</li> <li>·우리 동네 일이고 우리 동네가 좋아지니깐</li> <li>·우리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었음</li> </ul>
	불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보와 설명회 내용이 불충분하고 내용이 어려움</li> <li>·통보만 날아오고 통장들이 중심이어서 참여하는 주민 폭이 너무 좁고, 동네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음</li> <li>·가고 싶지만 불러주지 않아 의견을 내세울 기회가 많지 않음</li> <li>·이견들이 있을 때 강당에서의 설명회는 형식적이었음</li> <li>·이미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주민은 박수부대였음</li> <li>·사전타당성 조사 없이 청사진만 근사한 것이었음</li> <li>·관사골의 변화방향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음</li> <li>·시공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li> <li>·시공이 만족스럽지 못함</li> <li>·공사할 때 개인재산의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음</li> </ul>

- 질문3. 귀하는 관사골 사업을 계기로 동네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셨습니까?



[그림 부록 1-15] 마을 현안에 대한 관심



동네일에 관심은 있지만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54%로 이는 관사골 사업의 일방적 중단에 대한 주민들의 좌절감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질문 3-1. 3번항목에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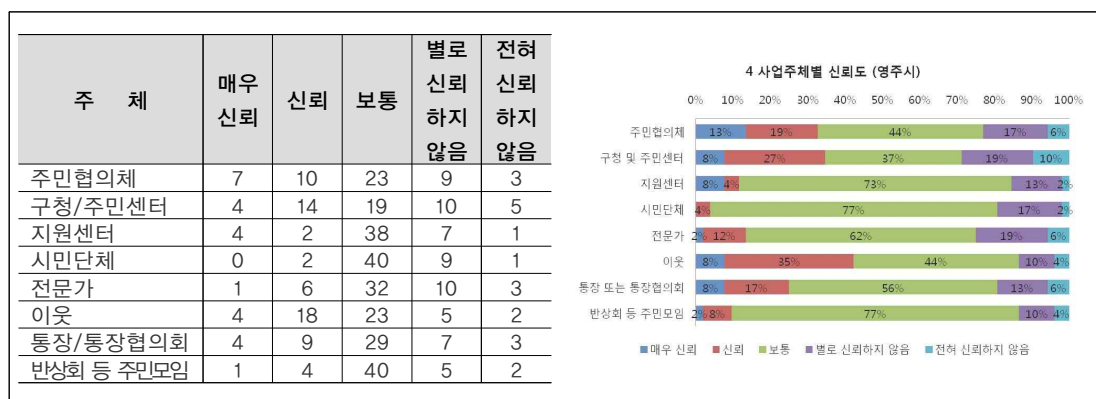
구분	의견
동네 현안에 대한 참여/ 미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네가 좋아지기 때문에</li> <li>·고향이고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li> <li>·원래부터 동네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었음</li> <li>·길이 넓어지면서 차가 많이 다녀 더 안 좋아짐</li> <li>·좋은 점만 있어서 적극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것임</li> <li>·젊은이들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참여할 생각 없음</li> <li>·주로 동네 어르신이 참여하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이 끼어들겠냐.</li> <li>·사업이 중단되었고 주민들만 떠나게 되었는데 참여하면 뭐하나</li> </ul>

#### □ 사업 추진주체에 대한 신뢰

- 질문 4. 귀하는 관사골 사업을 계기로 함께 진행했던 기관이나 사람에 대한 신뢰관계가 변화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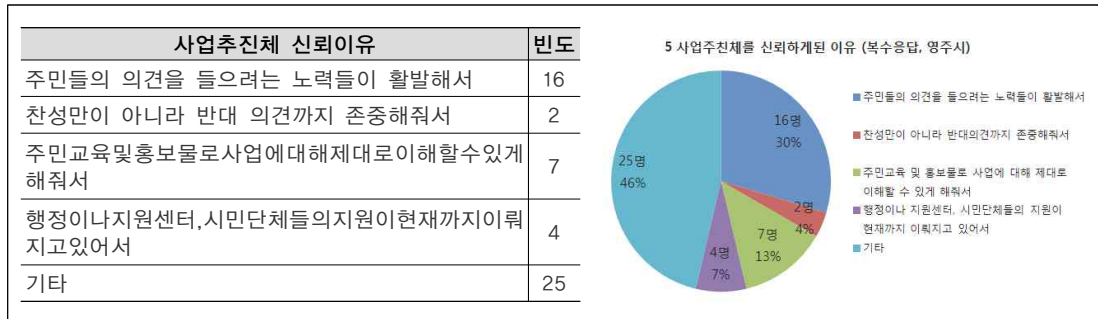
가장 높은 신뢰를 보인 사업추진 주체는 이웃으로 43%의 신뢰도를 보였으며 다음은 구청 및 주민센터 35%, 주민협의체 32%, 통장 25% 순임

구청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이유는 국토부와 LH에 의해 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사업을 지속시키려는 노력이 주민들에게 비쳐졌기 때문이며, 주민협의체는 현재 임원진이 새로 선출되었지만 사업이 불명확하여 관망자세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높은 편은 아님



[그림 부록 1-16] 사업주체별 신뢰도

- 질문 5. 귀하가 사업추진주체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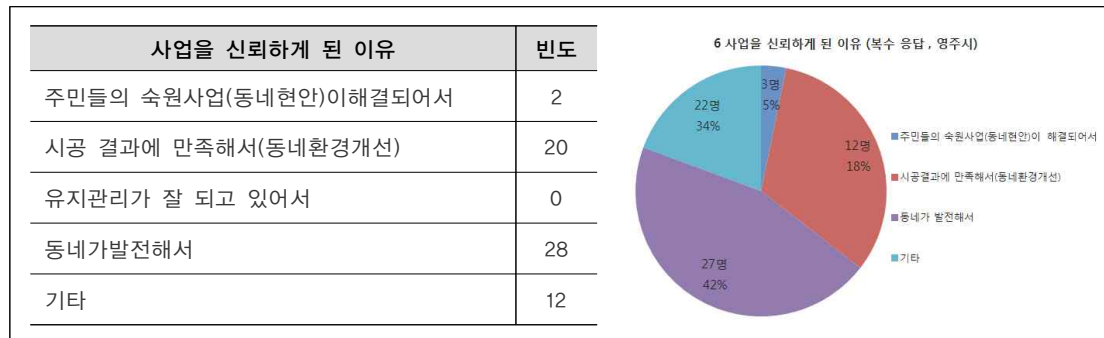


[그림 부록 1-17] 사업주체를 신뢰하게 된 이유

추진주체에 대한 신뢰에서는 기타가 46%이며, 다음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이 활발해서가 30%임

기타의견들은 ‘동네가 좋아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눈에 보였음’, ‘처음에는 신뢰했으나 지금은 사업이 중단되어 그렇지 않음’, ‘협의체는 힘이 없으며 사업주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음’, ‘시청을 위해서 모이는 것 같아 전혀 신뢰하지 못함’ 등임

- 질문 6. 귀하가 이 사업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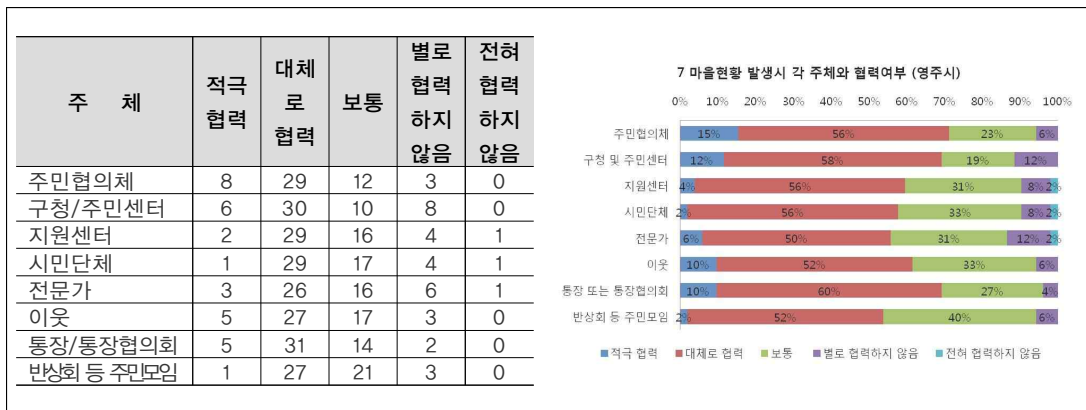
[그림 부록 1-18] 사업을 신뢰하게 된 이유

사업신뢰의 가장 높은 이유는 동네가 발전해서 45%, 시공결과에 만족해서 32%, 기타가 20%임

영주1동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나 신도시 개발로 인해 쇠락하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사골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었으며, 한편 도로확장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임

기타 의견으로는 ‘도로망이 좋아짐’,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음’, 길은 생겼지만 사람들이 다 떠나서 정이 없어지고 삭막함’ 등임

- 질문 7. 귀하는 동네에 여러 가지 현안이 생긴다면 어떤 기관이나 사람과 계속 협력하여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그림 부록 1-19] 마을현황 발생시 각 주체와 협력여부

현안에 대한 협력주체는 주민협의체가 71%로 가장 높고 구청 및 주민센터 70%, 통장 또는 통장협의회 70%, 이웃 62%임

- 질문 7-1. 적극 협력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 7-2. 협력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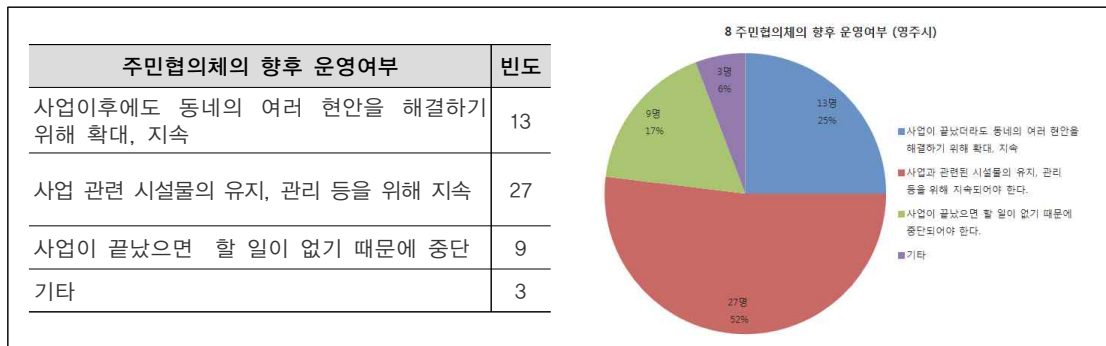
구분		의견
협력	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우리동네가 좋아진다니깐 ·사업이 지지부진하지만 주민대표인 협의체는 그대로 가야 함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함 ·당연히 동네일이니깐
	무	·초기에는 적극 협력했으나 사업이 중단되면서 참여해도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됨 ·행정의 고지식하고 틀에 박혀있는 방식에 질려버렸음 ·우리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음 ·처음에는 정말 잘했는데 지금은 행정의 나팔수같음 ·전문가는 이 동네를 잘 모름

## □ 사업추진의 주민주도 가능성

- 질문 8. 귀하는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협의체(또는 운영위원회)가 향후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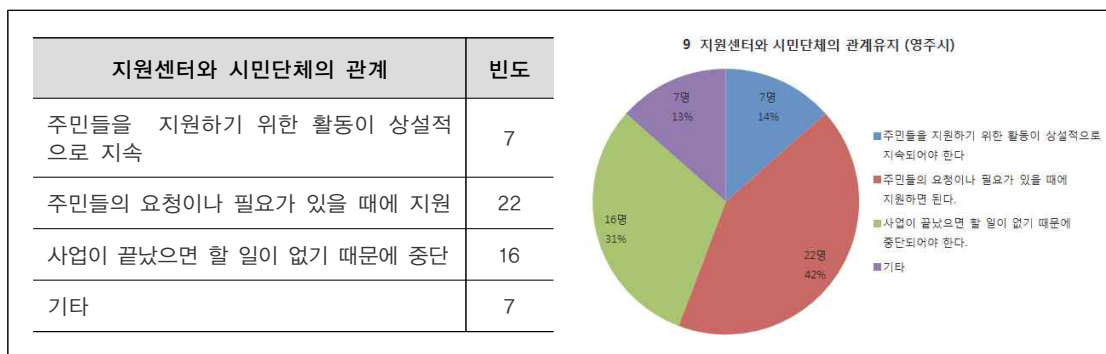
협의체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52%는 사업의 관리라는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5%는 확대 지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17%는 중단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현재 관사골의 현실에 비춰 협의체의 역할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림 부록 1-20] 사업을 신뢰하게 된 이유

- 질문 9. 귀하는 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나 시민단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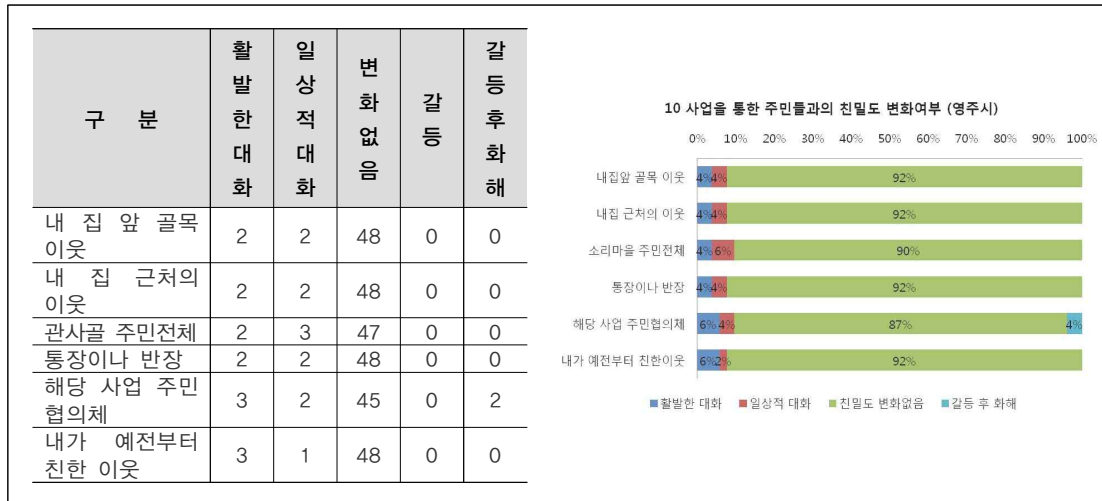


[그림 부록 1-21] 마을현황 발생시 각 주체와 협력여부

지원센터나 시민단체와의 관계유지는 필요시 지원이 42%이며 중단에 대한 응답이 31%임

## □ 사업관계망의 공간적 상관성

- 질문10. 귀하께서는 관사골 사업을 통해 주민들과 친밀도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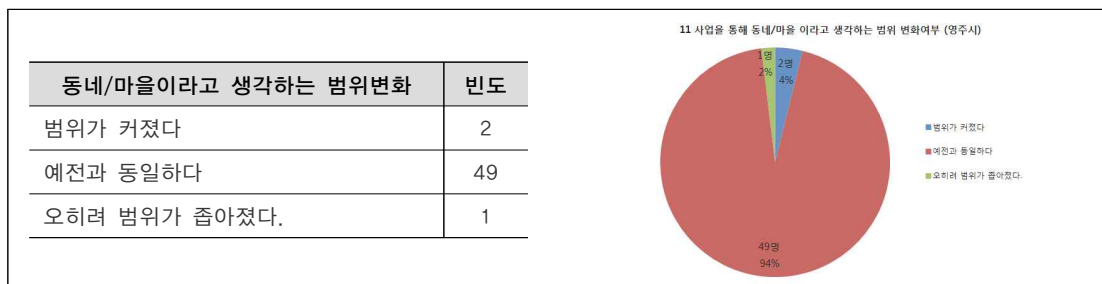


[그림 부록 1-22] 사업을 통한 주민들과의 친밀도 변화여부

친밀도의 변화가 없음이 90%를 넘나드는데 친밀도의 변화가 없다는 답변은 동네의 특성과 연계되어 있음

정주성이 높고 주민과의 일상적 관계가 활발한 관사골의 특성상 사업 역시 주민들의 친밀관계가 전제되었기에 크게 변화 나타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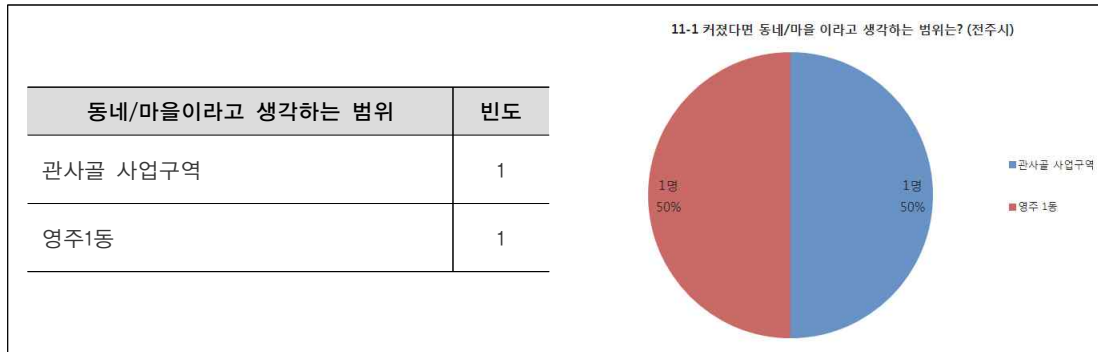
- 질문11. 귀하께서 이 사업을 통해 동네/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달라지셨습니까?



[그림 부록 1-23] 사업을 통해 동네/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변화

마을의 범위는 동일하다는 응답이 94%로 이는 사업과 관계없이 마을의 물리적 지형과 공간적 위치를 중심으로 파악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됨

- 질문11-1. 범위가 커졌다면 동네/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림 부록 1-24] 커졌다면 동네/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

### ③ FGI 조사 내용

#### □ 안병일 (전 주민협의회 회장)

관사골은 전국에서 가장 빨리 협의회도 구성하고 회칙도 만들면서 모범적으로 운영 해왔었음. 주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았고 활발한 대화도 있으면서 동네마당 준공식에는 마을행사로 잔치도 하면서 영주시나 전문가 역시 매우 의욕적이었음

그러나 정부에서 하기로 한 사업을 중단하면서 인구만 줄어버렸음. 현재 경로당을 짓고 있으나 원래의 계획과 달리 어쩔 수 없이 영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임. 거점사업 이 진행되면 경로당이 그 곳에 있을 예정이었고 동네마당도 그러했는데 위치가 모두 달라져버리면서 주민들이 함께 협의하고 합의한 내용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림

현재의 협의회는 진척되는 것이 없으니깐 의욕도 없고 결국 유명무실해버렸는데 이 로 인해 주민 간에도 반목만 생긴 결과를 낳게 되었음. 그동안 협의회에서 한 것이 무엇 이냐는 편견이 나오고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는 집을 철거해야 했는데 LH에서 아파트 건 립을 중단하면서 인구만 줄어들지 않았느냐는 불만도 굉장히 높음. 대대로 살아왔던 마을 이 더 나빠지고 있음

이것은 국토부의 문제인데 협의회는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 애를 많이 썼 음. 국토부 장관이랑 국회의원, LH이사도 모셔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설명회도 했지만 결 국 사람이 바뀌면서 현재 정부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상태임

협의회 회장을 그만둔 이유는 오래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5년 동안 했는데도 현재 추진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사람도 바꿔보자라는 생각에 젊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꾼 것임. 현재의 임원진들 역시 처음부터 함께 해온 협의회 회원들이었고 이분들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열어나갔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임

앞으로 절대로 이런 사업은 안할 것임. 주민들도 처음에는 90%가 사업이 되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설득을 해서 시작한 것인데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음

#### □ 현 주민협의회 회장

초기에는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전 회장이 못하신다고 하고 다들 나에게 맡으라고 해서 하게 된 것인데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음

지원팀들의 플랜카드 설치나 홍보물은 우리 동네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주민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사업을 전달하는 방식은 사업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때에는 설명과 더불어 유인물을 함께 나눠줘야 잊어버려도 다시 환기하게 됨. 그러나 오후에 모여서 하는 교육은 오래 앉아있는 것이 힘든 노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프로그램임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거점사업이 중단된 것임. 초기에는 LH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다들 좋아했는데 사실 이 동네 주민들의 나이가 7-80대인 노인들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노인들이 들어가 살기는 힘든 조건임. 그럼에도 동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낸 것임

현재 거점지구 내 건축행위 제한으로 개보수가 불가능한데 이로 인해 거점지역 지정을 철회하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으며, 집중 호우로 인한 건물 축대 붕괴위험에 대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데 영주시에서도 매우 난감한 상황임

사업이 중단되어있으니 주민협의회가 모일 일도 없고 동네 사람 보기도 민망하고,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뭐하느냐라는 질타도 있고, 그럼에도 우리가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이유로 협의회 활동은 보류시키고 있음. 국회의원 선거가 10월에 있는데 이때쯤에는 뭔가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월이 지나면서는 어떤 식으로라도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도로를 개설하고 환지를 조성하면서 150가구가 외부로 떠난 상태인데 환지조성한 곳에는 한두 집 정도만 집을 짓고 있을 뿐임.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때 다들 떠나고 지금은 노인들만 남은 상태이며 동네가 아주 썰렁해졌음

관사골 마을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을 만들 계획도 잘 안되었고 노인정 준공식도 어버이날 하기로 했는데 자꾸 미뤄지면서 말들도 많았고, 겨우 준공식을 하면서 걱정은 덜었으나 주민들의 질문이나 의견에 대해 지금 여러 가지로 설득하면서 기다려보자고 하고 있음

오히려 이렇게 사업이 중단되면서 동네 현안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되었음. 빈집들이 많아진 것인데 더 관심을 가져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보다는 이 문제는 국회의원 등이 나서서 해결해줘야 할 것으로 보임

#### □ 김봉환 (영주시 이장통장 연합회장 / 현 협의회 회원)

이 동네는 대대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 이미 다양한 친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동네임. 영주시 도시디자인과의 설명회, 서울 팀과 전문가들의 정기적 워크숍식 토의, 방향에 대한 합의가 만들어지면서 다들 찬성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협의회에 참여하게 되었음. 당시 통장으로 참여한 것임

주민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내고 불합리한 이야기를 조정하기도 했으며 연탄 배달도 힘든 좁은 골목길을 바꾸자는 설득도 협의회역의 역할이었음. 개인적으로는 반신반의했는데 관사골에 사는 주민들 대부분은 어려운 형편이어서 개발이 된다고 해도 주민들의 60%는 별 영향이 없다고 보았음. 개인소유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4~50%정도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가소유 땅에 20평 정도의 집을 짓고 살면서 이리저리 편법으로 집을 텃대왔는데 토지 말고 가옥에 대한 보상을 100% 해주더라도 다른 동네에 가서 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임

도로개설도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너무 넓히면서 자동차가 많이 늘어났고 환지개발로 인해 140여 가구가 다른 동네로 이사하면서 동네가 썰렁해져서 어울려 사는 맛이 없어짐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하면 동네가 발전해서 좋다는 측면도 있지만 동네 분위기가 달려져서 나쁜 측면도 존재함. 더구나 사업이 중단되면서 문제들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주민협의회는 여러 측면에서 행정의 방패역할도, 때로는 교량역할도 했지만 결국 토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좋은 여건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음



사업이 미뤄지면서 장마에 비가 새도 집수리도 하지 못하고 축대가 위험한데도 축대 공사를 하기도, 안하기도 힘든 상태인데 뭔가 빨리 결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동네만 나빠진 결과가 되어버릴 것임

주민들이 협의회에 왜 사업을 안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설명을 해주면 국토부와 한편이냐는 이야기도 하고,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은 불만이 여전히 높음

현재 협의회는 등록되어 있지만 만일 거점사업이 다시 진행되고 사업이 마무리된다면 협의회보다 마을만들기 차원으로 구성이 변화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동네의 발전과 더불어 화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이어나가야 할 것임

#### □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관사골은 수익성이 없어 재개발 등 다른 종류의 사업시행 여건 불리하며 주거환경의 노후로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 요구되었던 곳임. 도로나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였는데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지체로 실망감과 소외감도 있었던 곳임

주민들은 고령자, 가옥소유자, 수급권자를 포함하는 저소득층 비중이 높으며 통장들의 모임인 통친회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음.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주시의 단체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사모)’와 연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사모는 오랜 자원봉사단체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음

디자인팀은 총괄MP와 두 명의 지원MP, 인토(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담당), 한국도시연구소(사회경제적지원팀), 대한주택공사(예상공동시행자), 영주시청으로 구성되었으며 2주 1회 정기적 회의를 통해 관련분야 제도 및 현황 검토와 새로운 대안 모색, 필요시 관련제도 수정 제안 등의 역할을 하였음. 중반부터는 주민협의체 대표도 회의에 참석하여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협의회에서 인지하게 하였음

주민협의회는 영주시 주도와 지원으로 2008년 12월말 구성했는데 통장9명과 통장이 한명씩 추천한 9명, 환지구역 입주 예정자와 새마을 1인 등이 참여하였고 2009년부터 1월부터 매달 정기모임을 진행하였음

협의회의 초기 활동을 보면 주민참여와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은 사회경제적 지원팀에서 기획되었고, 기획한 내용에 대해 주민협의회에서 검토하고 결정하는 방식이었음

4월경에 일부 주민들이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대표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주민협의회는 주민간의 소통 부족을 반성하고 게시판 설치, 소식지 제작 등 활동 공개와 공식화를 약속하게 되면서 7월 23일 주민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회칙제정과 회원보강 등 조직정비에 들어감. 이는 협의회의 주민소통 및 민주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이후 회의 진행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결정 대부분을 주민들이 주도하기 시작함. 이에 따라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줄어들고 동시에 협의회가 계획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게 됨

2009년 말이 되면서 주민협의회의 논의 영역이 확대되기 시작하는데 즉 ‘목적사업’을 넘어서는,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지역일자리 제공 및 주거안정 도모방안 등 장기적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전망으로 넓혀지기 시작함. 이당시 협의회는 자율적 모임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한국도시연구소는 주민들을 오래 지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

6월에 진행한 주민협의회 사무실 개소는 주민협의회에서 사무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영주시에서 컨테이너사무실을 지원하면서 사무실 설치 장소 및 운영에 대한 협의회의 논의 속에서 현판식을 하기로 합의됨. 특히 20여 년간 마을잔치가 없었던 관사골에서 오랜만에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동네잔치를 개최한 것인데 주민 350여명과 영주시장 등이 참석하였고 이사모에서 음향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추후 주민들이 이사모와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 사무실 개소식을 통해 주민협의회가 일상적으로 주민들을 만나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갖게 됨

2009년 1월초에 개최한 1차 주민설명회는 거점확산형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소개 및 관사골 타사업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는데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기존 계획 도로개설의 향후 방향과 현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의 완료시점, 동네 곳곳에 소재한 공가 등 주거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조치 등으로 나타남

2009년 7월에 개최한 2차 주민설명회는 세 차례 마을학교에서 표출된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계획초안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공유하는 자리였는데 예산 제약으로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두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이 이루어졌음.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참여하면 뭔가 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예산 제약으로 가능한 것이 별로 없다는 점에 주민참여에 대해 실망스러움 표시하기도 함

선진사례 답사는 사전 국내외 15개 선진사례 소개를 하면서 부산 물만골과 반송동으로 주민들은 관사골의 여건에 대한 긍정과 사업에 대한 의욕이 제시되는 자리였음

2차 선진사례 답사는 대구 삼덕동이었는데 관심이 저조했으나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무엇인가를 했다는 경험과 주민들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계기로 자리매김함. 답사는 반드시 사전학습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례지의 사업이나 주민참여에 대해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민간의 관계망 형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피력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함

마을만들기 학교는 모두 4차례 진행하기로 했으나 4차 마을학교 개최보다 주민설명회 개최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림. 이는 주민들이 마을학교를 통해 제시한 내용들이 계획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지 못하면 참여에 대해 회의적일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었기 때문인데 마을학교 성과는 2차 주민설명회와 연계되었음

사회경제적 지원팀의 별도 활동은 지역사회 조직과의 협력으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적인 자원을 찾는 이유는 사회경제적 지원팀 활동이 한정된 기간에 끝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지속적 성장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주요 성과로는 주민들이 가진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여러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상호 이해가 형성되었다는 점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역량을 제공할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임

한계로는 단기사업이라는 시간적 제약으로 주민지원사업이 용역의 일부로 자리매김하면서 성과 역시 단기적인 것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 주민협의회에서 제기된 사업 제안이나 ‘마을커뮤니티센터’ 등은 예산의 문제로 집행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계획과 피드백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주민 협의를 통해서 확정된 요구안이 수용 불가능했던 이유는 사업의 성격이나 예산에 대해 초기 명확히 하지 못했기 때문임

#### □ 박홍복, 안창주, 조준배 (영주시청 전·현 담당공무원)

영주시 영주동은 영주1번지였으나 노후화된 원도심으로 기반시설의 부재, 주민들의 고령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음

2003년부터 관사골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되어 2-3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었고 2007년 공모를 통한 거점확산형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선정되었음. 거점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매우 활성화되면서 2014년도에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았으

며, 관사골과 연계해서 관사를 박물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국토교통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10억 원 지원, 안전행정부의 명품희망마을 선정 등 여러 사업들이 결합되면서 노후 주거지인 관사골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도로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가 주요내용인데 쓰레기 차량이라도 다니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도로개설을 진행하게 되었음. 3개의 도로를 요구했지만 폭원을 6M로 하더라도 대부분의 집들이 철거되는 상황이 벌어지기에 주민들을 설득했고 6M로 결정했으나 도위원회에서 10M로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 부분에 대해 설득하여 8M에 중간은 6M로 결정했는데 그래서 도로 폭원이 일정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

2007년 거점사업이 선정되면서 주민들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계획들이 수립되었는데 주민들은 공원과 공연장에 대해 제안했기 때문에 기존의 공원계획은 폐기하고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공원설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게 됨. 거점지역에는 LH에서 37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일방적으로 중단되면서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370세대 중 임대아파트가 100세대로 기존 주민들이 이곳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사업이 중단되면서 도로확장과 환지조성으로 150세대만 마을에서 나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이로 인해 이웃 관계망의 해체와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벌어짐

관사를 박물관으로 만드는 사업은 관사에 사시는 노부부가 죽을 때 까지 여기서 살겠다고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임. 거점사업의 중단으로 경로당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원래의 자리가 아닌 따로 대지를 만들어서 현재 시공을 하는 중임. 이처럼 거점사업은 중앙부처에 의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임

협의체 역시 뭔가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데, 한편으로는 초기 도시연구소에서 지원오면서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고 교육하는 과정을 가졌는데 이로 인해 젊은 층들의 참여도 높았음. 그러나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서 중단되어 버렸는데 즉 외부의 지원이 끊기면 내부적으로 가라앉아버린다는 것이고 큰 사업은 주민들끼리 서로 만나서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음

그래서 지금 영주는 후생시장이 있는 지역이 국토부의 '2012년 U-시범도시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되면서 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음. 지속적인 리더양성교육과 내부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영주시 주민 네트워크도 구상중임. 이러한 사업이 지속된다면 내부적으로 외부의 지원을 받아내고 자신의 역량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임

### 3)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 ① 응답자특성

[표 부록 1-3] 행궁동 응답자특성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37	100.0
성별	남자	18	35.3
	여자	33	64.7
연령별	40대	9	18.8
	50대	12	25
	60세 이상	7	14.6
거주 기간별	6-10년	10	20.8
	11-15년	10	20.8
	16-20년	14	27.5
	21-25년	7	13.7
	26-30년	9	17.6
	31년 이상	7	13.7
직업별	가정주부	14	27.5
	직장인	22	43.1
	자영업자	14	27.5
	무직/기타	6	11.8
주택 유형별	단독주택(독채)	9	17.6
	아파트	22	43.1
	주상복합	19	37.3
주택소유 유형별	자가	7	13.7
	전/월세	3	5.9
주민단체 가입여부	있음	33	64.7
	없음	18	35.3

#### ② 조사결과

##### 가. 생태교통페스티벌 사업에 관한 조사결과

##### □ 사업의 인지, 참여경험, 만족도

- 질문1. 수원시 행궁동에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 귀하가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주민 참여활동들이 귀하가 행궁동 생태교통페스티벌 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림 부록 1-25] 사업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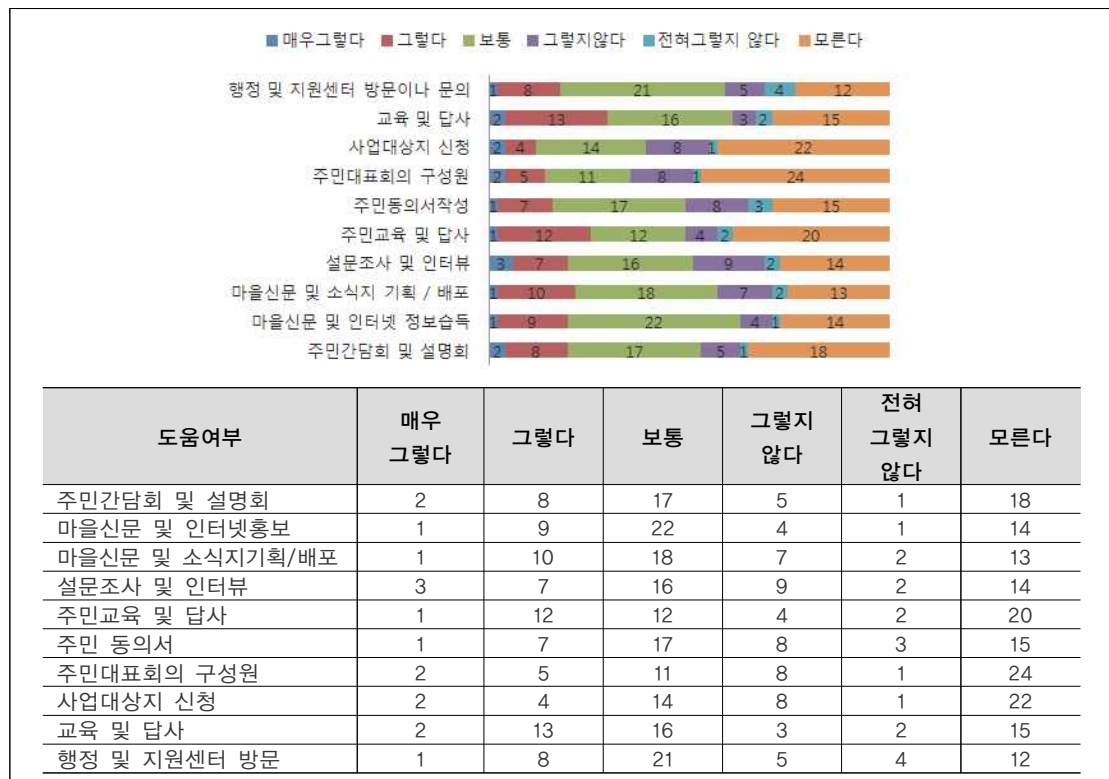
생태교통페스티벌의 개막식을 사실상 시설공사의 마무리격인 개장식으로 인지하고 선택한 답변자가 있는데 반에, 완공식(혹은 준공식)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행사는 없었기에 ‘모른다’를 선택한 답변자도 상당 수 있음

2012년 8월 20일에서 9월 30일까지 \*마을조사원이 생태교통 페스티벌 대상지역 주민을 방문하여 ‘생태교통 시범마을 인식 및 가구통행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른다’를 답변한 경우는 행궁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사업대상지의 주민이 아닌 응답자였음

- 질문 1-1. 만족하시는 경우 귀하가 사업 인지방법에 대해 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 1-2. 불만족하시는 경우 귀하가 사업 인지방법에 대해 불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의견
사업 인지 방법	만족	·마을전체가 깨끗해 저서 / 거리가 깨끗해 져고 쾌적해졌다 / 낙후된 동네 많이 좋아졌다 / 동네가 깨끗하고 정화되었음 / 동네가 너무 깨끗해지고 좋다 / 계속 행사를 지속하거나 주말만 해도 좋을 듯 / 동네에서 무언가 진행되고 새로워져서 / 각종문화행사·동네정비·생태교통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 흠족하지는 않지만 취지나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싶다 / 차가 다니지 않아서 좋다 ·사람들과 만나고 서로 관심이 많아졌다 ·홍보물을 보고 가까이서 진행상황을 늘 볼 수 있었다", "홍보를 잘하는 것 같다
	불만족	·설명회나 간담회를 한다는 것을 당일 날 아는 경우가 많다 / 제대로 된 내용전달 안됨. 제한적 정보공개. 소수의 주민들(상가 중심)만 대상 / 홍보물이나 기타 다른 방식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 홍보가 늦어졌음. 홍보용 활동이 거의 없었음 / 주민참여가 없는 사업진행(형식적 참여틀만 있었다) / 주민들과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음 / 직장인들을 위한 설명회가 없었음 / 정비사업 기간 및 행위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정보를 주민입장에서 쉽게 찾을 수 없다 / 깊이 알 수 없다 / 형식적인 홍보, 조사, 답사, 설명회 진행 ·주민들 간의 이견차이로 서먹해지는 경향이 있다 ·교통 불편, 공사 시끄러움, 소음, 먼지 / 관리감독허술 /시공 시 관리감독 허술에 따른 불편사항 다수 발생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서 반대의견을 냈음 / 화서문로가 양방향도로로 변경된 것, 일방통행이 좋다 ·차를 이용 못하니까 조금 불편하다 / 차량불편, 운영자들 편한대로 운영하는 듯

- 질문2. 귀하가 직접 참여했던 프로그램과 만족도에 대해 평가해주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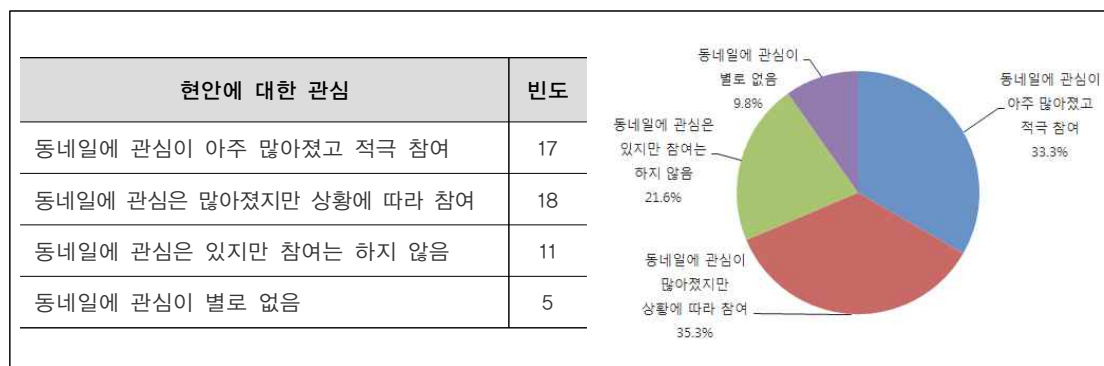
[그림 부록 1-26] 프로그램참여 만족도

실제 행궁동(사업대상지)에서 진행되었던 주민교육 및 답사의 내용은 근린재생사업과 연관성이 부족하다. 1년 이내에 동네에서 진행되었던 교육과 답사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등에 관한 내용이며, 커뮤니티 댄스·요가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 경험들이 답변에 반영되었다고 추측 할 수 있음

만족하는 이유를 묻는 서술형 질문과 FGI에 따르면,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보다는 전체적 사업의 취지에 공감 하거나 시설공사 끝난 이후의 가로거리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응답에 반영되었음

만족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서술형 질문과 FGI에 따르면, 공사기간 중 생기는 불편과 정보를 전달하는 태도, 의사결정(결론)에 대한 불만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사업 초기의 의사결정과 변경에 따른 불만으로 인해, 이후 사업기간 내내 비판적인 태도로 유지했던 응답자가 많았음

- 질문3. 귀하는 행궁동 생태교통페스티벌사업을 계기로 동네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셨습니까?



[그림 부록 1-27] 마을 현안에 대한 관심

참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가 있지만, 다수의 응답자(90.2%)가 생태교통페스티벌 사업을 계기로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 □ 사업 추진주체에 대한 신뢰

- 질문 4. 귀하는 수원시 생태교통페스티벌 사업을 계기로 함께 진행했던 기관이나 사람에 대한 신뢰관계가 변화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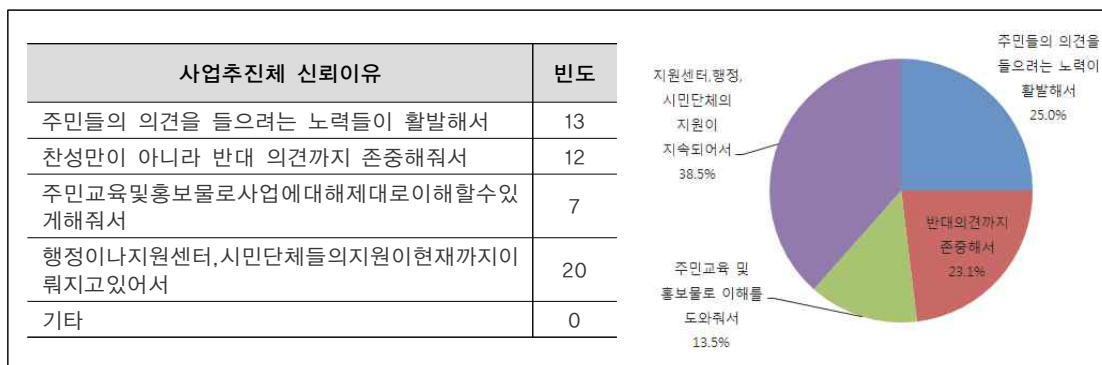


[그림 부록 1-28] 사업주체별 신뢰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근린재생사업(시설공사)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의 기회가 없었으며, 다만 생태교통페스티벌 개막이전의 CarFreeDay(차 없는 거리) 행사 등에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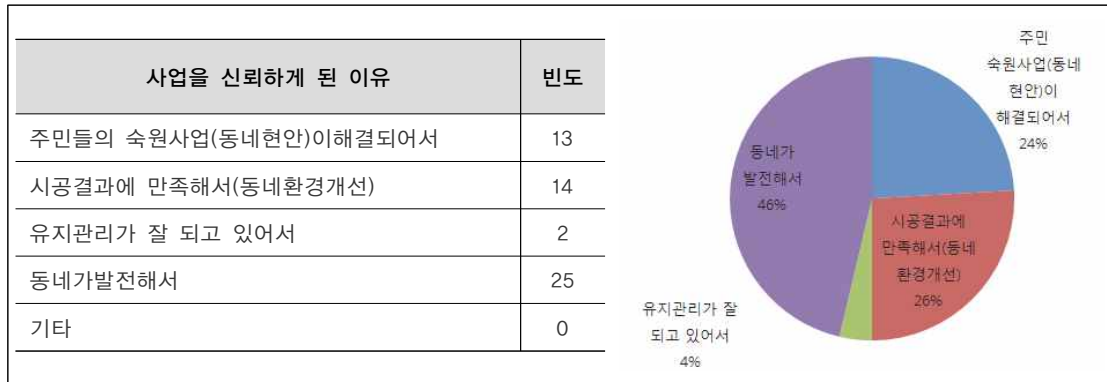
더욱이 사회적기업가, 문화예술 작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없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역할이 적었기 때문에 설문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라고 보기 어려움

- 질문 5. 귀하가 사업추진주체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그림 부록 1-29] 사업주체를 신뢰하게 된 이유

- 질문 6. 귀하가 이 사업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그림 부록 1-30] 사업을 신뢰하게 된 이유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시공결과에 대한 만족하다는 응답의 구체적 내용으로, 보행자 2명이 나란히 걸을 수 없이 좁았던 화서문로의 확장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음

- 질문 7. 귀하는 동네에 여러 가지 현안이 생긴다면 어떤 기관이나 사람과 계속 협력하여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상대적으로 개별이웃에 대한 신뢰가 높고 협조적이기는 하지만, 주민모임(조직)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기관에 비해 협력적 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림 부록 1-31] 마을현황 발생 시 각 주체와 협력여부

- 질문 7-1. 적극 협력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 7-2. 협력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의견
협력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와주겠다는 생각에 공감에 가서 / 이웃과 유대관계 / 주민들 간의 모임이나 협력은 매우 좋음 / 내가 살고 있는 동네니까 / 주민과의 소통이 잘 됨</li> <li>·우리 동네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li> <li>·동네발전을 위해 / 동네가 좋아지라고 / 마을 발전을 위해 / 통을 발전하기 위해서 / 협력해야만 동네가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앞으로도 유지하려면 협력해야만 발전이 있겠음 /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li> <li>·조용해졌다 / 생활환경이 많이 좋아졌다</li> <li>·홍보가 잘 안되어서</li> <li>·통장님이 너무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li> <li>·좋은 주민이 되고자 / 마을을 위한일이 나를 위한 일이므로 / 당연하므로</li> <li>·동네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선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중요함. 전문가들과의 협업 또한 필요함</li> </ul>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로 욕심만 가득 / 마음이 맞지 않아서 협조하고 싶지 않음</li> <li>·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서 / 나의 요구를 묵살당했기 때문 /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들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에</li> <li>·행정에 대한 큰 믿음이 가지 않음(조직,기관등)</li> <li>·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 기본 제공되는 정보가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큼</li> <li>·주민이 주체적으로 하는 경우 협력할 의지가 있음</li> <li>·사후에도 경우에 따라 협의</li> <li>·이번 생태교통 진행을 경험으로 협력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음</li> </ul>

#### □ 사업추진의 주민주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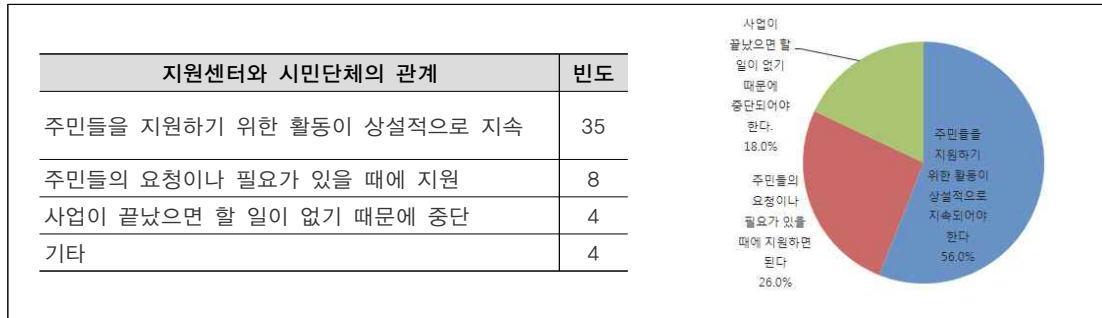
- 질문 8. 귀하는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협의체(또는 운영위원회)가 향후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지의 기타의견과 FGI(집단면접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구성원을 바꾸어서 동네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됨



[그림 부록 1-32] 사업을 신뢰하게 된 이유

- 질문 9. 귀하는 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나 시민단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부록 1-33] 마을현황 발생 시 각 주체와 협력여부

#### □ 사업관계망의 공간적 상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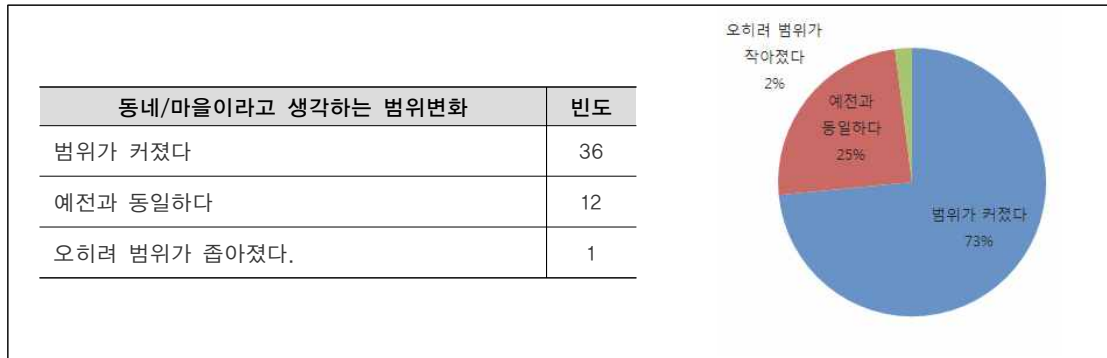
- 질문10. 귀하께서는 행궁동 사업을 통해 주민들과 친밀도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FGI를 통해, 예전보다 내 집 앞(내 집 근처)의 이웃들과 대화가 더 활발해 질 수 있었던 이유를 묻자, 대부분 불평불만을 공유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일부의 응답자 중에는 담벼락의 페인트칠과 텃밭 조성을 함께 해서라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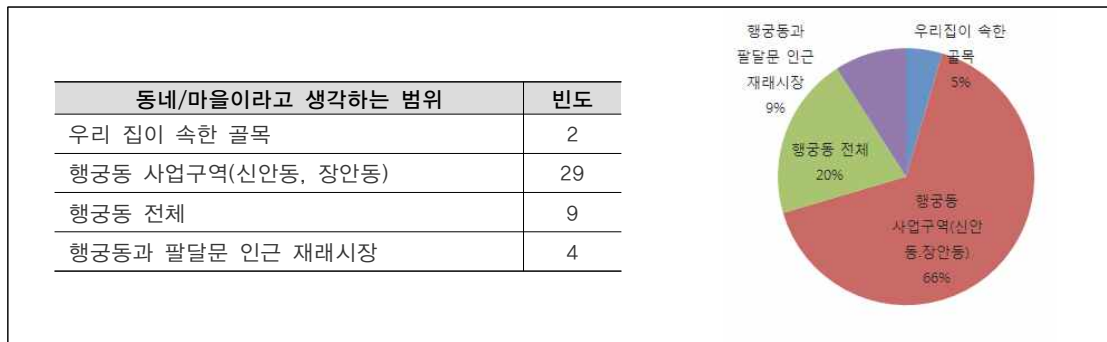


[그림 부록 1-34] 사업을 통한 주민들과의 친밀도 변화여부

- 질문11. 귀하께서 이 사업을 통해 동네/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달라지셨습니까?



[그림 부록 1-35] 사업을 통해 동네/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변화



[그림 부록 1-36] 커졌다면 동네/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

행정구역상 행궁동은 12개의 법정동(주소지)이 하나로 묶여 있는 형태이다. 생태교통페스티벌사업 이전의 주민들은 사업대상지인 신평동과 장안동, 각각의 법정동의 자기네 마을로 인식하다가, 생태교통페스티벌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마을에 대한 인식 범위가 넓어 졌음을 알 수 있음

### ③ FGI 조사 결과

#### □ 이구림 (행궁동주민자치위원, 행궁길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이 바뀌었으니, 나처럼 언제부터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지 기억도 안날만큼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 그만두어야 될 때가 되었음. (행궁동)동장은 바뀌어 봤자 주민자치위원은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 문제임

(행궁동內)남창동이나 신평동은 이정도면 행정이 할 만큼 해줬다고 생각함. 이제부터는 새로운 주민모임이 나서서 또 다른 모색을 해야 할 시기임

처음 행궁길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할 적에는 그저 목적이라고 부르기엔 서운한, 절박함이 있었다. 장사가 안 되니 정든 고향을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말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음. 그러니 첫해의 시작이 어려웠지 이후에는 절박함 때문에 주민참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지금이야 주민들이 손만 들면 몇 억씩 들어서 거리를 바꿔 주지 않나. 그러니 자연스런 참여 보다는 갈등이 많은 것임

남참동에서 얼마 되지도 않은 돈으로 작은 성공을 보여줬으니 다른 동네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번졌지. 마을르네상스센터가 생겼다고 갑자기 주민모임이 활발해 졌을 리 없음

(행궁동內) 마을 곳곳에 마을만들기 씨를 뿌리는 것도 미술협회 회장이 가든 수원 KYC 대표를 내세워도 안 되는 설득이 이웃인 우리니깐 앉아서 말이라도 들어 주었지. 주민들은 대개 오랫동안같이 겪어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겐 색안경 끼고 보는 것임

생태교통페스티벌 계획이 세워졌을 때, 분명히 집 가진 사람들에게겐 유리하겠지만 원룸 세입자들은 반대할 거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었음

생태교통페스티벌주민추진단도 그만하면 되었음. 이제 해체하고 새로운 일은 다른 주민들에게 맡겨야 한다. 그래야 일을 추진해오면서 생긴 갈등도 치유되고 권력화 되지 않음

#### □ 고경아 (생태교통마을 사무국장)

행정은 과정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 결과만 좋으면 그냥 좋은 거라고 평가함

그래서 주민을 만나는 것보다 설계를 더 신경 씬. 주민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설계에 반영하기 보다는 예산에 맞추어 그럴듯하다고 여기는 설계를 보여주고 고르게 하는 정도로. 뭔가 순서가 바뀐 듯함

(주민)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님. 그러니 다른 주민들이(이웃들이) 어떤 의견을 표현 했는지도 전체 주민에게 쉽게 공유될 수 있어야 함

꼭 돈이 있어야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사업 초기에 예산이 없다고 주민들과의 모임에 나서지 않는 행정은 정말 (주민참여)아무것도 안하고 그냥저냥 해를 넘겼음. 그러니 주민들 입장에서 몇 달 전에 말만 툭 던져 놓았던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일이, 제법 시간이 지나서 다시 불쑥 등장해서 주민의 참여 없이 일이 추진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함을 느꼈을 것임

시민사회단체나 연구자들은 어차피 하는 것도 없었고, 마을주민들의 삶에 공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됨. 그런 면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훨씬 낫다. 애정 없는 비판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안 됨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공무원들 말이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함. “그냥 이대로 죽을란다.”라고 붙여진 현수막처럼 그 말의 진위야 다르겠지만 이미 입장이 달리한 주민들에게 부풀리기 좋았을 거임. 공감의 안 되니 말도 적당히 할 줄 모르는 것임

이 동네 주민을 위한 서비스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은 구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역할 분담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음

#### □ 행궁동 문화슈퍼 FGI

간판 정비가 개성 없이, 마을의 특색이 반영되지 않았음

생태적 생활환경이 돋보이도록 시공되지 않았음. 시공과정에서 여러 시공업체끼리 의사소통이 안 되는지, 불필요한 과정이 반복된 것 같음

공사 중에 사건, 사고가 많아서 과정을 따져 보면 생태라고 말할 수 없음. 취지와 목적에 동의 하였지만, 과정이 너무 못마땅했음

임대료와 집값이 오르는 했지만, 부르는 가격만 올랐지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풍선누르기 게임마냥 (이웃동네)신평.장안동 지역에 주차한 차량이 많아졌고, 이동량도 많아서 불편하고 위험이 더해 졌음

연구자나 행정의 도심형 혹은 잘 정비된 마을로 변화해야 한다는 시각은 옳지 않음. 지금 행궁동 모습에 장점 때문에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인데 그것을 도시화 덜 되었다 해서 변해야 한다고 말하면 안 됨. 행궁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매력을 더욱 잘 가꾸는 노력이면 좋겠음

안락한 생활과 (관광지)상가의 활성화는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생각함.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을 구분계획하고 정비하여야 함

집수리에 지원해주기는 하였지만, 12년 이상 된 집과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 탓으로 구조 변경 총비용(자부담)은 늘어난 셈임. 그래서 신청자가 드물었던 거임

더 많은 주민 만남과 설명이 필요하며, 생활시간에 맞추어 만남이 이루어져야 했음. 이웃들과 서로서로 불만을 토로하면서 주민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음

#### □ 이근호 (마을르네상스센터 센터장)

르네상스센터 직원 1인당 5~8개 동(2013년의 경우 산술적으로 개인당 30여 개 추진 주체)을 담당하는 시스템인데 주민과의 소통에 있어 불가능한 구조임.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 혹은 마을에 기반을 둔 중간조직의 고민도 필요함

코디네이터(지원기관)가 주민중심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필요함. 일반적 이론교육보다 맞춤형 주민교육이 더 중요하고, 연속지원사업, 지원받지 못한 사업 등 추진주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중단된 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주민들과) 의사소통 되어야 함

센터의 역할 가운데 주민추진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도 강화해야 함. 여러 제안, 불평불만들이 겹쳐져서 복잡해 질 수도 있지만, 좀 더 너른 범위에서 의사소통될 수 있어야 유연한 의사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행궁동 차원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연결고리가 있을 텐데 (행궁동 안에서) 남창동, 신안동, 북수동이 각각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은) 주민공모사업의 규모를 제한하게 될 것임

마을만들기활동이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보편적인 서비스로 정착되고, 다시 피드백 되어 주민에게 소통될 수 있어야 주민참여의 시스템 구축이라 할 수 있음

공모사업 내용 가운데 기존 행정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단기적으로는(1~2년 정도) 담당 부서와 마을르네상스센터가 역할 분담-행정은 물리적 시설 지원, 센터는 주민주인(조직)화, 공동체 프로그램 담당을 하고, 장기적으로 수원시의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수행 시 주민주인(조직)화 과정을 포함하도록 정착(제도)화하도록 함

주민들에게는 공동체 프로그램 500만원, 시설 공간 조성 2천만 원, 4천만 원의 차이가 없음. 공간조성을 하려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람들을 만나야하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의 사업영역을 별도로 만들 수도 있음. 그 단계를 지나면 본격적인 공간시설 단계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진행단계로 공모사업(마을만들기 사업)을 설계할 수 있음. 공모사업의 특성상 단계를 나누는 것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현실적으로 볼 때 주민조직의 경험, 즉 첫 경험인지 다수 경험조직인지에 따라 지원액 규모를 달리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음



□ 환영 (행안지도\_행궁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모임 소통분과장, 마을르네상스센터 공모사업 진행, 49년 거주, 대승원 사무국장)

주민들이야 여전히 보상받고 나가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함. (남창동에서) 자기 집을 고쳐서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반가움. 상가거리의 활성화는 사람들을 다시 살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 (마을만들기가) 철거와 보상에 의한 방식으로만 동네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가고 있는 듯함. 남지(연못)까지 복원하면 정말 걷고 싶은 거리가 되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함

과거(행궁길발전위원회)에는 수평적 의사소통이 아니었다고 생각함. 상가거리 중심의 소수에 의해 진행되었고, 너른 범위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와 분위기였음. 마을르네상스센터가 생기면서 분위기가 달라졌고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음. 이기적인 요구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변화에 스스로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참여한 변화를 눈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음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들으러 와주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 참여임. 듣는 것 자체가 관심이 있다는 증거이고 들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있음

남창동에 있는 작가들은 이미 사업적 이해가 커서 순수한 문화예술 작가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예산에 길들여져 있는 작가들은 주민들을 실망시키기 일췌임. (문화예술 작가들이)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함. 행정에 의도한 일이 많음. 수원시의 노력은 좋았으나, 진정성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기임. 동네에 녹아져 있다고 여기기는 어려움

마을에 중간지원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함. 마을르네상스센터의 역량으로 어떻게 소통이 가능하겠냐. 주민들이 스스로 코디네이터가 되는 수밖에 없음. 주민들의 뭉치 아니겠냐. 먼저 경험하고 공유했던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됨.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이론적 배경 보다는 (다르게)느끼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을만들기 사업에 큰 도움이 됨. (마을만들기에서) 일꾼들이 바뀌더라도 시스템적으로 남았으면 좋겠음. 우린 너무 많이 도움 받았고 다른 마을에서 질투가 많았음

주민자치위원회(속해 있지만) 처음엔 많이 실망했음. 그분들이 나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공감이 덜한 데도)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노력만 강함. 회의 참석하려는 시간과 비용이 있거나 해야 참석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변화를 절실히 요구하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함. 그래도 지금 행궁동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기획 실무를 경험 했던 사람들이 참여 하면서 많이 변했음

생태교통 잘 안될 것 같았는데, 남창동에서 생태교통페스티벌 제안 설명 있었을 적에 분위기 정말 살벌했음. (신풍.장안동이) 이정도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함. 사업을 이끌어간 분들 대단함

행정과 주민들이 찰떡궁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행정의 경험적 근거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경우가 많지 않으며,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이 필요함

우리 동네(남창동)에서 재래시장까지 같은 동네로 여기지 않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보니)거기까지 인식이 확대 되어야 할 것 같음. 토박이라 그런가 보다. 골목 혹은 부분적인 상가거리를 고민하는 개발방식은 삼가야 함

□ 송혜숙( 행궁동 르네상스센터 입주 작가 2009~ 현재, 생태교통페스티벌 주민코디네이터)

행궁길 사업할 적에는 작가들이 땅따먹기 하듯이 (빈 점포가 너무 많아서) 빈 점포에 들어가서 작업실로 삼고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 장사하는 분들은 상권을 살리기 위한 축이 있었던 거 같음

행궁동에 자기 집을 두고도 인계동 아파트로 가 사는 사람들은 행궁동에서 보상 받고 떠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투자로 보는 것임. 그런 사람들은 화성성역화 계획이 그대로 실천되기를 바라지 마을만들기 같은 거 관심 없음. 행궁동은 부자동네임. 1990년대까지만 해도 주거 환경에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있지는 않았을 것임. 통장님들 얘기로는 최근에야 노후 대책으로 원룸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 것임

주민들의 작품과 결과물을 재배치 해주고 스토리를 부여하는 작업을 작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같은 물건이라도 남대문 시장과 백화점의 명품처럼 달게 평가할지도 모름

애당초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주민들에 의한 마을만들기라고 부르긴 힘들 것 같음. 초기엔 귀신 나온 집이라고 주민들은 대부분 반대했음. 공공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의 참여가 컸고, 이윤숙 대표 같은 사람들이 주민들과 작가를 연결하는 좋은 재주를 발휘했었음

지금은 주민들이 변화를 상상을 하면, 작가들이 도와 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함. 직접 해볼까 나서는 사람들도 있음.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실천까지 하기엔 (업으로). 박호철? 같은 이들이 활동하기엔 여건이 안 됨. 자유롭지 않을 거고, 이 겨울을 나기 힘들 것임. 우리 마을에서는 참 도움이 되는 인물인데도 말임. 곤궁한 기간이 있음. 11월~3월까지는 보릿고개임. 일이 없음. 그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활성화 되지 않음

(전라북도) 진안의 마을간사처럼 중간 지원자가 필요한 듯함. 그렇지만 도시형 마을만들기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기획자나 손발이 되어줄 사람 상시로 구할 있기 때문에. 제도로 자리 잡기 힘들지 않겠냐. 도시에 톡톡하고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오히려 일을 어렵게 하는지도...

하지만 르네상스센터가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있다면 일 잘하는 사람들이 마을간사라 제도로, 중간지원자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마을만들기에 관한 취재를 하다 보면, 기존의 관변조직?이 마을만들기에 나서는 경우엔 늘 그들만의 리그가 되더라. 변화가 안 보임

마을에 두는 행정인턴. 같은 거라고 해야 하나. 그렇다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동사무소에서 머슴처럼 부리면 안 되고 외부적으로 그렇게 인식되면 안 될 일임. 어디까지 일하는 범위를 정해 주어야 함

생태교통마을 사무국 중심으로 뭔가 많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이번에 (생태교통페스티벌) 방문하셨던 분들이 말하기를 농촌형 마을만들기 입장에서 보면 수원의 마을르네상스 형편없다고 함. 머리는 마을만들기 추진단(행정)이 하고 주민들을 상대하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르네상스센터니 손발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음. 더 도전적이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한계라고 생각함

전문가들의 장점은 한 분야 있어서 깊이 있는 지식이 있다는 것 일 텐데, 그것이 틀에 박힌 태도를 만듦. 주민들을 만나면 또 다른 결합이 있을 수 있다고 여기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함. 자기 작품구상이나 자기가 바라는 공동체 형태 보다는 동네에 꿈을 상상해주는 역할이 필요함. 전문가들의 의견을 선호하고 공감하는 것은 (주민이 아니라) 받아쓰기 좋은 행정뿐임

#### □ 기타 (닐니리 커뮤니티 댄스팀, 마을해설사 팀)

차 없는 거리도 좋지만 골목이 깨끗해 저서 너무 좋음. 물을 안줘도 잘 자라는 꽃이 있었으면 좋겠음

1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추석 전에)정조로 상인들 성화에 못 이겨 무궁화 화분을 화서문로로 옮겼으며, 취지에 맞지 않음

생태교통페스티벌은 잘 진행되었는데 너무 계파가 나누어져서 단합이 안 되고 서로 자기들만의 주장만 앞세우고 있음

동네일을 잘 돌보기 위해서도 마을사무국은 계속 있어야 함

#### 4)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소리마을: 길음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 ① 응답자특성

[표 부록 1-4] 길음동 응답자특성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52	100.0
성별	남자	28	53.8
	여자	24	46.2
연령별	40대	5	9.5
	50대	3	5.7
	60세이상	14	26.7
거주 기간별	6-10년	30	57.2
	11-15년	9	17.2
	16-20년	3	5.7
	21-25년	10	19.2
	26-30년	5	9.5
	31년 이상	11	21.1
직업별	가정주부	14	26.7
	직장인	16	30.8
	자영업자	13	25.0
	무직/기타	11	21.2
주택 유형별	단독주택(독채)	12	23.1
	아파트	14	27.5
	주상복합	20	39.2
주택소유 유형별	자가	15	29.4
	전/월세	1	2.0
주민단체 가입여부	있음	1	2.0
	없음	42	85.7

##### ②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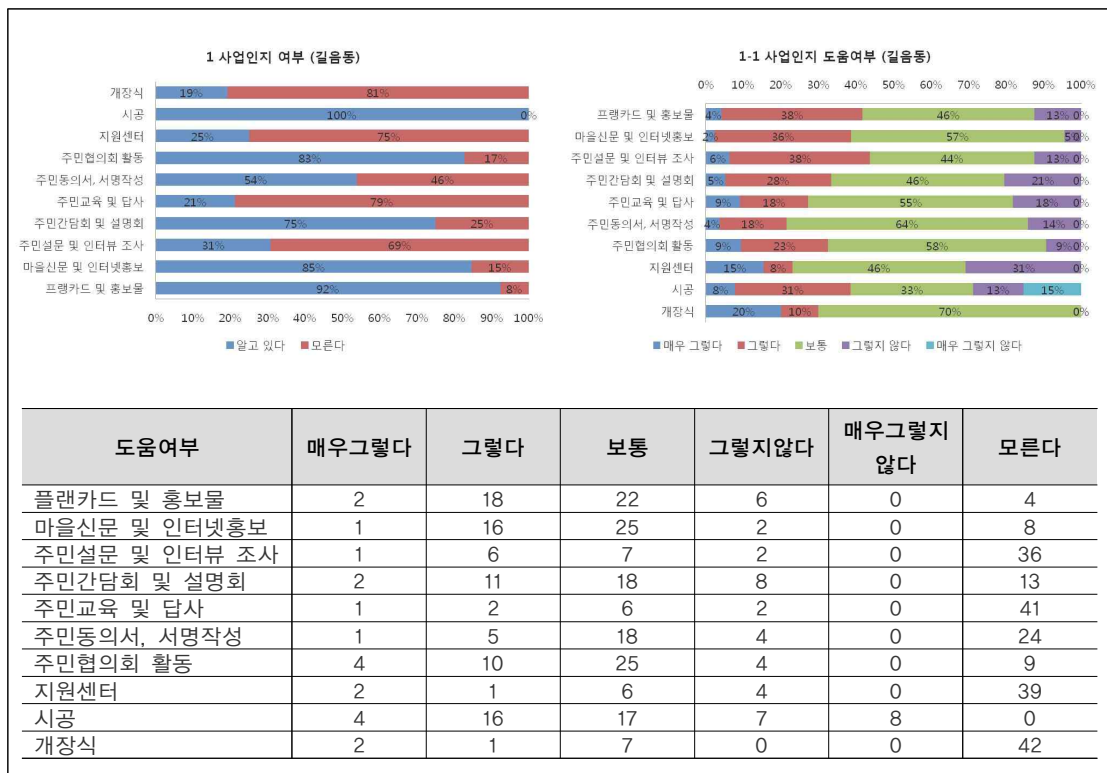
###### □ 사업의 인지, 참여경험, 만족도

- 질문1. 성북구 길음동에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 귀하가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주민 참여활동들이 귀하가 경관협정 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시공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플랜카드 및 홍보물 92%, 마을 신문 및 인터넷 홍보 85%, 주민협의회 활동 83%,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75%, 주민동의서 및 서명 54%순임

길음동 소리마을은 현재 도로포장개선 공사 및 복지센터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시공에 대한 인지도는 100%임. 설문과정에서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도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하지 않고 있으나 시공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음

또한 플랜카드나 홍보물의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출발로 주민들이 인지하기 좋은 수단이며, 주민협의회 활동에 대한 인지도도 매우 높음. 이는 주민협의회 활동과 연계해서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과정이 주민들에게 인지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그림 부록 1-37] 사업인지 여부 및 만족도

사업인지에 대한 만족도는 독자적 분석보다 사업인지여부에 대한 응답율과의 관계성 속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플랜카드 및 홍보물 42%, 시공 39%, 마을신문 및 인터넷 홍보 38%, 주민협의회 활동 31%,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33%, 주민동의서 및 서명 22%의 만족도를 보임

설문1번의 사업인지 여부에서는 시공, 플랜카드 및 홍보물, 마을신문 및 인터넷 홍보, 주민협의회 활동,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주민동의서 및 서명 순이었는데

사업인지에 대한 만족도는 설문 및 인터뷰조사 44%, 플랜카드 및 홍보물 42%, 시공 39%, 마을신문 및 인터넷 홍보 38%,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33% 순임

주민들은 직접적 대면접촉을 통해 사업을 이해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플랜카드나 시공 등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 인지에 대한 만족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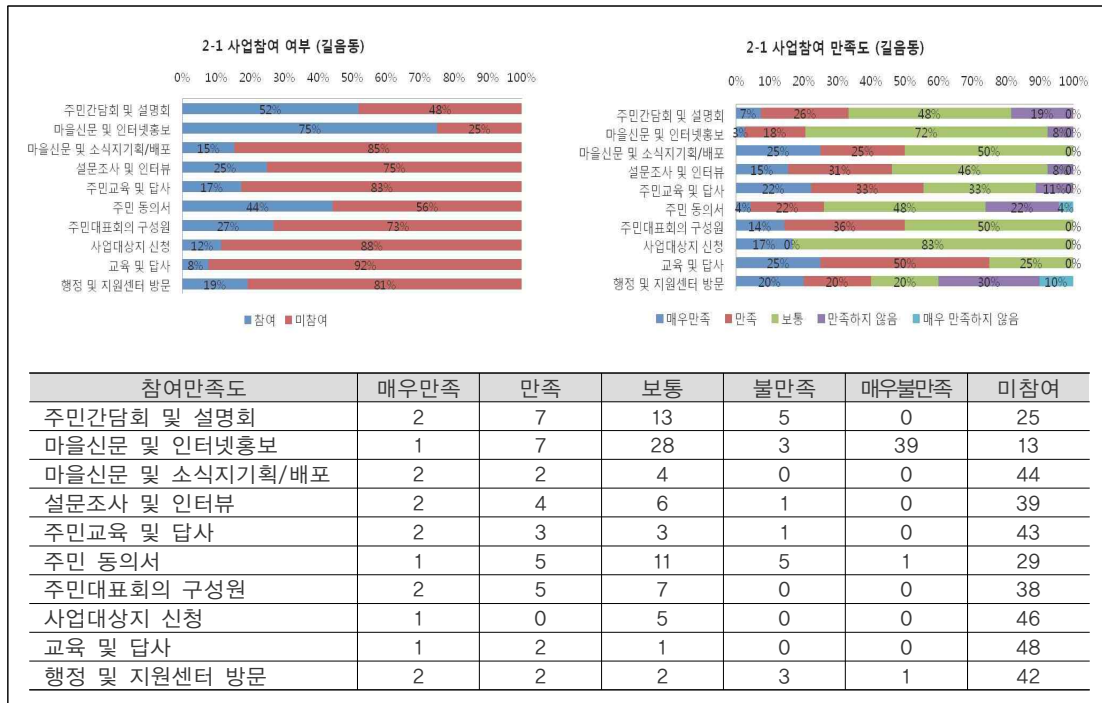
- 질문 1-1. 만족하시는 경우 귀하가 사업 인지방법에 대해 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 1-2. 불만족하시는 경우 귀하가 사업 인지방법에 대해 불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의견
사업 인지 방법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들과 대화가 많아짐</li> <li>·직접 대면하는 방식이 도움이 되며 회의에 참석하면 사업진행 내용을 잘 알수 있게 됨</li> <li>·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이 가장 좋았음</li> <li>·지원센터의 교육이 가장 좋았음</li> <li>·동네환경이 확 달라지고 깨끗해짐</li> <li>·소식지에 내용이 상세하게 제시됨</li> <li>·관심 없으며 시공 때문에 인지하는 정도임</li> </ul>
	불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더욱 적극적인 홍보 후에 시공했다면 불만이 줄었을 것임. 시공과 관련해서는 설명회가 없었음</li> <li>·시공 때 소음이 너무 심했음</li> <li>·젊은이들의 참여가 부족함</li> <li>·소식지는 그리 호응이 높지 못함</li> <li>·사업내용이 알기 어려움</li> <li>·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별로 인지에 도움이 안 됨</li> <li>·개별접촉이 부족하고 재건축을 요구하는 주민들을 꺼려하는 것 같음</li> <li>·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름</li> <li>·복지센터 운영을 왜 주민들에게 시키는지 모르겠음</li> <li>·주민들에게 부정적인 면은 이야기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면만 이야기함</li> <li>·내용은 시공밖에 모르며 크게 느껴지지 않음</li> <li>·시공을 보니깐 휴먼타운이 별로인 사업으로 느껴짐</li> </ul>

- 질문2. 귀하가 직접 참여했던 프로그램과 만족도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

사업 참여 여부는 마을신문 및 인터넷홍보 75%, 주민 간담회 및 설명회 52%, 주민 동의서 44%, 주민대표 구성원 27%, 설문조사 및 인터뷰 25% 순임

성북구 지원센터가 소리마을 사업에 결합한 시기가 2013년으로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홍보와 간담회 등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임



[그림 부록 1-38] 사업 참여 여부 및 만족도

사업참여여부는 마을신문 및 인터넷홍보, 주민 간담회 및 설명회, 주민동의서, 주민 대표 구성원, 설문조사 및 인터뷰 순인데

이와 연계한 만족도는 교육 및 답사가 55%로 가장 높고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 50%, 마을신문 및 소식지 기획 배포 50%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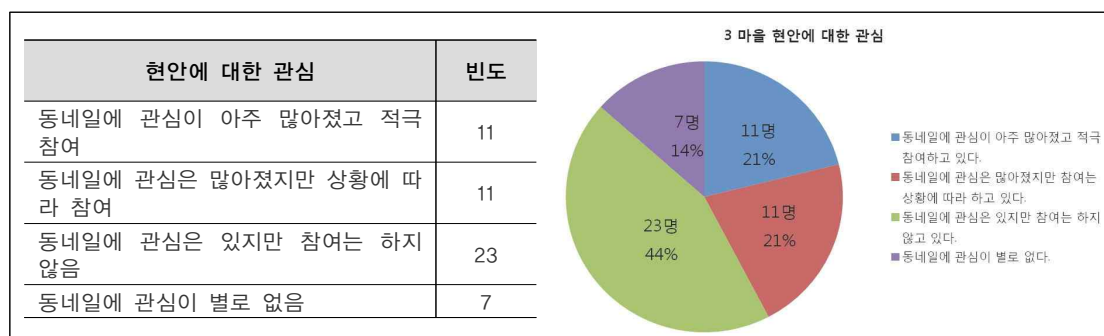
교육 및 답사에 참여했다는 응답은 9명이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2013년 성북마을 만들기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마을학교’를 개최하면서 휴먼타운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주민의견들을 청취하면서 조정하려는 노력이 컸기 때문으로 보임

또한 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의 이해’에 대한 10강좌 개설을 통해 주민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고민 속에서 복지센터 운영방안을 잡아나갔기 때문으로 보임

- 질문 2-1. 귀하가 사업 참여방법에 대해 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 2-2. 귀하가 사업 참여방법에 대해 불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의견
참여 경험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동네가 달라지니깐</li> <li>·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회가 좋은 자리였음</li> <li>·직접 참여는 못해도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했음</li> <li>·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식지를 통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음</li> <li>·조합원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음</li> </ul>
	불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 (쓰레기 문제 등)</li> <li>·주민참여라고 하지만 무엇이 진행되는지 알리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음 (시공)</li> <li>·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하지만 주민의견은 반영이 안 됨</li> <li>·전체적으로 불만족스러우며 특히 복지센터 시공은 큰 문제임</li> <li>·도로포장은 불필요한 낭비이며 전시행정임</li> <li>·기대하는 사업이 아니며 우리랑 맞지 않는 것 같음</li> <li>·큰길가 유흥업소 등 동네 문제들이 많은데 편한 사업만 제시함</li> <li>·운영을 주민에게 떠맡기고 있음</li> <li>·휴먼타운 사업에 반대함</li> </ul>

- 질문3. 귀하는 경관협정 사업을 계기로 동네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셨습니까?



[그림 부록 1-39] 마을 현안에 대한 관심



- 질문 3-1. 3번 항목에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의견
동네 현안에 대한 참여/ 미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네 아이와 어른들에게 좋은 일이 될 것임</li> <li>·노인들만 참여하고 있음</li> <li>·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음</li> <li>·휴먼타운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참여함</li> <li>·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님</li> <li>·괜히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함</li> <li>·참여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음</li> <li>·너무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음</li> </ul>

참여에 대한 응답은 대부분 우리 동네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휴먼타운 과정에서 나타난 불만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도 있었음. 특히 시공계획에서 빚어진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바로 시공으로 들어가면서 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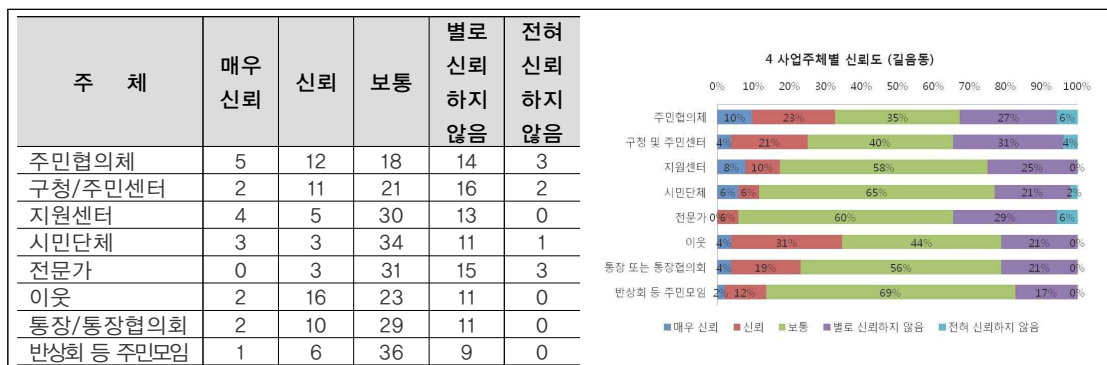
#### □ 사업 추진주체에 대한 신뢰

- 질문 4. 귀하는 경관협정 사업을 계기로 함께 진행했던 기관이나 사람에 대한 신뢰관계가 변화되었습니까?

가장 높은 신뢰를 보인 사업추진 주체는 이웃으로 35%이며, 다음은 주민협의체 33%, 통장 23%, 지원센터 18%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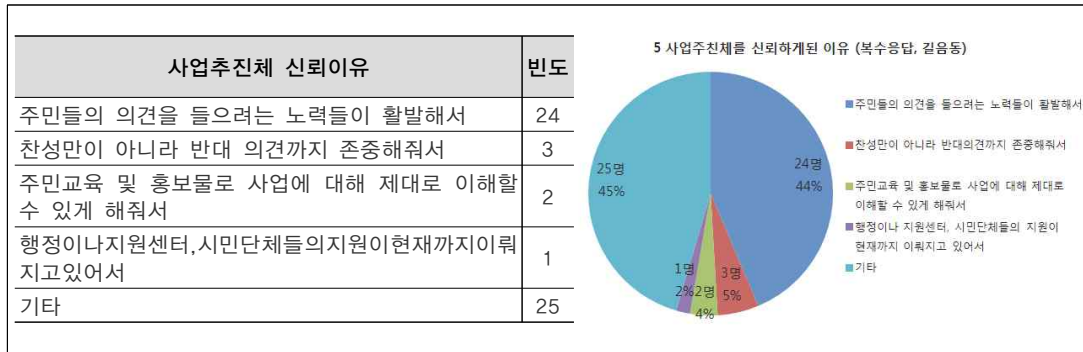
길음 뉴타운으로 하나의 이웃으로 지냈던 관계가 물리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개발이 되지 못한 소리마을 주민들 간의 결속은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이웃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됨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계획과정에만 결합되고 주민들이 가장 관심과 불만이 높은 시공 시기에 사업이 종료되어 역할을 끝냈기 때문으로 보임



[그림 부록 1-40] 사업주체별 신뢰도

- 질문 5. 귀하가 사업추진주체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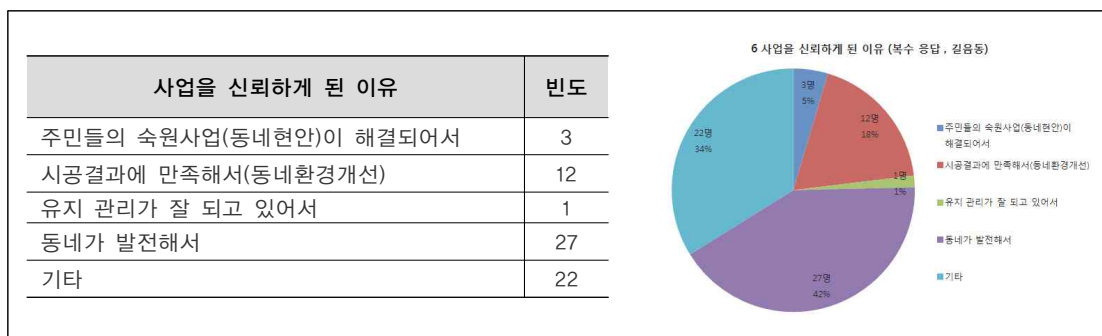
[그림 부록 1-41] 사업주체를 신뢰하게 된 이유

추진주체에 대한 신뢰의 가장 큰 이유는 기타가 45%이며 다음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이 활발해서가 44%임

기타의견들은 시공을 보니 쓸데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 업체들은 자신의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일방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할 뿐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모습 부족, 특별히 신뢰를 가질 만한 근거 부족 등 신뢰에 부정적 의견이 많았는데 가장 많은 의견은 시공에 대한 불만임. 시공에 대한 불만은 주민의견 청취 부재로 연결되며, 또한 휴먼타운 사업이 도로포장 및 CCTV, 센터 건립인가라는 질문도 제기되고 있음

기타 의견에서 신뢰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노력하는 모습이 신뢰가 간다는 것, 우리마음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등임

- 질문 6. 귀하가 이 사업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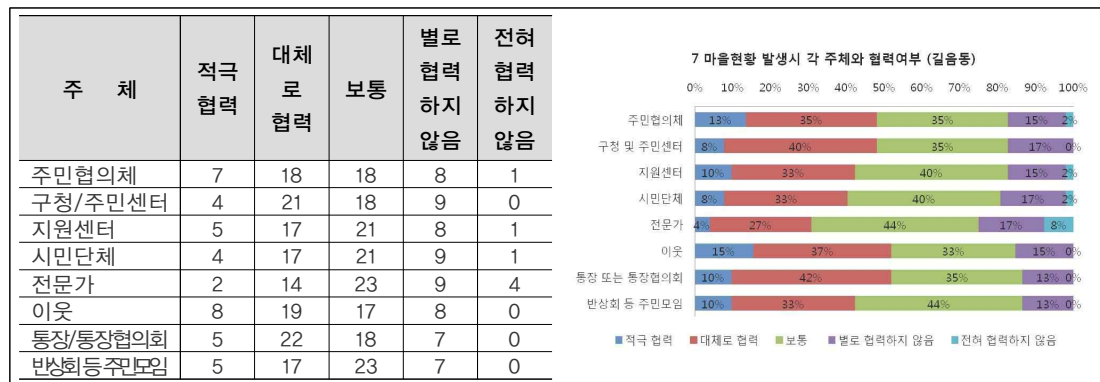


[그림 부록 1-42] 사업을 신뢰하게 된 이유

사업실패의 가장 높은 이유는 동네발전 42%, 다음으로는 기타 34%, 시공결과에 만족해서가 18%임

동네가 발전한다고 응답한 이유는 재건축이 경제성 떨어지기 때문에 소리마을에 대한 물리적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다수인 것으로 보이며, 기타 의견이 많은 이유는 사업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믿음이 없음, 다른 사례나 언론의 관심을 보고 기대했으나 실상은 별로임’ ‘시공하는 내용은 주민의견에서 나온 것이 아님’ ‘CCTV를 제외하고는 세금낭비임’ ‘떨정한 도로를 공사하는 것에 반대임’ ‘동네의 현안을 건드리지 않음’ 등임

- 질문 7. 귀하는 동네에 여러 가지 현안이 생긴다면 어떤 기관이나 사람과 계속 협력하여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그림 부록 1-43] 마을현황 발생 시 각 주체와 협력여부

현안에 대한 협력주체는 이웃이 52%로 가장 높고 통장 또는 통장협의회가 52%, 주민협의체가 48%로 이웃관계나 이웃관계에서 조직된 주체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보임

- 질문 7-1. 적극 협력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 7-2. 협력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의견
협력	유	·내가 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하고 주민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주민과 소통하고 마을 전체가 활발해져서
	무	·마음은 협력하고 싶으나 지금은 지켜봐야 할 때임 ·전문가는 주민요구 수렴 및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주체들에게 신뢰가 가지 않음

협력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현재의 사업에 대한 불만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됨

## □ 사업추진의 주민주도 가능성

- 질문 8. 귀하는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협의체(또는 운영위원회)가 향후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부록 1-44] 사업을 신뢰하게 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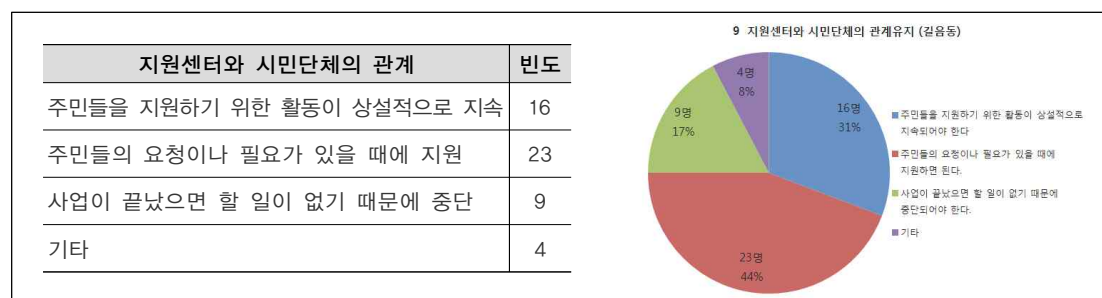
협의체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46%가 사업과 관련된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5%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협의체 활동은 시공이 완료된 복지센터의 운영 속에서 지속여부가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며 복지센터의 주민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협의체 활동 지속성과 연계된 것으로 보임

- 질문 9. 귀하는 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나 시민단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센터나 시민단체와의 관계유지는 필요시 지원 44%, 상설적 지원이 31%이며, 사업 종료와 더불어 중단도 1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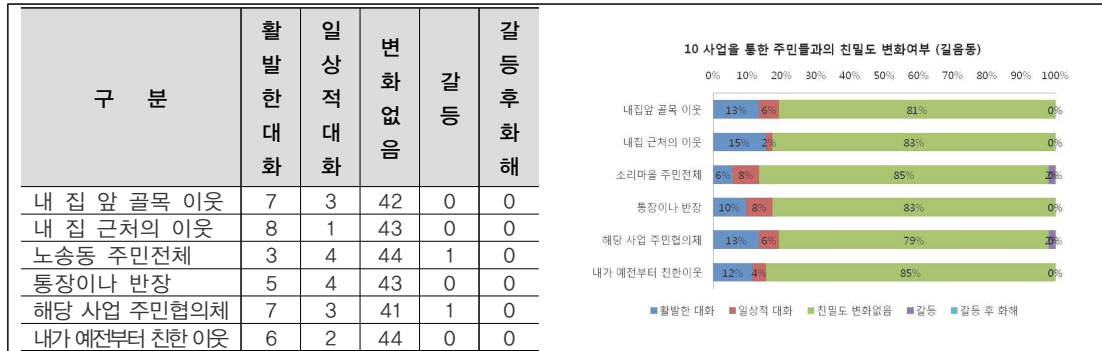
이는 주민협의체 관계 유지와도 유사한 답변으로 길음복지관이나 성북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지원한 지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주민과의 결합도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됨



[그림 부록 1-45] 마을현황 발생 시 각 주체와 협력여부

## □ 사업관계망의 공간적 상관성

- 질문10. 귀하께서는 노송동 사업을 통해 주민들과 친밀도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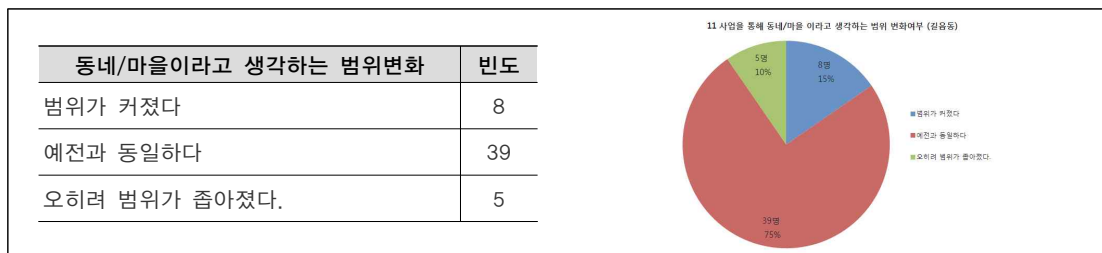
[그림 부록 1-46] 사업을 통한 주민들과의 친밀도 변화여부

친밀도의 변화가 없음이 80%를 넘나드는데 주민과의 일상적 관계망이 잘 형성된 동네이기 때문에 주민끼리의 관계망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 질문11. 귀하께서 이 사업을 통해 동네/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달라지셨습니까?

동네의 범위에 대한 인식변화는 75%가 예전과 동일하다고 응답했으며, 물리적으로 동네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임

응답자의 5%는 범위가 작아졌다고 했는데 이유는 길음 뉴타운에서 소리마음이 제외되어 서로 다른 동네로 구분되기 시작했고 또한 ‘소리마을’에 대한 응집력이 강해졌기 때문임



[그림 부록 1-47] 사업을 통해 동네/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변화



[그림 부록 1-48] 커졌다면 동네/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

### ③ FGI 조사 내용

#### □ 이종민 (협동조합 이사장)

휴먼타운을 시작했던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임. 길음뉴타운으로 아파트에 둘러싸인 소리마을의 집들은 매우 낡아 수리가 필요한 상태인데 4층 연립의 경우 노후도가 많이 심하고, 단독주택 역시 집에 물이 새는 등의 문제로 60%가 신축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결국 경제적 이익이 없어서 추진되지 못하고 흐지부지한 상태임

이러한 상태 속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면 재건축을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속에서 나를 포함해서 7명이 휴먼타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임

공무원들은 휴먼타운 과정에서 참여를 통해 수립된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분위기는 사업에 대해 무관심이었음. 협의체 위원들이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주민설명회 등의 자리에 나오라고 했지만 무관심으로 인해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기고 불신도 나타나기도 했음. 즉 주민들은 휴먼타운에 대해 믿음을 갖지 않았고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높지 않았던 것임

휴먼타운을 추진하면서 간담회나 회의, 인터뷰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시도했지만 주민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고 휴먼타운을 통해 뭐가 달라질까라는 의구심도 갖고 있었음. 현재 10월 센터 준공식을 하면 주민들에게 뭔가 변화가 보일것이라고 생각됨

휴먼타운에서 실제 진행한 사업은 도로공사와 센터를 짓는 것인데 보도공사의 경우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많았음. 우선 도로는 상태가 양호했으며 오히려 전신주 지중화나 통신선 정리가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었으나 주민들의 필요와 달리 멀쩡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포장만 다시 하는 공사가 진행되었음. 즉 주민여론에 대한 다양한 합의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공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시행한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생각됨

센터건립에도 우리들은 운영프로그램이나 운영비용은 행정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종 보고하면서 주민들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던 상태에서 성북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교육도 하고 여러 형태의 회의도 함께 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을 선택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대표진들의 고민은 매우 깊음

현재 협의체 대표들인 우리는 100%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자비를 모아서 회의도 하고 2개월에 한 번씩 행정과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지속하는 것은 부담도 많이 되고 한계도 느끼고 있음. 협동조합 총회 때에도 7명이 10만원씩 부담해서 준비했는데 계속 개인이 비용을 지불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봄

현재 100명 정도의 협동조합 조합원이 모여 있지만 조합원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1만 원의 출자금이기 때문에 운영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현재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 신청한 상태임. 1차에는 선정되었고 2차 심사까지 통과하면 몇 천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도 주민들은 관망자세임

많은 분들이 조합에 가입했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속에서 가입한 것은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성북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도움 속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 이러한 지원은 센터만이 아니라 여러 단체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임

어떻든 이러한 사업으로 주민간의 대화가 활발해졌고 나 스스로도 협동조합 이사장 직을 맡으면서 주민들에 대해 이해도가 더 넓어졌음

#### □ 이애재 (주민협의회 위원 / 협동조합 이사)

2010년도에 휴먼타운으로 지정되었을 때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많았음. 휴먼타운이라고 해서 낡은 집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즉 휴먼타운이 뭘지 궁금했기 때문에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집은 개인영역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 휴먼타운을 반대한 사람들은 모두 빠져버려서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음 물론 연립의 경우 집도 낡고 개인이 손을 대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여건상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면 마을일에 협조하고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주민협의회는 휴먼타운을 진행하는 용역업체에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주민회의를 하면서 휴먼타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자천 타천으로 13명이 선출된 것임

처음 용역사와 구청은 서울시에서 50억정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길음뉴타운에 둘러싸인 우리동네는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집들에 대해 개량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휴먼타운에서는 개인 집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이런 과정 속에서 용역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이때 주민들은 노인들이 많으니깐 노인을 위한 복지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지중화사업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선 정리만 하고, 페인트칠을 해서 동네를 밝게 만들고, 도로를 정비하자는 것이 가장 많은 의견이었음

이런 과정 속에서 도로포장과 센터 건립이 추진되었는데 협의체 위원들은 길가에 센터를 건립하길 원했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태였고 마침 오래된 집 두 채가 있어서 이곳을 센터건립 부지로 설정하고 매입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임. 길음동 소리마을에 투입된 예산은 30억 원임

‘소리마을’이라는 이름은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웃음소리가 가득한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 속에서 휴먼타운 MP가 제안했고 모두 동의해서 지어진 이름임

현재 구청에 대한 불신도 있는데 하기로 했던 것들이 이해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공동주택에서 개개인들이 내놓는 쓰레기가 지저분해서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둘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구청에서도 동의했음에도 시행되지 않고 있고, 페인트칠 역시 현재 아무런 움직임도 없으며, 여러 가지 동네 이야기들을 공유할 게시판 설치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음

센터가 지어지면서 나타난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현재도 이사회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모두 자비로 해결해야 하니깐 부담스러운 지점도 있으며 주민들은 행정에서 모든 운영을 책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을 하더라도 고민되는 지점임

협동조합을 준비하면서 현재 조합원은 109명인데 다들 아름 아름 지인들의 소개로 참여하게 된 것임. 조합비는 1만원이며 아직 협동조합 인가가 나오지 않아서 조합원 모집은 중단한 상태임. 지금은 휴먼타운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10% 정도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좀더 두고 봐야 할 부분이고 센터가 준공되고 운영된다면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보임. 다만 행정이 모든 운영을 책임지고 지원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들 스스로가 운영해야 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두려움도 갖고 있는 상태임

휴먼타운을 추진하면서 결합한 용역업체는 센터 운영을 주민들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준적이 없었는데 아마도 자신들의 역할이 끝나면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성북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계속적으로 주민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정보도 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도 진행해주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고 있음. 이 부분이 용역업체와 지원센터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됨



#### □ 김병호 (주민협의체 위원 / 협동조합 이사)

휴먼타운이라는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의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기대도 컸는데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이 생겼음. 특히 센터가 준공되면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도 되고 겁이 나기도 함.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협동조합 이사들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는 생각됨

주민 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나도 나서서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는데 뜻있는 사람들은 좋아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재건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했음. 현재 도로공사에 대한 불만들이 아직도 많은데 도로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세금을 필요한곳에 제대로 쓰는 것이 나은 것 아니냐는 의견들임. 개인적으로도 예전의 아스팔트가 더 낫다고 생각했지만 어떻든 공사를 하고 나니깐 골목이 깨끗해보이기는 함

초기 주민협의체 활동을 하면서 바라본 주민들은 무관심이 대부분이었고, 또 진짜 하는 것인 가라는 의문도 많이 가졌었음. 현재는 건물이 올라가니깐 조금씩 반응이 나오면서 조합원 가입도 늘어나고 있지만 준공 후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임

#### □ 이용현 (협동조합 이사)

휴먼타운에 대해 젊은 사람들은 초기부터 50%이상 이해했음. 젊기 때문에 사회나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도 잘 알기 때문인데 어르신들은 사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며, 현재도 어르신들은 센터가 준공되고 난 뒤에 두고 보겠다는 의견이 다수임. 즉 몸으로 직접 느껴보겠다는 것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한계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을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임. 이런 문제로 초기 어르신들만 참여하면서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는데 젊은이들을 끌어들이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중앙슈퍼 사장님이 제 아버지이기도 해서) 올해부터 몇몇 젊은이들이 시간을 쪼개서 이리저리 참여하기 시작하였음

도로포장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만 도로를 포장하면서 쓰레기가 많이 줄어든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며, 집들은 넓고 어두침침하지만 도로라도 바뀌니깐 동네가 깨끗해보이기도 함. 동네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앞으로 소리마을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음

아쉬운 점은 젊은이들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점인데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와 노인과 아이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고민하게 된 것임. 센터를 짓는다는 것만 결정되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우리는 성북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함께 협의하면서 방과 후 공부방이나 북카페,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센터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 것임

센터에 노인과 손주들이 이용하게 되면 젊은이들도 자신의 자녀들이 있으니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함. 반대주민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 역시 어르신들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손주와 손녀들이 놀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달라지고 있음

#### □ 기타의견

노인들이 많은 동네인데 교육이나 설명회 보다 직접 눈으로 변화를 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음.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한 이야기보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연계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한 쓰레기문제의 경우 행정에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변화가 없음. 전체적으로 사업설명회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아닌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추진주체나 기관을 신뢰하기 어려움

도로공사를 완료한 경사지의 경우 미끄럼방지시설이 필요함에도 현재 방치한 상태이며, 주민들이 쓰레기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쓰레기를 모아놓은 시설을 설치했는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모두 파손, 철거되었으며 이에 대해 행정은 해결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시도나 조치가 없어 불만이 높음

휴먼타운에 대한 기대가 컸던 이유는 우리 동네가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주민들의 요구와 관계없는 행정이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치장용 같은 공사만 진행하고 있음. 휴먼타운이 도로블럭공사와 CCTV설치, 센터 짓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원래는 뉴타운이 들어온 지역까지 우리 동네라고 생각했는데 길음뉴타운이 생기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동네라는 범위가 줄어들어버렸음. 휴먼타운은 그래서 소리마을에 사는 주민들끼리 뭉쳐야 한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해줬는데, 물리적으로 너무나 이질적이기 때문임

#### □ 남철관 (성북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성북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생기기전인 2010년도 휴먼타운으로 지정되었는데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경제성이 없어서 길음뉴타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주민들에게 많이 있었음. 이에 따라 휴먼타운에 대한 동의가 크지 않아서 주민협의체가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이와 관련해서 성북구청장은 대충 건물을 짓는 것이라면 차라리 휴먼타운을 반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주민 워크숍을 요구했었으며 이러한 구청장의 요구를 용역업체에서 받아내기는 쉽지 않았음

최종보고시점인 2012년 11월, 계획내용은 물리적 계획을 중심으로 끝에 조금 주민이야기가 들어간, 기존 용역보고서와 다를 바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민들 역시 건물을 짓고 보도 블록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태였음. 구청장이 이런 상태로는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센터가 들어가서 ‘찾아가는 마을학교’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이미 구성되었던 주민협의회와 함께 진행한 마을학교에서는 수많은 성토가 표출되었는데 시청과 구청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커뮤니티센터 설립 장소가 선정된 이유, 어느 부분을 주민들과 협의했는가라는 불만 등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게 됨

마을학교를 통해 휴먼타운은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수단으로 장기적으로 자치적이고 자생적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과 공유하면서 15명이 수료하게 되었음. 수료한 15명중 10명이 중심이 되어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마을학교가 가교역할을 한 것임

마을학교가 마무리될 때에 실시용역이 발주되었는데 1차 휴먼타운의 성공사례지인 서원마을 역시 사후 운영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센터에서는 협동조합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됨. 이에 2013년 4월부터 5월까지 협동조합을 주제로 2차 마을학교를 하였는데 주민들은 왜 협동조합을 해야 하는지, 사회복지시설이 무엇인지, 누가 운영하며 관리비는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서울시의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는 주민들이 담당하면서 스스로 운영해야 한다는 답변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게 되었음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게 된 배경은 주민협의회에서 온 주축세력들이 협동조합에 대해 동의하고 참여하고 공부했기 때문임. 즉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이 가장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협동조합 설립틀을 만들어

나가게 됨. 이때부터 반대하는 주민들을 빠지고 협동조합 준비는 본격화되었는데 남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물을 붙이면서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함.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리더가 나오게 됨

초기 조합원을 젊은 사람들이나 마을의 거점인 길음중앙교회도 함께 했으며 그 외 조합원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경력이 있는 사람, 한의원이나 여론주도층의 역할을 할 사람 등 65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사는 15명임. 이중 13명은 주민들이며 길음복지관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는 길음복지관 부관장과 센터에서는 실무자 한명이 마을에 들어가 살면서 이사가 되었음. 즉 단체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써 1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임. 이사들은 20만 원을 출자하였음

센터나 복지관은 전체적인 자문이나 상담, 교육 등 전문성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나가는 역할을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지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설정하고 1층은 지역자활커피사업단이 와서 마을카페를 운영하며 2층은 지역아동센터, 3층은 노인과 관련된 장소, 4층은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계획되었음. 이사회는 실질적인 운영이사회로 2주에 한번 회의를 하며, 층별 운영위원회 구성 등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음

소리마을은 관리방안에 대한 고민 속에서 협동조합만 시작했지만 향후에는 동네목수처럼 관내의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의 집수리와 함께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동네마다 존재하는 설비가게나 집수리가게와 협약을 맺는 것임. 공공건축가를 파견하여 우리집 닥터와 같은 개념을 실현하는 것인데 건축 상담 등 많은 일들이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마을 안의 자원들과 연계하려고 함. 또한 소리마을은 자율방범대를 만들기로 했는데 서울시가 의무적으로 하라고 한 것이 마을관리소인데 여기에 공동택배와 설비 접수창구를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있음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리마을에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공간 운영 방식에 대해 1년 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기 때문임.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인데 이는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센터라는 틀이 있었기에 별도의 예산이 없어도 주민과 밀착해서 사업의 취지에 대해 이해하게 하고, 마을학교를 통해 인식이 빠르게 했고, 그러면서 마을만들기의 지속성을 고민한 결과물임

이처럼 기본용역이 끝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은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마을학교를 통해 인식이 조금 싹트기 시작한 것이며 협동조합 역시 준공 6개월전에 시작한 것으로 순서가 많이 뒤바뀐 형태였음. 이처럼 휴먼타운은 물리적 계획만 있는 것

이 아님에도 현재와 같은 사업선정방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여전할 것으로 보임. 절차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교육이나 기타 프로그램은 형식적인 형태로 끝나버릴 것으로 보임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공무원이 뛰어다니면서 주민들의 동의율 50%를 모우는 것인데 MP나 용역업체가 아니라 지역재생이나 마을재생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풀뿌리 조직이나 사회적 조직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됨.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주민들도 준비되며 향후 운영이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음. 또한 사업이 끝나더라도 주민들의 파트너가 지속될 수 있도록 조건이 마련되어야 함. 즉 주민들의 자생적 관리영역이 나오게 된다는 것임. 현재의 주민협의체는 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시스템이 변화되어야 함

센터가 결합했던 초기에 가장 많은 민원은 재건축 하자는 사람은 재건축하자는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돈은 많이 쓰는데 차라리 우리에게 달라는 것인데 주민들이 그 돈을 갖고 알아서 협의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는 것이었음. 이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왜 당신들이 결정하느냐는 것인데 또 하나의 민원은 말은 주민들에게 결정권을 준다고 하면서 실상은 당신들이 결정하고 주민들은 무늬만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음

센터의 역할은 중재를 하는 것이었는데 주민들에게는 구청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양해를 구하기도 했으며 구청에게는 주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였음. 이제 주민들은 스스로 조합원을 받아오면서 서로 신뢰하기 시작하고 있음

#### □ 김동환 (성북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소리마을 활동가)

2013년 7월부터 주민들과 결합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소리마을 주민들은 프로젝트 단계에 대한 이해가 약한 상태이고 구청이나 서울시의 권위와 집행방향에 아직도 많은 의존을 하고 있음.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복지시설이 준공되면 시나 구에서 개입하고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음

현재 CCTV는 7개 설치·완료되었으며 도로정비 초기에는 왜 하는가라는 질문도 있었지만 완료단계에서는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음.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조금 떨어진 동네의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현재 협동조합을 주도하는 분들은 조금 떨어진 동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며 서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재개발에 대해 미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5)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진달래마을: 경관협정시범사업

### ① 응답자특성

[표 부록 1-5] 우이동 응답자특성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37	100.0
성별	남자	21	56.8
	여자	16	43.2
연령별	40대	5	14.0
	50대	9	25.2
	60세이상	22	61.4
거주 기간별	6-10년	8	22.3
	11-15년	5	14.0
	16-20년	4	11.1
	21-25년	4	11.1
	26-30년	8	22.3
	31년 이상	7	19.5
직업별	가정주부	13	36.1
	직장인	8	22.2
	자영업자	4	11.1
	무직/기타	11	30.6
주택 유형별	단독주택(독채)	33	89.2
	아파트	3	8.1
	주상복합	1	2.7
주택소유 유형별	자가	36	97.3
	전/월세	1	2.7
주민단체 가입여부	있음	17	45.9
	없음	20	54.1

### ② 조사결과

#### □ 사업의 인지, 참여경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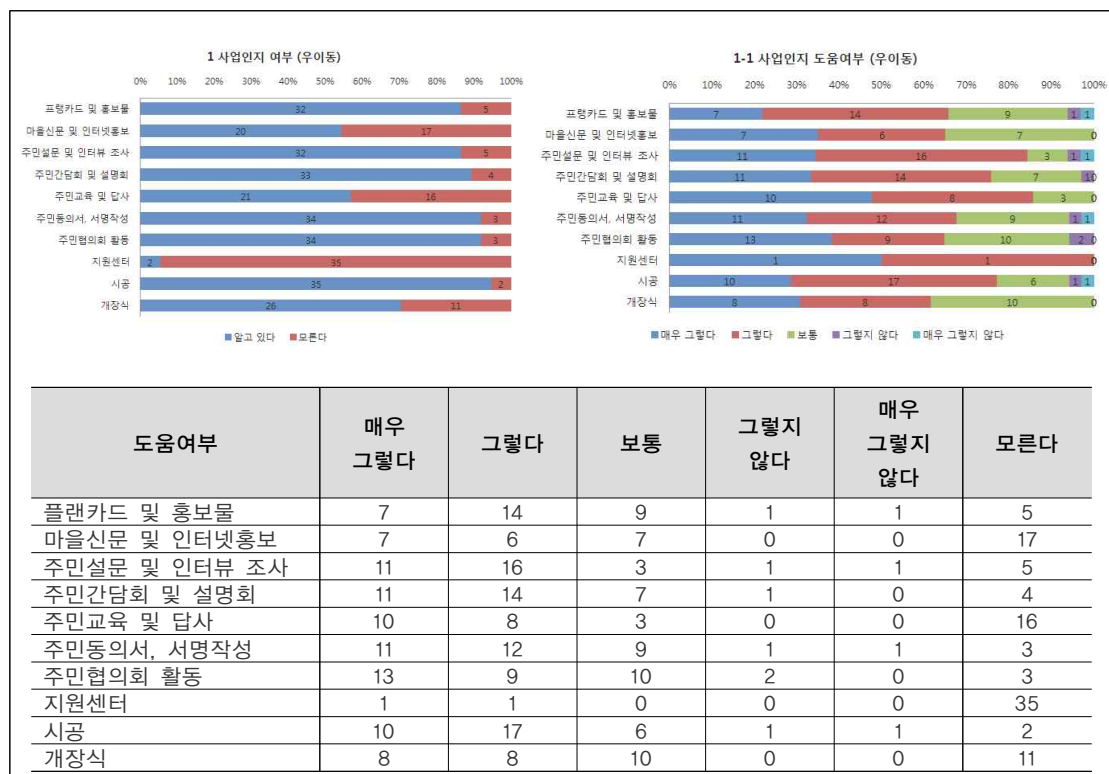
- 질문1. 우이동 진달래마을에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 귀하가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주민참여활동들이 귀하가 우이동 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시공이 95%로 가장 높았으며 주민협의회 활동과 주민동의서 및 서명작성이 92%,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89%, 설문 및 인터뷰조사 86%, 플랜카드 및 홍보물 86%, 개장식이 70%의 순임

우이동 진달래마을의 경우 골목길 개선, 소화전 설치 및 전봇대 이설 등 주민들의 일상에 필요한 내용의 시공이 진행되었다는 점과 경관협정 체결자에 한해 담장 및 대문 시공에 대한 지원이 조건이었기에 시공 및 시공과 연계된 동의서 및 서명작성에 높은 인지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주민협의회 활동에 9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이유는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관협정사업내용과 경관협정운영위원회 구성동의 및 협정 체결자 모집 서명이 진행되었기 때문임

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지원센터에 대해 2명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이유는 ‘시민단체의 활동’과 ‘용역업체의 활동’을 지원센터로 인식했기 때문이었음



[그림 부록 1-49] 사업인지 여부 및 만족도

사업인지에 대한 만족도는 독자적 분석보다 사업인지여부에 대한 응답율과의 관계성 속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시공의 만족도는 64%, 주민동의서 및 서명작업은 67%, 주민협의회 활동의 만족도는 74%,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75%, 설문 및 인터뷰조사 84%, 플랜카드 및 홍보물 66%, 개장식이 62%의 순임

설문1번의 사업인지 여부에서는 시공, 주민협의회 활동, 주민동의서 및 서명작업,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설문 및 인터뷰조사, 플랜카드 및 홍보물, 개장식 순이었으나

사업인지에 대한 만족도는 설문 및 인터뷰조사 84%,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75%, 주민협의회 활동 74%, 주민동의서 및 서명작업 67%, 플랜카드 및 홍보물 66%, 시공 64%, 개장식이 62% 순임

만족도 결과는 주민들은 직접적 대면접촉을 통해 사업을 이해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간담회나 협의회 활동 역시 직접적 교류를 통한 활동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시공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시공결과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FGI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경관사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임

- 질문 1-1. 만족하시는 경우 귀하가 사업 인지방법에 대해 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 1-2. 불만족하시는 경우 귀하가 사업 인지방법에 대해 불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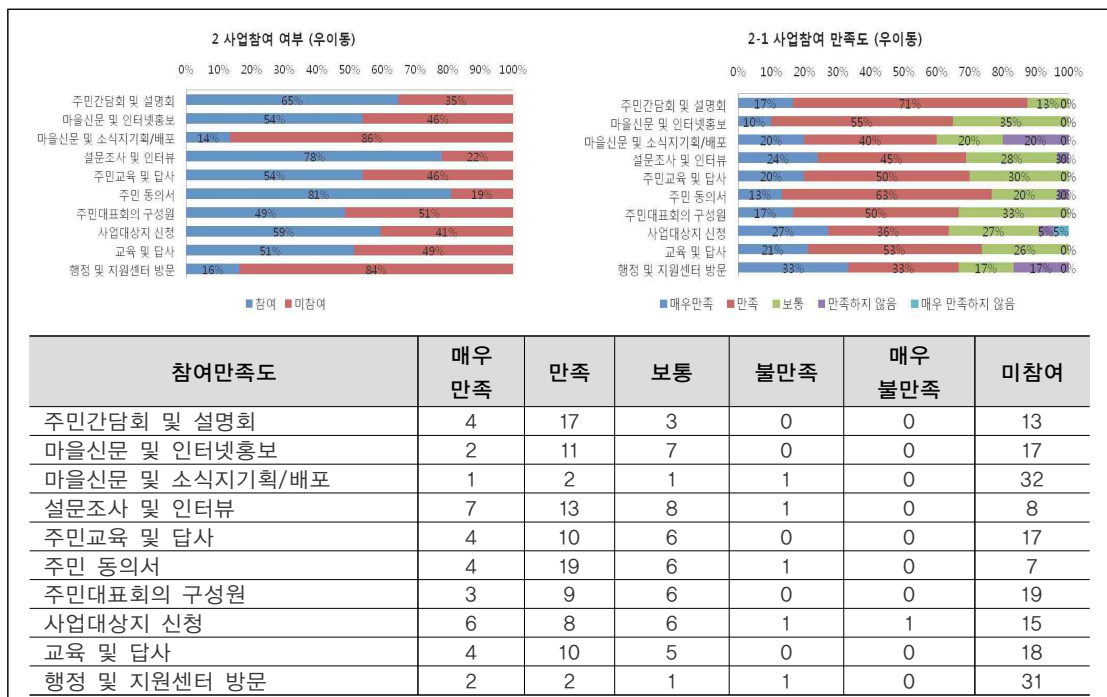
구분		의견
사업 인지 방법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 직접 방문해서 주민의견을 묻고 설명해준 것이 좋았음</li> <li>·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주민들이 많고 그분들을 통해 동네 이야기를 많이 알게 됨</li> <li>· 대부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진행되었음</li> <li>· 시민단체 활동가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다녔음</li> <li>·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려는 의견 청취가 활발했음</li> <li>· 수차례 회의와 모임을 통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음</li> <li>· 간담회와 홍보물이 함께 진행되어 이해가 잘 되었음</li> <li>· 시공을 통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마을의 변화가 보였음</li> <li>· 개장식에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홍보효과가 높았음</li> <li>· 특별히 좋은 점은 없음</li> </ul>
	불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히 참석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음</li> <li>· 너무 획일화된 방법으로 진행함</li> <li>·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초기 높은 관심이 나중에는 낮아지게 되었음</li> <li>· 시공 후 담장이 너무 낮아진 것이 불만임</li> <li>· 일반주민에게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음</li> <li>· 기존 사업과는 다른 방식이었으나 지나침 / 모임이 너무 많아서 피로감이 생겼음</li> </ul>



- 질문2. 귀하가 직접 참여했던 프로그램과 만족도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

사업참여여부는 주민동의서가 81%로 가장 높고 설문조사 및 인터뷰 78%, 간담회 및 설명회 참여 65%, 사업대상지 신청 59%, 주민교육 및 답사 54%, 마을신문 및 인터넷홍보 54%,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 49% 순임

이는 우이동 경관협정사업의 특성과 맞물리는 결과인데 개별 가구 방문을 통해 동의서를 두 번이나 작성했기 때문이며, 이와 연계한 설문조사와 인터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임



[그림 부록 1-50] 사업참여 여부 및 만족도

사업참여여부는 주민동의서, 설문조사 및 인터뷰, 간담회 및 설명회 참여, 사업대상지 신청, 주민교육 및 답사, 마을신문 및 인터넷홍보,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 순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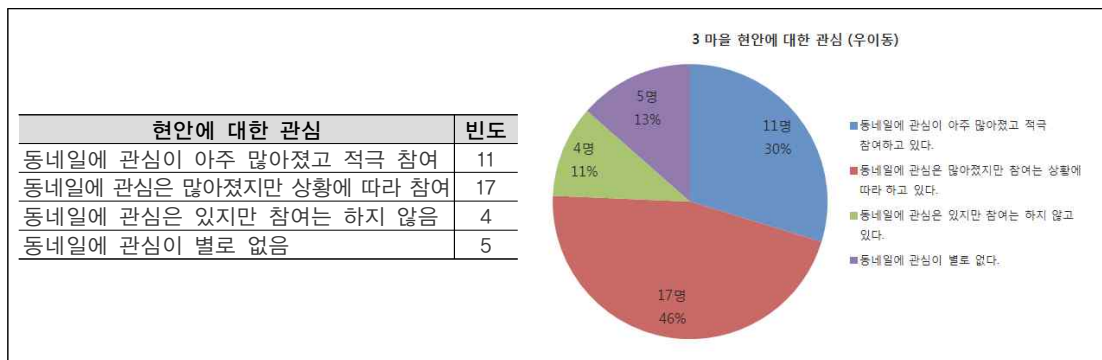
이와 연계한 만족도는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가 87%로 가장 높고 주민동의서가 76%, 교육 및 답사가 74%, 설문조사 및 인터뷰가 69%, 사업대상지 신청이 63%, 주민대표회의의 67%, 마을신문 및 인터넷 홍보 65%, 순임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질문 2-1. 귀하가 사업 참여방법에 대해 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 2-2. 귀하가 사업 참여방법에 대해 불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의견
참여 경험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과 만나면서 의견을 합의해나가는, 소통하는 과정과 방식이 좋았음</li> <li>·이전사업과 다르게 주민의견이 보다 반영이 잘됨</li> <li>·주민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 마을의 문제를 결정했음</li> <li>·주민참여와 협의가 보장되었음</li> <li>·동네의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음</li> <li>·대문과 담장 등 시공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음</li> <li>·마을주민으로서 알아야 하는 사항 정도는 알려주었음</li> <li>·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무원이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주민과 가교역할을 열심히 해주었음</li> </ul>
	불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회가 주어졌지만 적극적인 참여는 일부 주민만 함</li> <li>·참여하는 사람들의 주도성이 너무 강하게 나타남</li> <li>·여러 의견을 모으려는 과정이 너무 소모적임</li> <li>·경관사업에 대한 합의가 부족</li> <li>·교육이라는 것에 낯설고 노인들이 많은 동네라 참여도가 낮음</li> <li>·회의시간이 너무 늦음</li> <li>·시공 재질(방부목)에 대한 불만이 높음</li> <li>·동네가 깨끗해지는 것은 긍정적이나 몇몇 사람에게 혜택이 치중되었음</li> <li>·깨끗해졌지만 획일적이어서 동네의 매력이 떨어졌음</li> <li>·사업대상지 신청을 했으나 선정되지 못했음</li> </ul>

- 질문3. 귀하는 우이동 경관협정사업을 계기로 동네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셨습니까?



[그림 부록 1-51] 마을 현안에 대한 관심

경관협정사업을 계기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30%이며, 관심은 많아졌지만 상황에 따라 참여한다는 응답은 4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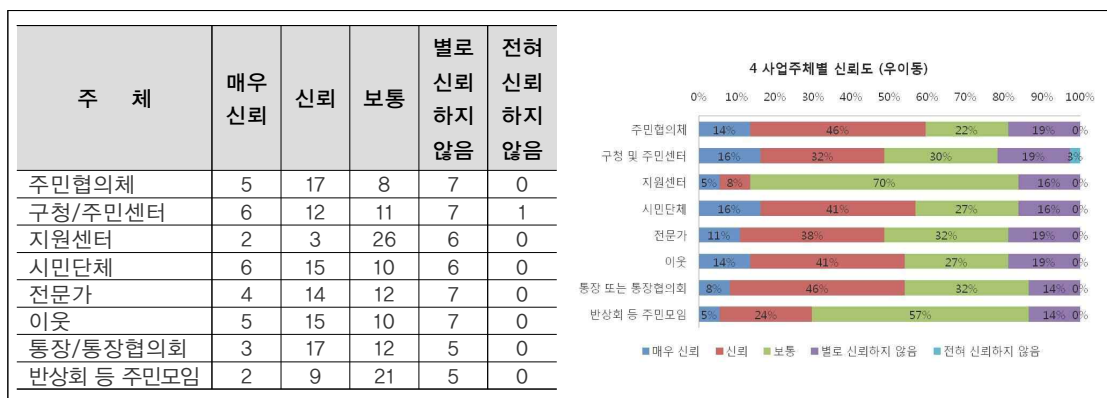
경관협정사업을 계기로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분야에서 시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함

- 질문 3-1. 3번항목에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의견
동네 현안에 대한 참여/ 미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 주민들의 협동이 이루어져서</li> <li>·동네의 변화가 긍정적이어서</li> <li>·동네 주민과 안면이 생기면서 관심이 많아졌음</li> <li>·경관사업 이전부터 마을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음</li> <li>·사업 당시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어서</li> <li>·우리 집은 피해가 있었지만 동네 전체적인 면에서는 개선되었음</li> <li>·참여를 해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li> <li>·회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li> <li>·바쁘고 참여할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li> </ul>

#### □ 사업 추진주체에 대한 신뢰

- 질문 4. 귀하는 우이동 사업을 계기로 함께 진행했던 기관이나 사람에 대한 신뢰관계가 변화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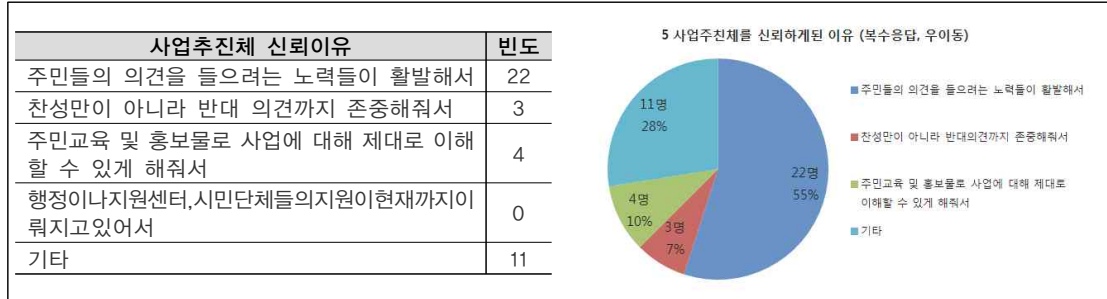
[그림 부록 1-52] 사업주체별 신뢰도

가장 높은 신뢰를 보인 사업추진 주체는 주민협의체로 60%의 신뢰도를 보였으며 다음은 시민단체 57%, 전문가 49%, 구청 및 주민센터 48%임

이는 경관협정사업에서 가장 많이 주민과 교류한 주체이기 때문이며, 특히 가가호호 방문 및 개별면담 등의 활동을 했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일반에 대한 신뢰도는 이웃이 55%로 가장 높고 통장은 54%로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음

- 질문 5. 귀하가 사업추진주체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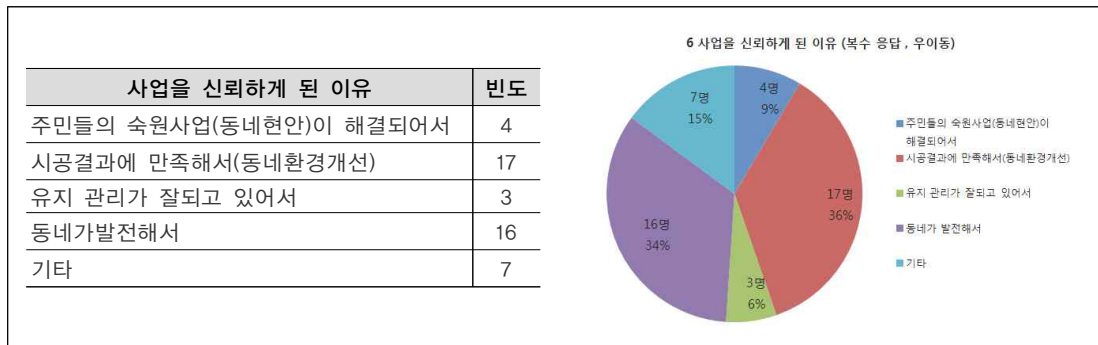


[그림 부록 1-53] 사업주체를 신뢰하게 된 이유

추진주체에 대한 신뢰의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이 활발해서가 55%이며 기타 의견이 28%임

기타의견들에서 신뢰에 대한 긍정과 부정은 반반인데 신뢰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은 ‘조금씩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만져주었기 때문’, ‘마을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신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관심이 없음’과 ‘혜택이 특정된 사람들에게 치중된 듯해서 신뢰가 가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

- 질문 6. 귀하가 이 사업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그림 부록 1-54] 사업을 신뢰하게 된 이유

사업신뢰의 가장 높은 이유는 시공결과에 만족해서가 36%, 동네가 발전해서 34%, 기타 15%, 주민숙원사업 해결 9%, 유지관리가 잘되어서가 6%순임

전반적으로 시공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가로환경 정비, 담장 이전 및 전봇대 이설, 소화전 설치 등을 통해 동네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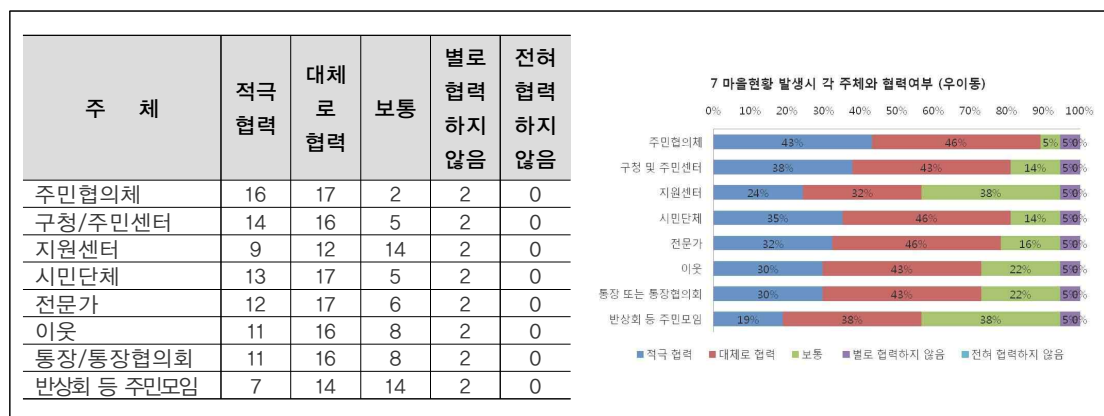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응답이 낮은 이유는 우이동의 경우 마을 주도로인 진달래길의 폭원이 4m이며 막힌 도로여서 주민들은 도로확장이나 연계도로 개통 등이 숙원사업이었음. 그러나 도로확장은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 외에는 없으나 이는 비용의 과도함과 더불어 연계도로 개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음. 또한 경관협정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 초기 한 달 간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동의를 이끌어냈었음. 따라서 주차나 교행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럼에도 주민들은 암묵적 동의 속에서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

- 질문 7. 귀하는 동네에 여러 가지 현안이 생긴다면 어떤 기관이나 사람과 계속 협력하여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현안에 대한 협력주체는 주민협의체가 89%로 가장 높고 구청 및 주민센터 81%, 시민단체 81%, 전문가 78%, 이웃이나 통장은 73%임

이는 경관협정사업에서 나타난 역할과 연결되는데 주민협의체(현 경관협정운영위원회)의 지속적인 역할에 대해 주민들은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지원센터나 반사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아 협력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높음



[그림 부록 1-55] 마을현황 발생 시 각 주체와 협력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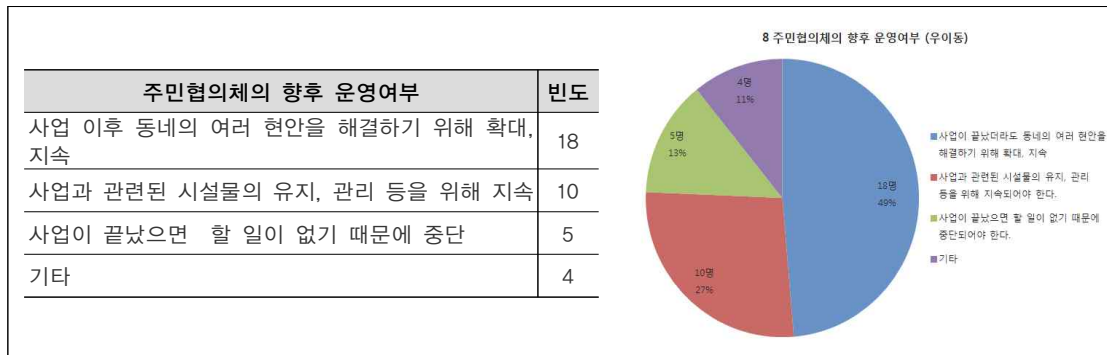
- 질문 7-1. 적극 협력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 7-2. 협력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의견
협력	유	·성공적이었고 마을이 발전한다는 믿음이 생김 ·오히려 획일화된 모습을 보고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생김
	무	·평등하게 진행된다면 협력할 것임 ·계획수립 자체가 탁상공론이기 때문에 협력할 생각이 없음 ·직장 생활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하기 힘들

협력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마을일이고 마을이 개선되었다는 것에 대해 믿음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그리 많지 않음

#### □ 사업추진의 주민주도 가능성

- 질문 8. 귀하는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협의체(또는 운영위원회)가 향후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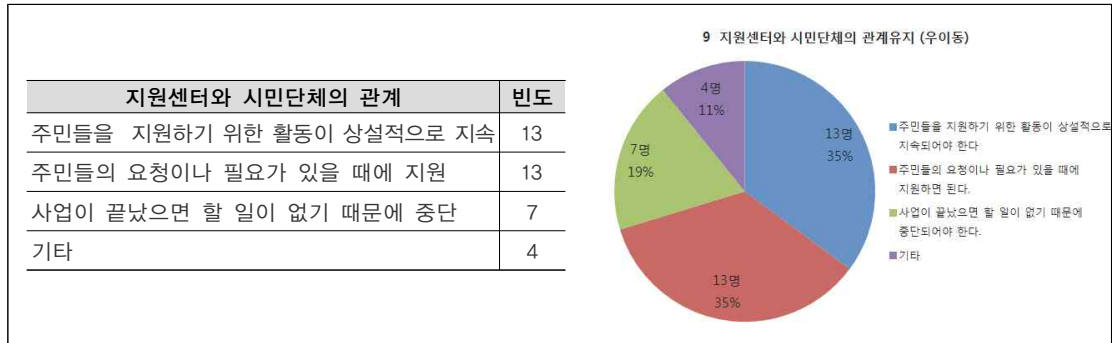


[그림 부록 1-56] 주민협의체의 향후 운영여부

협의체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49%가 확대, 지속이라고 응답했으며 27%는 경관사업의 관리라는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이는 운영위원회가 동네 텃밭 조성 등과 관련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이 민원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임. 구청 역시 진달래 마을과 관련된 사안은 운영위원회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주민대표성을 인정받고 있어서 확대, 지속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질문 9. 귀하는 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나 시민단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부록 1-57] 지원센터와 시민단체의 관계

지원센터나 시민단체와의 관계유지는 상설적 지원과 필요시 지원 모두 35%이며 19%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시민단체가 경관협정 사업 당시 보여준 주민들의 신뢰와는 별도로 경관협정 이후 운영위 지원, 에너지 절감 사업 제안 등의 활동을 이어가기는 했으나 ‘경관협정’ 2차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를 받아내지 못함으로서 상설적 지원과 필요시 지원이 동일한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보임

또한 사업 이후 관리라는 측면을 소극적 지원에 머물렀기 때문이기도 하나 시민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주민들이 하고 있다고 보여짐

#### □ 사업관계망의 공간적 상관성

- 질문10. 귀하께서는 경관협정 사업을 통해 주민들과 친밀도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친밀도의 변화가 없음이 50%를 넘나드는데 친밀도의 변화가 없다는 답변은 동네의 특성과 연계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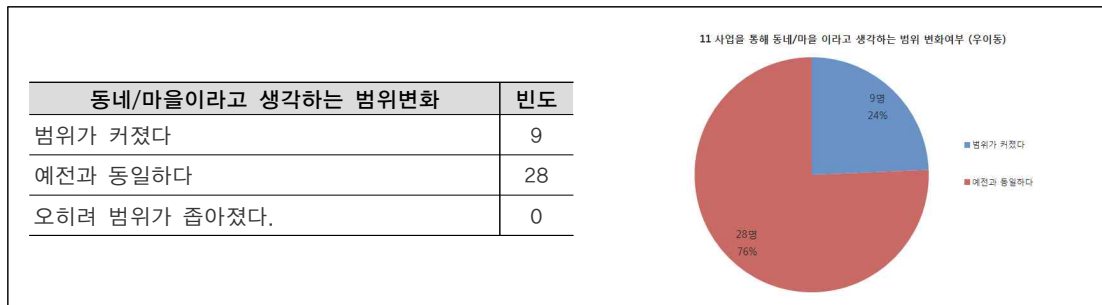
정주성이 높고 주민과의 일상적 관계가 활발한 진달래마을의 특성상 경관협정사업 역시 주민들의 친밀관계가 전제되었기에 크게 변화 나타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임

활발한 대화는 예전부터 친한 이웃과 주민협의체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는데 주민협의체는 일반적 이웃관계를 넘어서서 마을에 대한 논의와 일정정도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발한 대화가 많아진 것으로 판단됨



[그림 부록 1-58] 사업을 통한 주민들과의 친밀도 변화여부

- 질문11. 귀하께서 이 사업을 통해 동네/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달라지셨습니까?



[그림 부록 1-59] 사업을 통해 동네/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변화



[그림 부록 1-60] 커졌다면 동네/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

진달래마을은 지형적으로 인근 마을과의 연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예전과 동일하다는 응답이 76%로 가장 높으며, 범위가 커졌다고 응답한 9명중 8명이 진달래마을로 답변한 이유는 '우리 집이 속한 골목'에서 마을전체로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임

이는 경관협정사업이 단일 가로나 공동시설물에 한정된 시공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대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임



### ③ FGI 조사 내용

#### □ 소진수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관협정이라는 단어도 매우 생소했고 주민들이 경관계획 내용을 수립한다는 것에 대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주민들이 경관협정 체결자가 되고 경관협정사업을 신청했던 것은 간담회, 설명회, 회의, 개별방문 등에 대한 통합적인 결과라고 생각함. 이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도시연대에서 일일이 개별 집들을 방문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사업이며 행정 역시 주민들에게 적극 다가가기 힘들기 때문에 도시연대에서 열정을 갖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설득한 결과라고 생각됨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사업에 대한 이해가 낮았던 사람들의 오해도 있었지만 1년 후 경관사업을 시행하면서 자발적으로 사업신청자가 20여명이나 늘어나서 40여명이 되었던 것은 이러한 주민 협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사업에 대한 이해는 사실 수십 번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던가, 참여를 귀찮아하고, 또 주민이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에 대해 불신도 있었고, 주민을 선동해서 다른 실적을 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막연한 불신도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생각함. 물론 운영위원들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일일이 초인종을 누르고 만났음에도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도 이유라고 봄. 그래도 더 적극적인 활동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주민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임

경관협정사업이 종료된 후 운영위원회는 준공 후 사업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해왔는데 예를 들어 식재한 나무들이 일부 죽어버려서 교체하기도 했음. 매년 2-3회 간담회 형태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지속하고 있는데 주요 안건은 현재 진행 중인 주말농장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사항, 신축되는 건축물의 절차상 문제에 대한 주민 민원을 구청에 제시하는 등 마을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음, 현재 운영위원회는 20명으로 회의 때마다 50%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우 열정적임

운영위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이나 논의 내용은 개별적으로 이웃에게 알리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그럼에도 통장이

혼자서 마을일을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가 운영위원회 운영 만기기간인 5년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운영위원회를 존속시킬 의무는 없지만 운영위원회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임

경관협정 사업 후 시골 같은 마을이 새롭게 정비되었으며 쓰레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있음. 초기에는 우리가 청소하는 당번을 정해서 운영했는데 이제는 주민들도 각자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으며 줌도독이 많이 감소되었음. 10억 원의 예산으로 100호가 사는 마을이 엄청나게 변화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함

경관사업 후 시공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사소한 민원은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구청에 전달하고 구청에서 처리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구청의 일처리 방식을 보면 창의적이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친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음. 이는 서울시나 구청 모두 경관사업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인데 결국 행정은 올 스톱 상태에서 주민들만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임

만일 다른 동네에서 경관사업과 같은 종류의 일을 한다면 현장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기하고 싶음. 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진정한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럴 때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같이 해결해나갈 수 있음. 진달래마을의 경우 동의서를 두 번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생했는가? 134세대를 대상으로 50%가 넘는 동의율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것임. 좋은 취지의 사업이더라도 듣기를 거부하거나 나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방관하려는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주민들에게 파고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나와 마을의 관계에 대해 인식하는 과정을 만들어내야 함. 물론 우리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동네에서 사업을 한다면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한다면 또 다른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임. 귀찮아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는 영원한 숙제라고 보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이나 시민단체의 시간과 비용 투자가 반드시 필요함

진달래마을에 또 다시 사업을 진행한다면 분명 더 잘될 것이라고 보고 현재의 운영위원들이 활동을 해낼 것임. 경관협정사업이 시공 전까지 2년간 준비했지만 아마도 기간도 많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함

경관사업의 문제점은 1차 시범사업 후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인데 사업 초기에는 여러 형태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이해가 부족해서 뒤늦게 참여한 사람들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점임. 즉 시범사업으로만 끝났다는 것인데 2차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

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했다면 사업을 종료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할 시스템을 만들고 확장하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속에서 주민들 스스로도 참여에 대해서 이해하고 시범사업이 확산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1차 시범사업이 완료된 후 새로운 사업을 연계하더라도 서로간이 신뢰와 변화가 전제 되어야 하는데 2차 경관사업을 할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제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됨. 시범사업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결합시키고 신규 사업을 할 마을들은 시범마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다른 형태로 진화하는 과정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주민들도 내부 집수리에 대해 고민하고 기꺼이 자부담을 감당했을 것임

1차 사업이 완료된 후 바로 2차 사업이 지속될 것처럼 했는데 중단되어버린 것임. 도시연대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더라도 문제를 파악하고 경관사업의 지속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게 생각됨

#### □ 길무언 (경관협정체결자)

4년 전 경관사업에 대해 논의가 시작될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진달래길의 협소함으로 인한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등산객들이나 외부인들의 잦은 왕래로 CCTV를 설치하면 방법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음. 이후 수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내용을 점차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고 이 사업이 마을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됨

경관사업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설명해줘서 이해는 되었지만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계속 갖고 있었음. 그러나 경관협정사업에 대한 동의서와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동네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 운영위원회 역시 반사회처럼 잘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임

실제 사업을 통해 무너져가는 담장 보수와 대문 시공으로 주민들에게도, 외형적으로 보기 좋아졌으나 담장이 너무 낮은 집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는 함. 개인적으로는 적응이 되어 상관없지만 초기에는 도난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걱정이 컸던 것도 사실임. 그러나 나무를 식재해서 외부시선이 차단되고 골목 안쪽이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음

경관사업을 하면서 우리 집에서 먼저 지붕을 고치니깐 이웃집들이 지붕공사를 하게 된 것인데 이처럼 경관사업은 알게 모르게 주민들이 스스로 집을 고치게 했으며 아마도 다른 사업들이 제안된다면 주민들의 호응도 높을 것으로 보임

지금도 우리 마을이 좋다고 생각함. 자연경관이 뛰어나기 때문이기도 한데 소방도로나 주차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삼각산 텃밭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운동장을 개방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고민해봤으면 함. 경관협정사업을 통해 소화전을 지상으로 끌어올렸고 집집마다 화재감지기도 설치해줬는데 과거보다는 화재에 대응하기가 쉬울 것으로 보임

운영위원회는 주변 이웃이나 통장을 통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는 잘 알지 못함. 운영위는 5년 동안 유지되어야 하는데 운영위원회의 유지기간이 끝나는 시점이지만 지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것보다는 일단 시작된 모임이기 때문에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고 사업 결과물에 대해서도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할 것임. 일례로 시공 후 대문에 하자가 생겼다면, 방부목이 변질되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임으로 보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관리해줘야 할 것임

#### □ 기타의견

대문 디자인부터 담장 색채까지 모든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주민들의 동의하에 진행한 것이 매우 좋았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민들이어서 개인 주택 개선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지 않았는데 이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매우 많아서 진행이 가능했다고 보여짐. 사업 초반에는 설명하는 내용들이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 의구심이 많았었기 때문임

1차 사업에 혜택을 받지 못해 2차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진행되지 않아 매우 아쉬움

경관사업이 오히려 마을의 경관을 획일화시키면서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났기 때문에 제대로 마을을 가꾸기 위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경관협정과 동일한 시기에 별도로 진행된 대동천 정비사업은 치수와 소관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음. 생태하천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으나 인공적인 하천을 만들어 버렸음. 또한 스피커를 달아 동네에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있음

□ 박승배 (도시연대사업국장/ 우이동경관협정사업 담당)

도시연대가 활동을 시작한 2009년의 경우 설명회나 공청회는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음. 경관협정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한계들을 보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공에 대한 지원의 규모는 컸지만 주민들이 이 사업을 이해하거나 활용하고, 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는 예산은 거의 잡혀있지 않았음

제도라는 것은 주민들이 활용하지 않으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데, 진달래마을의 경우 도시연대가 주민들에게 이리저리 풀어나가면서 다가간 것이며 이 부분은 비용도, 프로그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음. 예를 들어 경관협정이나 경관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현장사무소를 운영하여 활동가가 상주하는 방법도 있고, 구청 등 행정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지원센터’도 있으나 이처럼 보완장치들이 없는 상태에서 저예산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다보니 헌신적으로 주민들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을 찾기가 힘들었음

운영위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본다면 사업을 검토하는 차원의 운영위였음. 이는 도시연대 등 연구진들의 책임인데 운영위에서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면서 실행으로 전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사업기간인 1년에 맞춰야 한다는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의 답을 갖고 운영위원들을 만나면서 기술적으로 유도한 측면이 있음

또한 공식적인 전체 회의 등을 진행하기보다는 그물 같은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초기에 몇 번 만나면서 충분한 토의를 한 후 동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골목이나 블록단위로 논의의 장을 열어나갔다면 에어컨 실외기 등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경관협정사업을 활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프로그램을 셋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했다는 생각을 함

시범사업에 대한 행정의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기간이나 성과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했으며 정보 역시 일방성에 치중하면서 주민과 피드백에 한계도 가졌음. 주민 역시 짧은 기간 내에 결정하고 행정의 지원을 요구하게 되면서 주민참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학습이 부족함. 마을만들기에 대한 사례나 회의, 의견제시 등에 머물러버리는 현재의 주민교육과 답사프로그램은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시범사업이라는 1년 내에 해결되는 부분이 아님

2010년 시공을 위한 실시설계와 시공을 위해 전문가 MP를 도시연대가 추천한 주대관소장이 선정되었는데 MP의 활동은 주민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였음. 주민들은 회의에 익숙하지 않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 여러가지 갈등이 많이 나타나고 서로간의 견제도 발생하였는데 이때 MP의 경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 일일이 개입하면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였음. 이로 인해 MP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절대적이었으며 설계라는 전문분야를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풀어나가는 방식을 보여준 것임

행정의 경우 구청은 적극성을 보이면서 소방서나 KT와의 연계성도 찾아나갔는데 경관협정 체결 후인 2010년도에 새로 온 담당공무원의 적극성으로 공무원과 운영위원, MP, 엔지니어링 회사가 주로 실시설계와 시공에 대해 주도해나갔으며 시공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공무원이 일일이 대응하였음. 행정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체결자 모집기간이 끝났음에도 추가 모집을 진행하여 공사지원대상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 속에서 운영위원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아졌음. 도시텃밭의 경우도 운영위에서 제안하면 공무원이 다른 부서와 연결시켜서 추진이 가능하게 만드는 등 행정과 현장과의 협력이 매우 높아졌었음

경관협정운영위는 현재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기적 모임은 갖고 있음. 운영위원회 활동이 소극적인 이유는 지속시킬 안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관사업의 경험이 너무나 강렬해서 다른 사업의 경우 소소하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에너지절감을 위한 저리용자 사업의 경우 주대관소장이 제안한 것으로 충분히 논의할 시간도 없이 하루 만에 처리해야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경관사업처럼 100% 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였음. 이는 경관협정의 전면지원이라는 방식이 잘못 굳어진 것으로 보임. 지붕의 경우에도 경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서울시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었으며, 이에 주민들은 자비로 기초공사를 하고 서울시에서 지붕만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거부당했음. 주민들과의 협의 속에서 전체적으로 개인의 사적영역인 담장이나 대문 시공을 50%까지 자부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서울시에서 다른 시범지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두 서울시의 비용으로 추진했는데, 이로 인해 주민들이 행정의 예산에 의존해버리는 현상도 나타났다고 생각됨

시공했던 집들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일정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는 참여의 문제라고 생각됨. 마을입구인 아랫동네는 경관협정에 대해 동의는 했지만 회의에

잘 나오지 못했고, 운영위원장이 있는 윗동네의 경우 회의에도 적극적이었으며 골목 모임도 추진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음. 또한 윗동네의 환경이 좀 더 열악했기도 했으며 시공하면서 소유자와 시공자간의 현장에서의 합의부분이 적용되기도 했기 때문임

담장을 낮추는 문제는 이미 계획에서부터 예견된 문제였는데 서울시의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높이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음. 즉 서울시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경관협정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고 이에 동의한 주민만 지원되었기 때문에 체결자들이 시공과정에서의 불평등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요구였음

시공 후 사후관리에 대한 불만도 일정정도 나타났는데 주민들은 서울시가 모든 것을 해결해줘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시공에서 나타난 하자는 당연히 시공업자가 해결해줘야 하지만 관리부재속에서 나타난 하자는 주민 스스로가 관리해야 하는 것임

운영위원회의 운영방식에 대해 문제제기 역시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운영위원들이 협정 체결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경관사업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임. 공무원의 적극성을 운영위원들이 받아내고 직접 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주민들을 설득했던 과정이었으며 이를 통해 마을에는 새로운 리더들이 형성하게 된 것임

진달래마을의 리더들은 어르신 몇 분들이었는데 경관협정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분들이 초기 결합했다가 ‘전체의 참여와 의견조율’이라는 새로운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탈되었고 2년 동안 마을전체가 경관협정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마을의 문제에 대한 논의의 대표성을 운영위원들이 갖게 된 것임

주민들의 역량강화는 사업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보다는 관리에서 나오게 됨. 이때 부터는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인데 자신의 문제로 느낄 때 스스로의 역량은 강화되는 것임. 현재 재생사업들에 대해 주민들의 참여가 높지 않는 이유는 마을의 일과 자신의 일을 분리하기 때문인데 진달래마을 운영위원회 역시 시공 후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만들어나가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책임이나 자각을 갖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함. 이미 청소와 같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는 주민대표성이라는 차원보다는 마을일에 헌신적인 동호회나 봉사단체와 비슷한 형태라고 보임. 이는 운영위원회이 문제이기 보다는 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의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함





## 부록2. 도시규모별 검토

### 1. 도시별 인구사회 · 물리적환경 · 지자체재정요소 비교



[표 부록 2-1] 도시별 인구사회 · 물리적환경 · 지자체재정요소 비교

인구사회요소	도시명	여주군	사천시	영주시	정읍시	칠곡군	논산시	공주시	김천시	통영시	제천시	당진시	광양시	하남시	포천시	청원군	의왕시
	인구규모	10	11	11	11	11	12	12	13	13	13	14	14	14	14	14	14
	인구증감률	1.28	1.46	0.46	0.47	1.63	0.55	0.57	0.03	2.18	1.32	4.5	1.42	1.27	0.48	2.17	4.66
	노령화지수(고령인구비율)	15.06	15.68	18.65	20.57	11.23	19.51	18.05	18.03	11.87	14.85	15.68	9.36	9.47	12.74	14.44	8.19
	고용률(인구1,000명당 종사자수)	314.66	356.62	274.94	266.11	402.37	298.07	299.06	294.23	318.21	314.95	329.01	430.91	333.38	439.54	445.62	256.55
물리적환경요소	행정동 단위 쇠퇴비율	－	36.62	27.2	26.39	－	32.48	34.63	31.5	37.91	30.89	－	41.02	57.58	45.13	－	48.96
	노후단독주택지비율	－	64.06	72.3	59.06	－	63.46	52.29	54.29	63.7	60.84	－	59.3	35.47	35.99	－	30.58
지자체재정요소	재정자립도	36	24	18	13	29	19	19	24	31	24	39	38	48	35	38	53
	재정자주도	72.1	61.7	67.2	64.8	71.1	59.9	65.4	68.3	61.4	69.1	62	69.3	67.9	60.1	65.4	77.1

서산시	안동시	안성시	오산시	구리시	양주시	이천시	충주시	강릉시	김포시	광주시	거제시	목포시	양산시	경주시	순천시	군산시	경산시	여주시	춘천시	군포시	아산시	익산시
16	17	18	18	19	19	19	20	22	22	23	23	25	25	26	26	26	27	27	28	28	28	29
1.13	0.27	4.45	14.27	0.38	7.89	2.8	1.06	0.48	5.52	4.61	1.22	0.44	3.98	0.09	1.14	2.16	1.8	0.06	1.95	4.44	3.87	0.17
14.24	18.05	12.4	6.17	8.01	10.15	10.2	14.37	14.3	10.13	8.95	7.21	10.24	8.76	15.4	11.45	12.31	11.57	12.47	13.11	7.66	10.47	12.78
312.69	305.45	419.77	236.2	261.26	328.31	407.82	311.95	325.18	421.32	385.04	474.79	291.12	378.55	377.91	283.21	345.28	337.09	332.7	320.8	307.46	420.39	310.81
43.06	30.92	48.81	49.87	47.49	47.45	50.81	32.43	37.84	53.75	56.08	57.14	32.31	47.71	36.65	36.31	29.09	40.48	33.3	40.56	50.27	54.24	33.06
60.73	70.8	43.24	49.58	38.96	44.32	11.27	54.84	40.23	6.63	17.41	56.43	68.11	47.79	65.08	53.04	52.92	56.86	64.76	22.7	20.88	58.38	64.22
32	15	40	59	48	41	50	20	24	46	58	23	25	42	28	21	27	28	29	31	52	52	24
67.1	67.1	68.2	65.7	72.3	60.5	67.3	64.2	68.8	69.9	72.6	67.8	60	67.4	65	64.3	60.6	66.1	65.4	71.5	75.3	64.7	62.3

원주	파주	광명	진주	평택	구미	시흥	의정부	화성	김해	포항	남양주	천안	안양	전주	청주	안산	용인	부천	고양	성남	창원시	수원시
31	33	33	34	39	40	41	42	49	49	51	53	57	60	65	66	73	85	85	90	95	105	107
2.2	9.87	9.45	1.11	2.52	2.14	1.78	0.11	3.33	2.43	1.08	7.36	3.39	0.85	1.03	2.03	1.94	4.41	0.67	1.19	1.79	－0.16	0.57
11.08	10.81	8.15	11.62	10.1	6.19	6.19	9.72	7.61	7.19	9.91	9.18	7.95	7.87	9.6	8.03	6.37	8.63	7.29	0.09	8.57	5.56	6.95
319.01	327.63	212.73	334.28	392.13	457.13	389.82	224.93	526	378	365	187.15	390.3	344.62	299.22	309.75	377.42	272.33	294.65	249.64	316.79	461.82	309.24
44.69	52.57	41.06	36.61	56.15	55.74	52.07	42.17	65.27	55.39	43.38	49.89	59.94	56.51	36.23	39.95	47.29	54.17	49.62	51.09	59.52	52.3	51.14
30.85	4.61	40.94	57.38	18.53	46.61	9.43	51.49	46.3	45.77	－	26.82	－	36.6	－	77.6	－	－	－	－	－	－	38.81
34	54	52	34	54	42	57	42	67	18	41	44	55	61	34	44	58	66	50	60	67	38	64
65.2	65.6	75.8	69.6	72.2	73.1	71.6	62.8	78.8	66	70.2	66.7	71.1	75.6	62.7	62	70.1	77.3	72.5	74.6	78.7	68.8	74.7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 2010; 통계청 2010년 행정구역 기준 인구 추이(2000~2010); 중앙정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정책」에 의한 시범사업 중 공동체관련 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현황 2010도시활력개발사업 시행기준 국토교통부 p.10;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지역맞춤형 낙후지역 정책을 위한 지역 유형구분 및 특성분석: 성장촉진지역 정책의 사례 연구, 이원호외(2011)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7권 제1호 p.96~108; 살기좋은지역만들기: 2007~2009년 3년 동안 30개 시·군 실시, 20008행정안전백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운영방안 pp.186~187; 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운영방안, 2008.3, 이창호외 pp.194~196; 희망만들기생활사업: 2011행정안전백서, 안전행정부, pp.646~650;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 2011행정안전백서, pp.621

